

제2장 예 술

포항지역의 예술문화는 연오랑 세오녀 신화와 고인돌, 암각화로부터 출발했다. 그리고 어느 지역보다 전설, 민담, 농요, 노동요가 풍부한 지역이며 동해 별신굿의 본산지이다. 신라시대 우리지역의 예술은 화려한 불교문화와 이에 따른 걸작 예술품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영일냉수리신라비와 흥해 중성리비 등을 찾아내고 있어 금석문화와 금석예술품까지 보유하게 되었다.

고려조에는 포은 정몽주가 명작시조와 여러 편의 문학작품과 수많은 한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으며, 진각국사 배천희도 이색이 쓴 비문 등을 남기고 있어 그의 인품과 예술도 짐작하게 하고 있다. 조선조에는 정선이 직접 청하 보경사 폭포를 그린 진경산수화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으며, 석곡 이규준의 《소문대요》, 《의감중마》 등 여러 권의 저서를 남기고 있어 당시의 학문과 의술 등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또한 장기로 유배를 온 당대 최고 유학자인 송시열과 실학자 정약용 등이 한시 등 많은 문학 작품을 남기고 있어 이 지역에 특이한 유배 문학까지 보태고 있다.

이 같은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일제 말기 8.15 해방, 6.25한국전쟁을 연이어 맞게 된다. 1945년을 전후한 식민 말기와 8.15 해방 공간에 우리 지역에서는 김용주, 이명석, 박일천, 김대청, 오실광, 박영달, 하태환, 한흑구 등이 포항의 정체성과 사상, 교육과 경제 건설을 얘기하는 한편, 문화와 예술을 얘기하는 소통의 장이 열리기 시작한다.

김용주는 당시 전국적으로 알려진 실업가로 1930년대 초 사립 영흥초등을 설립, 교장으로 취임했으며, 포항청년회를 결성하고 포항독서회를 조직해서 활동하다 일경에 의해 독서회를 강제해산 당하는 등 일제강점기에 민족적 아픔을 여러 번 경험했으며, 늘상 일경의 감시대상 1호의 인물이었다. 일제말기 그 어려운 시절에 이육사 등과 교분을 가졌으며, 후일 포항독서회 사건을 두고 해방이 되면 포항의 문화와 예술, 학문 등을 이끌어 갈 단체였는데, 강제해산을 당해 구심점을 잃어버린 큰 사건이라며 아쉬움을 술회했다.

이명석은 대구 교남학교(대륜고교 전신)을 거쳐 일본 관서미술학교를 졸업하고 1930년대부터 포항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청년운동과 문화운동, 육영사업 등을 광범위하게 펼쳐 온 인물로 6.25 한국전쟁 발발시에는 애린애육원을 설립, 지역의 전쟁고아를 모아 이들을 안전하게 길러냈다.

박일천은 일본 유학을 마치고 일찍이 포항으로 돌아와 포항 향토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향토사의 자료를 모으는 한편 본격 연구로 후일(1967년) 포항 최초의 지역 역사서인 《일월향지(日月鄉誌)》를 완성시킨 인물이다.

하태환은 해방공간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후진들에 대한 교육이라고 자각, 천신만고의 노력으로 동지들을 모아 학교를 설립하니 교육재단 이름도, 학교 이름도 모두가 동지이다. 즉 동지교육재단, 동지중, 동지상업고등학교(후일 동지고로 개명), 동지여자중, 동지여자상업고등학교(후일 동지여고로 개명), 포항수산초급대학(후일 포항대학으로 개명) 등이다. 그는 평생 인재육성과 교육에 몸 바쳤다. 그리고 문학인을 아꼈다. 그래서 동지 교가 노랫말도 당대 최고의 문학가인 정지용에게 부탁해서 가사를 미리 받아 두었으며 후일 한흑구를 포항대학으로, 손춘익, 박이득, 최가수 등을 차례로 동지상고로 불러 교편을 잡도록 했다.

오실광은 해방공간에 우리지역 경제인으로 초대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을 맡아 지역 경제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지역 경제 재건에 혼신의 힘을 다 했다. 특히 6.25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된 포항의 주택문제 해결에 앞장섰으며, 최초의 도서관인 서경도서관도 그의 희사금이 결정적 역할을 해주었다. 서경이란 이름도 그의 아호에서 따온 것이며 지금의 “포항예총” 사무실 건물이 바로 그것이다.

박영달은 1938년 대구일보 포항지사 기자로 포항에 부임하면서 최초로 사진예술과 이론을 우리 지역에 소개했다.

김대청은 이육사와의 깊은 교류로 이육사를 포항 미쯔와포도농원으로 안내한 장본인이며 이육사로 하여금 ‘청포도’ 시를 쓰게 한 모티브를 준 인물로 후일 이육사와 주고받은 청포도 시 관련 이야기를 한흑구에게 자세히 전하는 자리가 있었다. 한흑구는 다시 손춘익과 박이득에게 청포도 시의 고향이 포항 미쯔와포도농원이며 영일만이라고 어느 날 알려주었다.

김대청은 포항 최초의 문학단체인 흐름회 고문으로 있으면서 많은 후원을 아끼지 않은 인물이다. 그 뒤 정부 수립과 함께 김용주는 주일대사(당시는 일본과 국교정상수립 전으로, 주일특명전권공사라 칭함)로 부임하고, 박일천은 포항시장으로, 하태환은 학교로, 오실광은 상공회의소 회장 등으로 부임. 각각의 임무수행에 정신이 없었던 시기였다. 이즈음 문화계와 예술계 성향의 인사들인 이명석, 박영달, 한흑구, 김대청 등이 문화와 예술, 사상과 정체성, 얘기를 많이 하게 됐으며 방향 설정도 그려지게 됐다.

그러나 6.25 한국전쟁으로 포항은 초토화되고 모든 것이 정지된 상태였다. 전쟁 이후 포항은 10여년 이상 모든 분야가 전쟁복구사업으로 눈코 뜰 사이가 없었다. 전쟁복구가 어느 정도 이뤄지자 1960년대 중반 이명석, 박영달, 한흑구는 다시 청포도 다방에 모여 포항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예술 육성책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이에 문화,

예술, 사상, 정체성을 고민하고 관심을 가진 젊은 무리들이 이들 세분 스승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들이 바로 김기윤, 신상률, 서상은, 손춘익, 김삼일, 박이득 등이었다. 이들은 주로 세분 스승의 얘기를 경청했으며 스스로 따랐다.

당시 이명석은 앞으로 문화원과 예총을 세워야 하며 도서관도 빨리 세워야 한다는 등 구체적 지적과 지시를 해주는 한편 우선 문화, 예술 쪽의 관심인물을 찾아야 하고, 함께 행동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 활동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시기 문화 예술계 쪽으로 관심 있는 인물들이 대거 청포도 다방(지금의 북포항 우체국 옆)으로 모였다고 해서,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시기를 ‘청포도 문화살롱’ 시대라고 했다.

60년대 초부터 이명석이 주도하고 박인호, 신상률, 손춘익, 김삼일, 박이득이 참여한 가운데 문화원과 예총, 도서관 건립운동이 있었으나 문화원과 도서관 건립만을 이루고 예총 결성은 이루지 못했다.

1963년 포항의 문화예술인들은 포항예술인 총연합회를 결성하였으나 당시 인준구비 요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중앙의(한국예술인총연합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포항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숙원이던 예총포항지부 설립은 그 후 18년이라는 세월이 더 필요했다. 1981년 5월 19일 당시, 한국문인협회포항지부장이던 빈남수는 문인협회와 이미 결성되어 있던 사진협회, 연극협회, 연예협회, 음악협회 등과 협의하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포항지부’를 설립하고 예총 본부의 인준을 받아 초대지부장이 됐다. 그 뒤 예총 포항지부는 1987년 신상률이 3대 지부장으로 취임했으며, 8대 지부장으로 송수웅이 취임했다. 이 같은 과정과 역사를 쌓으면서 포항예총은 기구도 확대되고 각 협회마다 내실 있는 발전을 해 왔다.

이후 1987년 한국무용협회포항지부, 1988년 한국미술협회포항지부, 1994년 한국국악협회포항지부가 각각 추가로 설립됨으로써 현재 8개 지부에 1천여 명의 회원을 거느린 명실상부한 지역문화예술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예총포항지부는 1981년 설립 이후 지역문화 축제인 형산문화제(영일만축제에서 다시 일월문화제) 예술행사의 주관 단체로 참여해 왔으며 1990년부터는 매년 송년예술제를 개최해 예총지부 산하 8개 협회의 1년간 활동을 총 결산해 보며 아울러 회원 간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것은 물론 50만 포항시민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마련해 오고 있다.

또한 포항과 자매도시인 일본의 후쿠야마(福山)와 정기적인 문화교류를 통해 두 도시 시민들의 유대를 강화하고 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것은 물론 지역 문화를 국제화하는 데 기여해 오고 있다.

포항시는 1978년 해안을 낀 철강도시로서 시세와 성장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후쿠

야마 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다음해인 1979년에는 양 도시간의 국제우호도시 자매결연을 축하하기 위해 후쿠야마의 문화연맹 일행이 포항에 와 포항여성회관에서 공연을 했으나 이후 별다른 교류 실적이 없었다.

양 도시 문화예술단체의 교류는 9년간의 공백을 깨고 후쿠야마의 초청에 포항예총이 응함으로써 재개됐다. 1988년 5월 1일 예총포항지부는 후쿠야마시의 장미축제 참가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해 후쿠야마 공민관홀에서 연극과 무용을 공연했다.

이에 대한 답례로 후쿠야마 문화연맹 일행이 같은 해 10월 17일 포항을 방문해 명성예식장과 포항시민회관에서 공연을 가졌다. 이후 양 도시 예술문화인 간의 교류는 거의 매년 이뤄져 왔으며, 1990년대 들어 양 도시의 교류 실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0년 10월 17일 예총 포항지부 산하 포항무용단이 후쿠야마 그랜드 호텔 대강당에서 고전무용을 공연하였고, 1991년 10월 후쿠야마 국제교류회와의 문화연맹이 포항시민갤러리에서 후쿠야마 미술인들의 작품 36점을 전시한 뒤 예총 포항지부를 통해 포항시에 기증했다.

1992년 4월 후쿠야마 문화연맹 양악부의 듀오 미끼(三木) 부부 콘서트를 예총 포항지부와 포항제철 주최로 효자음악당에서 열렸다. 같은 해 8월 후쿠야마 미술관과 문화연맹, 예술문화진흥재단과 예총포항지부가 공동주최한 국제문화교류전이 열려 포항미술협회원작품 36점과 포항지역 학생작품 97점이 후쿠야마 미술관과 난도각(蘭島閣) 미술관에 전시되었으며, 이 작품들은 모두 후쿠야마 시에 기증됐다. 또 포항 무용협회가 두 도시의 미술관 홀에서 고전무를 공연해 한국전통무용의 아름다움을 과시하기도 했다.

1993년 8월 포항예총 음악협회 회원들이 후쿠야마 문화연맹과 양악부의 초청으로 후쿠야마의 시민회관과 벨칸토 홀에서 국제친선콘서트를 열었고, 10월 제17회 형산문화제를 맞아 듀오미끼 부부 등 후쿠야마 음악부 회원들이 포항시와 포항예총의 초청으로 방문해 음악협회와 공연(共演)으로 국제교류음악회를 포항시민회관에서 열었다. 11월 포항시민갤러리에서 두 도시의 서예교류전이 열려 미술협회 서예분과 회원 작품과 후쿠야마 문화연맹 서도부 회원 작품이 전시됐고 일본 측 작품 10점이 포항시에 기증됐다.

1994년은 두 도시 예술문화인들의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해였다. 8월 후쿠야마 문화연맹 서도부(書道部)가 주최하고, 예총포항지부가 협찬하는 국제교류 서도전이 후쿠야마 미술관에서 열려 포항미술협회 서예분과 및 향사묵연(香史墨緣) 회원의 작품이 전시됐다. 이 가운데 15점이 후쿠야마 시에 기증됐다. 같은 달 30일과 31일, 이틀간 포항에서 열린 제1회 해변예술제에 후쿠야마 문화연맹 양악부 소속 시티밴드(City band) 일행이 참가해 북부해수욕장과 효자아트홀에서 연주됐고 한 해 의연금 11만엔을 포항시에 기탁하기도 했다.

1994년은 양 도시결연 15주년을 기념해 11월에 예총 포항지부 연극협회의 은하극단이 연극‘배비장전’을 공연 했으며, 12월에는 예총 포항지부가 주최하고 포항시와 포철, 대백쇼핑이 후원하는 문화교류 회고전이 대백갤러리에서 열렸으며, 후쿠야마 문화연맹 후지이(藤井軍三郎) 회장 일행이 참석했다.

1995년 5월 22일 사흘간 후쿠야마 시에서 열린 장미축제에 예총포항지부 회원 8명이 초청되어 참가했고, 30일 포항문화예술회관 개관을 기념해 열린 국제우호도시 초청연주회에 후쿠야마 문화연맹 음악인 6명이 참가하여 함께 공연을 가졌다. 7월 후쿠야마 양악부 주관으로 열린 국제친선 교류음악회에 포항 챔버오케스트라 35명이 초청되어 후쿠야마에서 연주회를 가졌다. 12월 1995년 ‘포항 송년예술인의 밤’ 행사에 후쿠야마 문화연맹 양악부 회원이 참가해 공연을 가졌다.

1996년 4월 포항예총과 음악협회 주최로 열린 국제교류 ‘신춘음악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에 후쿠야마 성악가 8명이 참가해 공연을 했고, 1997년 9월 일본 에스파스 문화센터 주최의 국제민속예술 페스티벌 행사에 포항무용단이 초청공연을 가졌다. 또 11월 13일 제55회 후쿠야마 음악콩쿨에 예총포항지부장과 최능식이 초청돼 심사를 맡았고, 22일 후쿠야마 음악콩쿨 입상자 연주회에 1997년 화랑예술제 최우수상을 받은 최지은 양 등 4명이 참석해 연주를 했다. 1998년 10월 포항에서 열린 제10회 전국사진공모전 기념 자매도시 사진작품 교류전에 후쿠야마 문화연맹 사진부 작가 4명이 작품 23점을 출품한 뒤 이 작품을 모두 포항시에 기증했다.

1999년 3월 포항시와 후쿠야마시 자매결연 20주년과 후쿠야마 미술관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열린 문화연맹 예술전에 포항사진협회 조용진 지부장 등 4명이 참석해 회원작품 12점을 출품, 전시했다. 한 세기를 마감하는 1999년 포항시 승격 50주년이 되는 해로 이를 뜻 깊게 기리면서 다음 세기 문화의 시대를 열고자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0월 1일부터 개최된 국제문화교류 행사에 후쿠야마 예술인 10여 명이 여타 국내외 자매도시 예술인들과 함께 조형예술과 공연예술 부문에 참여하여 지구촌 시대의 문화예술 동반자가 될 것을 다짐하였다.

2000년에 들면서 포항예총 산하 각 협회는 예술 활동이 더욱 대형화, 다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크게 알차졌다는 평가를 얻었다.

2007년 10월 개최된 제7회 일월문화제에서는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각종 공연으로 갈채를 받았고, 2009년도는 포항시 승격 60주년 기념행사와 제8회 일월문화제 등으로 각 협회의 행사가 진일보 발전한 모습을 보였으며, 규모도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이 전 협회적으로 이루어져, 이제는 포항시만 상대하는 예술과 공연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우리지역의 예술과 공연을 알리는 전국시대를 열어 포항예술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다.

제1절 국악

1. 포항의 국악

포항국악, 정확하게는 포항지역 한국음악의 역사는 지방에 무형문화재나 인간문화재가 없는 관계로 시민들의 생활 속에 남은 동해안별신굿, 마을 지신밟기, 뒷방 노인들의 노동요 정도가 명맥을 이어온 역사였다.

김정미의 시조창, 유계순의 벽계국악원(시조, 경기민요)과 임종복의 포항국악원(가야금병창), 권오현, 이원만이 중심이 된 만피골놀이마당 한터울(풍물놀이) 등의 국악단체가 만들어지고, 동호회가 만들어지면서 한국음악을 익히고 즐기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는 시기를 맞는다.

그러다 정식으로 조직을 갖추고 수준 있는 국악 연주회가 무대에 올려 지기 시작한 것은 문화관광부가 쇠퇴하고 있는 국악의 바른 이해를 위해 국악의 해를 정하고 전국적으로 국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던 1994년부터였다.

당시 우리지역에서 국악 이론을 전공하고 음악협회 국악분과위원장으로 있던 김형동은 권영주, 임종복, 김정미, 심재돌, 최은경 등과 사설 국악원 대표들을 규합하여 국악협회포항지부를 결성했다. 창립회원만 35명이었다.

그 해가 국악의 해였음으로 동기 부여가 좋았던 점도 있었지만, 평소 우리가락 우리음악의 발전을 위한 조직적인 활동에 대한 요구가 강했다.

1994년 국악의 해에 정식으로 발족된 포항국악협회는 6월 30일 창립공연을 서막으로 포항 J.C 국제교류행사(대만 J.C 초청) 국악공연, 국악의 해 기념 ‘우리 멋, 우리가락’ 공연, 어린이 국악교실, 해변국악제, 송년국악제 등 공연행사를 치루며 전문국악인들이 지역 국악발전에 나서는 계기를 마련했다.

초대 김형동 지부장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우리 가락의 전통성과 우수성을 알리기에도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의욕적 활동은 이듬해 심장마비로 인한 요절로 어이없게 중단되고 말았다. 1년여 동안의 짧은 재임기간이었지만 국악 불모지인 포항에 김형동이 뿌린 씨앗은 실로 큰 것이었다. 김형동의 공백으로 포항국악협회는 잠시 혼선을 빚기도 했지만, 1995년 5월 16일, 제2대 지부장에 김문식을 선출하고 새로운 발전을 꾀하게 된다.

김문식은 전문 국악인은 아니었지만 문화예술에 대한 의욕과 정열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국악협회를 이끄는 데 큰 능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섬안큰다리밟기, 단오국악

제, 포항국악경연대회, 송년국악제 등의 국악연주회와 대회를 정기사업으로 뿌리내리고 민속국악단을 창단하여 전문연주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는 등 국악협회 활동의 변화 발전을 이루어 냈다. 이로써 지역 예술단체에 의한 수준 높은 국악공연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악의 저변 확대라는 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셈이었다.

포항국악협회는 2000년 들면서 새로운 발전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들의 실력이 원근지역에 알려지자 경주, 영덕, 울진 등지의 행사에 초청되었으며, 대구 등 대도시에서도 초청, 협연 행사가 이뤄지는가 하면 국제교류전과 해외 초청공연까지 이뤄지게 됐다.

2005년부터는 김오택 지부장이 국악협회를 이끌어 오고 있다. 경기민요로 문화부장관상을 받은 수상경력이 말해주는 것처럼 그는 전문인으로서 국악협회를 끌고 가며 협회의 공연, 강좌의 수준을 더한층 고급화했다.

그리고 리투아니아 수드말리나 국제민속춤축제 같은 큰 공연에 참가하여 한국과 포항국악의 위상을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다. 협회 내에 있던 포항국악단의 명맥을 지역 전공자들로 이으며 지역 국악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 한국국악협회포항지부 회원현황

- 지 부 장 : 김 오 택
- 부지부장 : 심 재 둘
- 이 사 : 김옥순, 김미화, 최경미
- 감 사 : 최명숙, 이소순
- 사무국장 : 이원만
- 회 원 : 권목하, 조복순, 강혜숙, 정윤희, 박정자, 김점목, 이혜순, 김명희, 문연숙, 이정자, 신숙희, 오순옥, 양선영, 박은주, 이장은, 김 진, 윤지원, 장윤지, 이승애, 이정혜, 박선철, 이현석, 박근현, 조병규, 강성일, 최현화, 김미경, 차경하

2. 지역의 주목할 만한 단체들

현재 포항지역에는 일반 국악 동호회들이 어우러져 국악의 저변 확대에 노력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다.

그 가운데서도 주목할 만한 전문·동호회 단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경상도소리연구보존회

김오택씨가 운영하는 경상도 토속민요 단체다. 경기민요, 배뱅이굿 전수 조교 등의 이력을 가진 그가 경상도소리도 경기·남도민요에 뒤지지 않는 민요임을 알리기 위해 만든 단체이다.

상주토속민요대회에서 그 단체의 회원들(황현자, 이소순 등)이 많은 입상자를 내고 있으며 새롭게 다듬고 무대화해서 공연수준이 높은 작품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KBS 국악한마당에 출연하여 지방의 국악수준을 알리기도 했다.

2) 만외골 놀이마당 한터울

1988년 11월 창단된 풍물전문단체로서 우리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단체 중 하나다. 우리 문화와 예술을 지키고자 하는 뜻있는 사람끼리 함께 운영하는 회원단체로서 학생, 주부, 직장인 등 폭넓은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한터울은 우리 민족음악을 포함시민들의 생활음악으로 만드는 데 노력해 온 단체이며 전통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근거로 새로운 소리와 춤을 만들어 내는 창작 작업, 그리고 무엇보다 문화가 상품으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예술 활동임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3) 풍물터 으뜸골

풍물터 으뜸골은 아마추어들로 구성된 사물놀이 단체이다. 1992년 8월에 창단된 이래 각종 문화교류 공연과 위로 봉사공연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는 전통예술문화 계승과 발전에 공로자이다. 순수 아마추어 연주단체 치고는 뛰어난 연주 실력으로 각종 민속국악 경연대회에서 입상을 하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1994년 일본 후쿠야마 시 초청 문화교류 공연에서는 한국적 특유의 신명으로 연주 실력을 선보인 바 있다. 최근에는 우리 음악의 완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단체의 명칭을 ‘풍물터 으뜸골 사물놀이’로 변경하고 전통놀이 문화보급 및 정착을 꾀하는 한편 지역예술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회원은 주로 일반 직장인을 비롯한 주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회원은 40여 명에 이르고 있다.

4) 풍류회

직장 및 주부, 학생들로 이루어진 대금연주 동우회로 1989년 창단된 단체이다. 이후 풍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인적인 기량 향상에 주력하면서 일반인을 위한 지도

도 해 오고 있다.

정기연주회를 갖기보다는 각종 음악단체와의 협연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또 찾아가는 형식의 연주 활동으로 국악 저변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권영주의 지도 아래 17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5) 민요보존회

인간문화제 57호인 이춘희 명창을 중심으로 그의 제자들이 결성한 사단법인 단체이다. 서민들의 정서가 깊게 녹아있는 민요를 전수하고 보급하기 위해 1999년 1월에 결성됐다.

정기 정식공연을 매년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 전문인 배출과 애호가 양산에 주력하면서 민요 보급을 위해 무료강습회, 민요 경연대회, 민요 발표회 등도 정기적으로 가질 계획이다. 장구, 가야금 등 국악 전반에 관심을 가진 예비 국악인은 물론 민요 애호가들까지 현재 활동하고 있는 회원은 모두 20여 명에 이른다.

6) 최경미무용단, 울산학춤보존회포항지부

최경미가 운영하는 무용단으로 문화원의 예술단 활동을 하며 지역의 크고 작은 축제에 무용으로 참가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오랜 수련을 통해 높은 수준의 공연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특징이며 울산학춤의 보급에도 힘쓰고 있다. 문화 봉사활동으로 지역의 복지시설이나 양로원 등을 찾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7) 심재들판소리연구소

심재들은 지역의 판소리꾼으로 대구시 무형문화재8호 이명희 명창으로부터 사사를 받았다.

2003년 부산국악대전 대상을 수상한 심재들이 판소리와 남도민요로 오랫동안 활동해온 단체로 해마다 정기공연과 다양한 공연활동을 하고 있다.

보호시설 등에 활발한 봉사활동을 해 2001년 도지사표창을 비롯해 많은 표창을 받았다.

제2절 무용

1. 포항 무용의 등장

무용예술 영역이 처음 포항에 펼쳐진 것은 1960년대부터이다. 역사로 보면 50여 년의 긴 세월을 지나온 것이다. 그러나 반세기의 무용 역사에 비해 걸어온 행보를 보면 무척이나 더딘 것이었다.

1960년대 지역 예술계는 최진환의 등장으로 인해 ‘무용’이라는 또 하나의 예술 장르를 개척하게 된다. 무용 인구가 전무하다시피 했던 시절에 최진환은 당시로선 지역 예술계에 새로운 물꼬를 튼 일이었다. 최진환은 당시 동지상고에 교편을 잡으면서 무용을 포함시민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었으며 후진을 지도하기 시작했다. 최진환이 열정적인 몸짓으로 지역에 무용을 접목시키려고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며 때때로 무대 위에서 무용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 그래서 포항에도 이제 무용이 시작됐고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할 즈음 최진환이 우리들의 기대를 저버린 채 갑자기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다. 동지상고도 예술계 인사들도 갑작스러운 스승의 죽음에 당혹했다. 그리고 그 슬픔은 길게 이어졌다. 무용계에 후계자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한 시점에서 최진환이 홀연히 사라지자 포항의 무용계는 다시 긴 침묵의 시간이 흘렀다.

이때 무용계의 새로운 인물로 김동은이 나타났다. 김동은, 1953년 영천 태생으로 1978년 포항에 이주해 와서 ‘김동은 무용학원’을 개관했다. 김동은이 첫 무용학원을 열었을 당시 포항에는 전문무용학원이 전혀 없었다. 설령 무용학원이라고 소개가 되는 곳이 있다 해도 대부분이 무도학원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이후 무용 인구가 어느 정도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부터다. 김동은 초창기의 난관을 딛고 꾸준히 제자를 육성해 온 결과, 우리지역 학생들이 대학 무용과에 진학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이들이 졸업한 후 지역 무용계로 돌아오면서 무용 인구도 점차 많아지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지역민들에게 예술적 감흥을 채워주는 당당한 역할자로서의 포항무용이 존재하게 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는 이러한 무대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다. 무대공연은 최진환 시대부터 간간이 이어왔지만, 이 시기에 들면서 본격화가 됐다.

김동은이 무용학원을 연지 1년째 되는 1979년 3월에 육거리 당시 시민회관에서 첫 무용발표회를 개최한 이래 매년 정기적인 발표회를 열어왔다. 궁중무용인 화관무, 싸움터로 떠나는 병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검무, 무당춤, 부채춤, 살풀이, 장고춤, 소품

창작무들이 주로 발표회에 선보인 내용들이었다. 또 이 시기부터 양로원, 애육원, 노인회 등지를 찾아다니면서 봉사 활동으로 소공연을 가졌는데 이같은 봉사 활동은 또 지역에 춤을 널리 알리는 계기도 됐다.

2. 무용협회 발족

1988년 지역 무용인들은 체계적인 무용활동과 권익옹호를 위해 무용협회를 설립하고 중앙으로부터 인준을 받았다. 당시 협회회원으로는 지부장 김동은, 회원으로 홍성관, 손현, 조은정, 안혜경, 이경수 등과 몇몇 중·고등학교 무용교사를 포함해서 모두 15명이었다. 이때부터 지역 무용계는 개인발표회, 학원발표회 수준을 벗어난 명실 공히 협회 차원의 본격적인 공연을 가졌다.

그 해 10월에는 올림픽 성화봉송 축하공연을 무대에 올렸으며, 포함지역의 종합예술제인 형산문화제에도 처음으로 참가, 발표회를 가졌다. 이를 계기로 보다 시각을 넓혀 질 높은 외부공연을 자주 유치하기 시작했으며, 주연회 무용단의 ‘산하’, 김근희 무용단의 ‘영(塋)의 세계’, 국립무용단의 ‘그 하늘 그 북소리’, 최정자 무용단의 ‘불림소리’ 등이 초청돼 시민들에게 신선한 춤의 세계를 보여주었다. 이때까지 포함에는 무용전문 사설학원으로 김동은 무용학원이 유일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무용협회가 설립되면서 권옥희 무용학원이 개원, 무용인구 양성에 나서면서 무용학원도 복수시대를 열었다.

1990년에 들어서면서 포함 무용계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다. 무용인들의 오랜 숙원이던 ‘시립무용단’이 창단된 것이다. 열악한 조건에서도 꾸준히 활동한 성과로 얻어진 것이라 하겠다. 당시 시립무용단의 창단은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일이었다.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하고 돌아온 지역출신 무용인들이 설 수 있는 무대는 너무나 한정되고 협소한 것이었기에 다들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이 시점에 시립무용단이 창단됨으로 해서 그들을 한데 묶을 수 있는 중요한 구심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창작의욕을 펼칠 수도 있었다.

상임, 비상임 단원체제로 출발한 「포함시립무용단」의 역할은 우선 예술성이 높은 고급 공연을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것이었다. 시립무용단이라고는 하지만 연습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라 개인 연습실을 사용하는 열악한 상태였다. 시립무용단이 어려운 가운데 자리를 잡으려고 한창 노력하는 시점에서 뜻밖에 갑자기 해체라는 결과를 낳는다. 문제는 무용인들 간의 불협화음이었다. 지난 10여 년간 공들여 세운 탑을 스스로 무너뜨린 안타까운 일이었다.

1990년대 중반은 사설무용학원의 르네상스 시대였다. 손현, 송영순, 김지연, 김성희 등 포항출신 무용인들이 잇따라 사설무용학원을 개원하면서 급작스런 무용 붐이 일어났다. 이로써 그동안 한국무용에 다소 치우쳐 있던 현실에서 발레와 현대무용 분야로도 영역 확대가 이뤄지게 됐다. 이런 가운데 포항무용협회는 전국무용제에 참가하면서 새로운 기량을 선보이기도 했는데, 1995년에는 우리 지역의 신화를 주제로 한 작품 ‘연오랑 세오녀’로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999년 말 급작스레 닥친 IMF 한파는 무용계라고 예외일 수 없었다. 매년 치러오던 작품 발표회와 무용제 등 외부공연이 부실해졌으며, 지역무용제 역시 학원생 작품 발표회 수준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특히 1998년의 경우 부산트러스트 현대무용단의 순회공연이 유일한 공연이었다. 국립무용단의 공연과 전위무용가 홍신자 공연, 대구지역무용단 초청공연 등으로 풍성했던 전년도와는 달리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IMF가 지역예술계에 미친 영향은 상상 이상으로 큰 충격이었다.

또 학원들도 갑작스런 수강생 감소로 학원마다 작품발표회도 열지 못하는 등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공연이 있다 해도 의상비 마련조차 어려운 상황에까지 밀리게 됐다. 그러나 이같이 어려운 시기에도 지역 소리품 ‘월월이청청’이 전국적인 무대에 선을 보였고 지역무용인에 의해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 활동이 이뤄진 것은 어려웠던 이 시기에 값진 노력이었다.

포항, 영덕 등 경북 동해안 지역의 민속놀이인 ‘월월이청청’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온 김동은이 중앙대 석사논문 <소리춤 월월이청청에 관한 연구>를 발표, 국내 최초로 본격적인 학문적 접근을 시도해 무형문화재 정식 등록 및 무대예술로의 형상화에 길을 터놓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간신히 명맥만 유지해오던 우리 춤이 ‘1998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폐막공연 때 선보임으로써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

김동은은 이 같은 여러 가지 공로가 인정 돼 2008 경북문화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포항 무용계는 그동안 많은 무용인을 배출했으나 지역 무용인들이 설 수 있는 토대가 너무 약해 새로운 기반 구축이 절실한 실정이다.

하루 빨리 지역 무용인들이 우리 지역에서 기량과 예술혼을 닦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그것은 바로 시립무용단의 재 창단이다.

• 한국무용협회 포항지부 연혁

- 1987년 2월 무용협회 인준
- 1989년 9월 제12회 형산문화제 출연
- 1988년 10월 올림픽 성화봉송 축하공연
- 1989년 10월 올림픽 개최 1주년 기념공연

- 1990년 11월 일본 후쿠야마 자매결연도시 초청 공연
- 1990년 11월 제1회 경북무용제 참가
- 1991년 7월 제2회 아시아 볼링대회 축하공연
- 1991년 11월 제2회 경북무용제 참가
- 1992년 8월 춤의 해 야외이벤트 공연
- 1992년 10월 제3회 경북무용제 참가
- 1993년 9월 제4회 경북무용제 참가
- 1993년 10월 제17회 형산문화제 출연
- 1993년 11월 제1회 포항무용제 참가
- 1994년 5월 제2회 포항무용제 참가
- 1994년 6월 제5회 경북무용제 참가
- 1994년 9월 제3회 포항무용제 참가
- 1994년 12월 송년무용제(포항예총)
- 1995년 6월 포항문화예술회관 개관 기념공연
- 1995년 11월 제6회 경북무용제 참가
- 1995년 12월 송년무용제 참가
- 1995년 12월 무용의 밤 순회공연
- 1996년 10월 영일만 축제 참가
- 1996년 7월 제7회 경북무용제
- 1996년 11월 중국 하남성 공연
- 1996년 12월 제3회 포항무용제, 송년무용제(포항예총)
- 1997년 9월 일본 오카야마「에스파스」센타 공연
- 1997년 12월 제8회 경북무용제 참가
- 1997년 12월 무용의 밤 순회공연
- 1997년 12월 송년무용제(포항예총)
- 1998년 10월 제5회 포항무용제 참가
- 1998년 11월 경북무용제 참가
- 1998년 12월 무용의 밤 순회공연
- 1998년 12월 송년무용제 공연 등 총 30여회 참가
- 2000년~2001 새천년 해맞이축제「연오랑 세오녀」공연
- 2000년 12월 송년무용제(포항예총)
- 2001년 11월 2001 전통 춤 페스티벌
- 2001년 12월 송년무용제(포항예총)

- 2002년 7월 제1회 포항해변 춤 페스티벌
- 2002년 12월 송년무용제(포항예총)
- 2003년 8월 대구 U대회 기념 안동무용협회 공연 찬조출연
- 2003년 12월 송년무용제(포항예총)
- 2004년 12월 송년무용제(포항예총)
- 2005년 7월 찾아가는 문화활동 「울릉군민과 함께하는 신명나는 춤세상 만들기」
- 2005년 9월 제14회 전국무용제 참가, 김동은무용단 「마지막 비상구」 은상 수상
- 2005년 12월 송년무용제(포항예총)
- 2006년 12월 송년무용제(포항예총)
- 2007년 10월 제7회 일월문화제-일월무용제
- 2007년 12월 송년무용제(포항예총)
- 2008년 10월 2008년도 10월 시민문화행사, 2008 일월무용제
- 2008년 12월 송년무용제(포항예총)
- 2009년 10월 제8회 일월문화제 - 젊은 무용가들의 춤 이야기

• **한국무용협회 포항지부 2009년도 회원 현황**

- 지 부 장 : 손 현
- 부지부장 : 이해령
- 고 문 : 김동은
- 사무국장 : 이지원
- 회 원 : 이경수, 홍승란, 안애경, 조은정, 강은희, 최태분, 공인행, 안성희,
문경아, 이민정, 이지원, 배송미, 이영경, 김지수, 송명순, 이현주,
윤영욱, 최정인, 이성란, 강유리, 김정임, 김점숙, 최현영, 윤지은,
김지현, 김지현

제3절 연 예

1. 포항연예협회 탄생전야

포항지역의 연예활동은 타 예술분야에 비해 비교적 늦게 시작된 감을 주고 있지만 협회 결성은 상당히 빨리 이룩됐다. 포항지역 연예활동은 그 시발점을 본격 산업화로 접어들 시점인 1970년 초반으로 잡아야 할 것이다. 산업화로 포항지역에 인구가 늘어나고 상권이 크게 형성되면서 타 지역에서 활동하던 연주자들이 하나 둘씩 포항에 이주해 오고 기존에 포항에 정착해 있던 연주인들과 자연적인 접촉 등으로 연예인들의 숫자가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밤업소를 주 무대로 하는 생업으로서의 연예활동을 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처럼 초창기의 연예활동은 지극히 생업 위주의 개인적 활동에 불과했으나 1972년 연예협회 동해분회가 발족되면서 흩어져 있던 회원들이 점차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당시 동해분회를 이끈 인물로는 김정훈, 최영주, 서명근 외 30여 명이었는데, 이 중 김정훈은 당시 분회 발족에 큰 역할을 했다. 그는 이북 태생으로 당시 만보당이라는 악기점을 운영하면서 작고할 때까지 평생을 후진 양성에 힘썼다. 이같이 동해분회가 발족되긴 했으나 한 달에 한번 정도 모이는 회원 간의 친목도모가 고작이었을 뿐 이 때까지도 이렇다 할 활동이나 성과는 미미했다.

그러나 ‘분회’라는 그들만의 동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연예인들이 권익을 찾고 질서를 정립하는 등 보이지 않는 힘을 얻게 된다. 무엇보다 회원제를 중심으로 활동을 펼치게 되어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게 된 것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었을 것이다. 이후 착실하게 회원을 확보한 결과 연예협회 동해분회에서 포항지부로 개편된 것은 1975년 6월 14일이다. 분회에서 지부로의 승격은 활동반경을 보다 넓혀주었을 뿐 아니라 지역연예인들의 권익을 찾게 해준 일이었다. 사실 지부승격이 되기 전 동해분회는 대구지부 소속이었으므로 회원자격 시험을 치를 때, 대구에서 일일이 심사위원이 내려와야 했을 뿐 아니라 회비 중 일부를 대구지부로 송금하는 등 불이익을 감내하고 있었다.

연예협회는 이때부터 협회 모습을 조금씩 갖춰 나갔다. 회원 수만 하더라도 60여 명으로 늘어나 동해분회 발족 당시보다는 약 2배 정도 늘어났으며 단순히 회원 친목도모에서 탈피해 자율적인 공연과 경로잔치, 군부대 위문 등 가시적인 행사에서부터 봉사활동에 이르기까지 활동면에 있어서도 매우 다양해졌다.

2. 장시일 지부장 선출

1979년 제5대 지부장에 장시일이 선출되면서 경주, 구미, 안동, 울진, 영천 등 경북 지부내의 교류의 길이 서서히 트이기 시작했으며, 낚시대회, 체육대회 등의 행사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 간의 유대관계를 가지는 등 지부 발족 이후 공식적인 대외 활동 등이 활발해졌다. 그러나 이같이 단체 행사의 다양해짐에도 불구하고 연예협회는 단지 협회로만 명맥을 유지하는 선에서 큰 발전 없이 1980년대를 흘러보냈다.

그러나 해마다 잊지 않고 챙겨 온 각종 위문공연들이 연례 정기행사로 자리 잡기 시작해 이제는 연예협회의 주요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무의탁 노인들 위한 경로잔치라든가, 지체부자유자 자선위문공연, 소년소녀가장돕기 등 이러한 행사들이 모두 그것이다. 비록 유명 연예인이 출연하는 거창한 무대는 아니지만 이러한 정감어린 사업들이야말로 지역민들에게 다가서려는 회원들의 순수함의 표현이었다.

3. 심근식 지부장 시대

1990년대 들면서 심근식 지부장 시대를 맞는다. 심근식 회장은 1992년 제1회 경북 청소년 창작가요제를 통해 그동안 억눌려 있던 청소년들의 욕구를 풀어주는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 신인가수 발굴을 위한 시도에도 힘썼다. 이 시대에는 대형 무대를 주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유도하는 등, 진일보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IMF의 한파가 몰아치자 연예협회는 힘든 고비를 맞기 시작했다. 밤업소 출연이 주 무대가 되는 이들에게는 생계조차 위협 받는 어려움이 닦쳤다. 더구나 회원들이 하나 둘씩 떠나고 활동무대 또한 그만큼 좁아졌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연례행사로 개최되는 송년자선 위안공연은 축소 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등 몇몇 행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유지시켜 연예협회의 건재함을 알렸고, 시민들의 따뜻한 호응을 얻고 있었다.

2002년에는 심근식 지부장의 노력으로 서울중앙본부로부터 포항지부에서 경북지부로 승격을 받았으나 심근식 지부장의 개인사정으로 지부장직을 사임하면서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었으나 협회 운영을 게을리 하여 2년 동안 협회 운영이 마비됨으로써 중앙으로부터 포항지부가 폐쇄되고 경북지부마저 구미로 이전하게 되었다.

그 후 심근식 지부장이 다시 한국연예예술인협회 포항지부의 지부장으로 선출이 되면서 포항연예예술인협회는 2005년 이후 서서히 회복기를 맞고, 각종 문화제 행사와 예술행사에 주역으로 나서면서 다시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때부터 중앙의 대형 연예인을 초청하는가 하면 대형행사로 가장 관중을 많이 모이게 하는 대중 친화적 모습으로 대중 속으로 파고들고 있어 이제는 연예행사가 관중을 결정하는 선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리고 해수욕장과 산사를 찾아가는 연예활동까지 펼치고 있는데, 보경사의 산사음악회, 칠포해수욕장의 재즈 페스티벌 등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예협회에서는 각종 자선공연, 위문공연, 불우이웃돕기 모금공연, 지체부자유인들을 위한 위안공연까지 펼치고 있어 전성기와 봉사개화기까지 맞고 있다.

• 연예협회 포항지회 연혁

- 1972. 10. 2 한국연예협회 동해분해 발족
- 1975. 6. 14 한국연예협회 경북지부 승격
- 1988. 2. 24 대통령 취임 축하 전야제
- 1988. 10. 8 장애인 올림픽 축하공연
- 1989. 11. 법무부 장관 표창
- 1991. 9. 29 제15회 형산문화제 개막 시민가요제전
- 1992. 3. 23 한국가요작가협회 포항지부 위촉
- 1995. 8. 10 해변가요제 축제 참가(가뭄극복 농어촌 돕기 운동)
- 1996. 12~1998. 2 송년자선위안공연
- 2000. 10. 5 해병교육훈련단 위안공연
- 2002. 9. 23 월드컵 축구 4강신화 전야제
- 2004. 10. 6 포항시민가요제 개최
- 2006. 8. 5 7080라이브 콘서트 개최
- 2008. 7. 22 청소년 락 페스티벌 개최
- 2009. 7. 25 제6회 포항국제불빛축제 “한여름밤의 라이브 콘서트” 개최

그 외 교도소 위문공연, 국군 장병 위문공연, 무의탁 노인 위안경로잔치, 지체부자유자 자선위안 공연, 시민가요제전 등 다수의 공연개최 이력과 표창패 및 공로패 수상경력이 있음.

• 한국연예예술인협회 포항지회 회원현황

지 회 장 : 심 근 식
 수석부지회장 : 손 해 숙
 기 획 실 장 : 김 성 봉
 고 문 : 최 형 태

부 지 회 장 : 최 만 도, 박 봉 태
 상 입 고 문 : 서 명 근

전문자문위원장 : 박봉대
상임위원장 : 원영대
연주분과위원장 : 김태근
홍보실장 : 이재호
가수분과위원장 : 배명순
무용분과위원장 : 조양선
감사 : 주효진

운영위원장 : 김용경
사무국장 : 김태영
라이브분과위원장 : 허인자
창작분과위원장 : 최은
연기분과위원장 : 현남주
상임감사 : 변경석

운영위원 : 김용하, 김수진, 박상우, 김영제, 이왕섭

회원 : 황성주, 김영식, 박성수, 김희갑, 이재균, 김창수, 김기운,
허호영, 박신태, 박대원, 박무희, 조장현, 이영미, 이동욱,
안봉욱, 이점식, 김진영, 이진익, 조성훈, 이호기, 이광호,
김상대, 권무술, 김동화, 김호우, 박정동, 오일환, 허인자,
이광수, 손을진, 이은주, 김석훈, 허엽, 김주달, 권애경,
김종숙, 문경애, 송분자, 권영삼, 하은경, 김유자, 최용임,
김선경, 박헌재, 임우란, 허연제, 이소연, 이정은, 이윤서,
권태현, 배내경, 김용자, 정법현, 서진숙, 손혁, 황용수,
조양선, 김남호, 김혜진, 오지은, 이희혜, 임영지, 최진경,
한보화, 박혜숙

제4절 음악

1. 포항 음악의 태동

우리나라에 양악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선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포교활동을 위해서는 찬송가나 창가의 교육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다. 또한 군대의 행진곡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담당했다. 포항지역의 서양음악 이입사나 초창기 발전사 역시 기독교나 군악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1933년 포항 YMCA가 전도의 목적을 겸한 20인조 관현악단을 조직하고 음악 연주회를 개최한 것이 최초의 서양음악 연주회였다. 당시 나이가 적었던 사람으로 2000년대 초까지 현존했던 인물은 의학박사 정복덕(鄭福德) 안동 성서병원장이었다.

2. 음악가 박태준 포항거주

포항이 제일교회 성가대를 중심으로 음악활동이 활발해질 무렵에 양악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은 1950년 포항에 머물던 박태준(연세대학교 음악대학 학장 역임)이 포항에 머물면서 이뤄지게 됐다.

박태준은 3년여 동안 포항의 미문화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이 지역 젊은이들에게 음악의 중요성을 얘기했으며 구체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 시절, 음악하면 악기의 연주만을 음악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합창과 독창, 작곡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그는 “육성이야말로 하느님이 주신 최고의 악기”라고 가르쳤다. 박태준은 교회 합창단 중심의 우리 지역 음악에 그 폭을 넓혀준 인물이며 지역 음악이 발전해 갈 수 있는 음악의 큰 주춧돌을 우리 지역에 놓아 준 음악계의 큰 인물이다.

포항음악의 ‘본격적인 수업시대’를 개막한 박태준이 머물던 동안의 가장 획기적인 사건은 헨델의 ‘메시아’ 전곡을 공연한 것이다. 지휘도 박태준이 직접 해주었으며 연주는 기존의 포항YMCA 합주단을 근간으로 해서 더 큰 규모로 성장한 제일교회 합주단과 오천기지에 주둔하고 있던 미 해병 군악대가 맡았고, 노래는 제일교회 성가대가 불렀다. 당시 한·미 연합 합주단과 합창단이 함께한 연주와 합창은 음악계의 일대 사건이라 할 만한 쾌거였다. 그리고 헨델의 ‘메시아’ 전곡을 연주했다는 사실은 대구, 부산, 서울에서도 보기 드문 음악잔치였다. 포항의 음악 수준을 크게 끌어올린 일이었다.

박태준은 그 뒤 몇몇 대학에 음악대학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 음악계에 최고의 거목이 됐으며 최고의 원로의 자리에 올랐다. 박태준이 포항을 떠나간 뒤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1955년 포항음악동우회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음악감상회를 정기적으로 가지고 독창, 합창 등 소음악회를 개최하면서 1965년까지 10여 년 동안 향토 음악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 단체의 회원으로는 오한주, 김규봉, 신상률, 최인규, 서석두, 이두우, 박도식, 이기흥, 김두일 등이다.

3. 포항 합창단 결성

1960년 나경관과 이진우는 포항 합창단을 결성하고 활발하게 음악행사를 펼쳤다. 단장은 이진우, 지휘는 나경관, 후원회장은 김영찬이 맡았다. 포항 합창단은 꾸준히 정기 발표회를 비롯한 향토의 각종 음악 행사를 주도, 포항 음악의 중심에 서 있었다. 나경관이 6년 동안 지휘봉을 잡았는데 그동안 이진우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두 사람은 아름다운 음악 우정을 나누었다. 나경관은 동지중·고 음악교사로, 이진우는 검사로 재직하다가 두 사람 모두 대구로 자리를 옮기면서 지휘자 자리와 단장 자리를 후배들에게 물려주었다.

그 뒤 1966년부터 1970년까지 지휘는 최인규, 서석두, 안성태 등이 번갈아 맡았으며 단장은 신상률이 맡았다. 1971년 지휘봉이 이우환에게 넘어갔으며, 1972년 포항 합창단은 해산하게 된다. 그리고 1965년 ‘아네모네 하모니 클럽’이 있었다. 나경관, 이진우보다 크게 연하이며 박태준이 현대음악을 일깨우던 시절에는 초등학생이었던 최인규가 중심이 된 음악단체였다. 이들은 음악강사를 초청하여 음악이론을 배우거나 음악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음악교육에 주력하였다.

- 해방 전의 포항 YMCA 합주단, 제일교회 성가대 및 합주단 시대
- 1950년대 초반, 박태준에 의한 정통음악 수업시대
- 1960년대 초반, 나경관, 이진우 중심의 <포항 합창단>
- 1960년대 후반, 안성태, 신상률, 최인규, 서석두 시대

등으로 정맥되어 왔던 포항 음악은 1970년대 초반, 주춤한 상태에 있다가 그 후반에 접어들면서 다시 활기를 띠게 된다. 이 시기에 특기할 만한 인물로는 이진우, 서석두라 하겠다.

이진우(서울법대 졸, 부장검사, 국회의원, 민정당 정책의장, 국회사무처장, 청와대 정무수석, 음악가, 국어학자)는 이력과 경력을 자세히 적자면 원고지 10장으로도 부족

한 사람이다. 그는 8개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원고 없이 8개 국어로 즉흥 대중연설이 가능한 사람이다. 또한 수필집을 3권까지 낸 수필가였다. 다른 행적은 그만두고 음악적 행보를 보면, 1970년대 최초의 포항시민의 노래·작곡 현상공모에 당선, 시민들에게 상당한 호응과 환영을 받았다.

이진우는 포항시민의 노래 작곡 뿐 아니라 포항고등학교 교가 등을 작곡했으며 지금도 교가가 없는 각급 학교에 교가를 작사, 작곡해 주고 있다. 그리고 서울연합성가대 등 매머드 연합합창단의 지휘봉을 자주 잡았다. 악기도 피아노를 비롯, 색소폰까지 다양하게 다루며 연주 실력도 모두 다 프로급이다. 그는 법률가, 정치인, 국어학자, 문학가 이전에 타고난 음악가였다.

서석두(서울법대 졸, 장기중학교 음악교사, 교장, 제철고등학교 교장)는 성악과 피아노에 일가를 이룬 사람으로 탁월한 음악 애호가이다. 포항제철고등학교 교장직을 퇴임하고는 늘상 명곡을 감상하거나 피아노를 치며 커피를 마시는 것으로 소일하고 있다. 어찌다가 거나하게 취한 상태로도 길거리 라디오방 스피커에서 명곡이 흘러나오면 끝까지 다 듣고야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친구들은 늘상 서울법대 음악과를 졸업한 사람이라고 그를 놀려도, 주변에 음악만 있으면 만사가 형통하는 사람이다. 그의 지역음악 증흥과 사랑은 평생을 관통하고 있다.

4. 1970년대 후반 1980년 초반

1970년대 후반과 1980년 초반에는 우리 지역에 음악 붐을 일으키기 위한 각종 초청 음악회가 개최된다.

포항 청년회의소 창립 15주년을 기념하는 대구시립교향악단 초청연주회가 1980년 10월 25일 포항시민회관에서 열렸으며(지휘 : 우종억), 1981년 5월 포항종합제철 주최로 효자음악당에서 대구시립교향악단의 초청연주회가 개최되었다. 1981년 11월 14일 포항청년회의소 주최 효성여자대학교(현 대구카톨릭대학교) 관현악단 초청연주회가 포항시민회관에서 열리고, 같은 해 서울신문 전국순회 가곡의 밤도 포항시민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가곡의 밤에는 바리톤 김경학, 정대규, 소프라노 박순복, 장국란, 알토 장승은, 테너 엄정행 등이 출연했다. 그 밖에 1980년대 초·중반에 이루어진 초청 음악회 일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포항경희대학교 동문회 주최,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대음악회
(지휘 김선주, 테너 엄정행, 메조소프라노 백남옥, 바이올린 최인철), 포항시민회관
- 포항합창단 주최, 신회원 초청 피아노 연주회, 1981년 6월 12일, 포항시민회관

- 포항YMCA 주최, 제3회 가을맞이 초청음악회
(테너 엄정행, 메조소프라노 김학남, 바리톤 최명용), 1982년 10월 21일, 포항시민회관
- 밝은사회 포항클럽 주최(테너 박인수 독창회 : 피아노 우정일), 1983년 9월 29일
- 영남오페라단 창단기념 초청공연(토스카꽃치니작곡 오페라 전3막), 1984년 6월 9일
- 포항YMCA 주최, JAPAN CHORAL SOCIETY 한국공연, 1984년 8월 18일
- 포항YMCA 주최, 제4회 가을맞이 초청 음악회
(테너 신영조, 소프라노 남덕우, 첼로 윤재린, 피아노 유혜란, 반주 조성미)
- 미완성기획실 주최,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Master choiale 초청 연주회,
1984년 12월 8일

이렇게 다양한 초청음악회로 음악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포항출신 또는 포항거주 음악인의 독창회, 연주회, 합창회 등이 개최됐다.

5.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 포항지부 결성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 포항지부가 1981년 5월 19일 인준됐으며 장차 포항음악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초대지부장 임승박은 초창기 음악협회의 기초를 다지는데 전력했으며 지역 음악인 결집에 힘을 썼다. 포항지역의 음악협회 인준은 해방 전부터 일어난 포항지역의 음악열기와 1960년대부터의 활동기, 성숙기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이 있었다. 포항지역의 다른 예술분야와 비교해도 협회인준이 다소 늦은 감을 주고 있다. 이 같이 다소 늦어진 것은 음악협회 결성보다는 음악연주나 합창 등 실지 예술행위에 더 비중을 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됐다.

포항음악협회가 인준됨으로 해서 1970년대 중반에 주춤거리고 있던 포항의 음악예술은 음협지부 회원들과 성가대에 의해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 중·고등학교 학생 합창경연대회가 봄을 이룬 것도 이즈음의 일이었다. 당시 전국 도 단위 학교대항 합창대회가 있었는데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중반을 거쳐 오면서 음악인 양성에 불을 당긴 행사였다. 이외에도 우리지역 해병사단에서 주최한 호국문예경연대회에도 학생들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무대가 되어 주었다.

이러한 합창경연대회는 학생들의 숨겨진 음악적 자질을 찾아주는 계기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음대로 진학하는 학생 수도 급격히 늘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려서 우리지역의 무한한 음악적 잠재력을 가늠해 주는데, 경상북도가 주최한 대회에서 흥해중학교가 최우수상을, 전국대회에서는 대

동중학교가 문교부장관상(1981)을, 지곡 어머니합창단이 우수상(1983)을 각각 수상, 우리지역의 음악 실력을 보여주었다.

이 같은 음악성이 이어지면서 1985년에는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기독교청년연합회를 중추로 한 합창단이 창단됐다. 새롬합창단이 그것인데, 꾸준한 정기연주회를 가지면서 각종 음악회에 출연과 대구대합창단, 계명대합창단 등과 외부협연을 가질 만큼 활발한 활동을 선보였다. 그 뒤를 이어 1989년에는 또 한 번의 같은 명칭인 포항합창단이 창단되고 역시 같은 해 새롬합창단과 포항합창단이 통합되어 포항합창단으로 거듭나면서 포항음악계는 합창단의 전성기를 맞는 듯하였다. 새롬과의 통합으로 더욱 몸집이 커진 포항합창단은 이후 대구 등지에서 활동 중이던 문학봉, 최윤희, 심미경, 김원준 등 유명 성악인들을 초청해 협연을 가지는 등 내실 있는 연주회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리고 이후 1990년대가 되면서 포항합창단은 포항시립합창단 창단에 중요한 모태 역할을 하게 된다. 그 외 어머니 합창단(지휘 인순자), 아가페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지휘 정대규) 등도 포항 합창계를 이끌었던 주요 단체들이었다.

한국음악협회 포항지부가 중심이 되어 가장 뚜렷한 활동을 펼친 것은 1985년 제1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였다. 포항시립실내합주단 창단공연을 가졌으며 학생음악 경연대회까지 개최하는 등 풍성한 음악잔치까지 펼쳤다. 그러나 포항시립실내합주단 창단은 그 뒤 예산 관계상 지방조례까지 두게 됐으나 정식 발족은 못보고 말았다. 대신 이를 기점으로 그동안 침체돼 있던 우리지역 기악부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순수 민간 차원의 포항교향악단(지휘 최능식)이 창단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시립교향악단의 창단을 보게 된다. 당시 지역 고등학교마다 기악합주단이 붐을 이뤘으며 지역 음악인들 사이에서도 ‘포항트리오’라는 이름의 현악중주단이 창단되었다. 포항시향 멤버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포항트리오는 각종 음악회에 참여하면서 실내악의 기초를 다진, 지역에서 몇 안 되는 현악중주단이다. 이 밖에도 기악 부분에서 관악 협주단으로는 포항심포니밴드(1996년 창단)가 있다.

1980년대를 거쳐 199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지역음악계에는 포항고전기타합주회, 신춘 음악회, 교사음악회, 영창음악회 등이 열렸으며 각 대학교 음악대학 동문회의 초청합창회 또는 연주회도 활발하게 개최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멕시코 국립합창단이 초청돼 지역사회에 국제적인 연주단체가 처음으로 선보임으로서 지역 음악계에 새로운 눈을 뜨게 해 주었다. 이렇듯 그동안 소규모로 이뤄졌던 음악 흐름이 넓은 범위로 확대되면서 지역 음악무대는 국제적으로도 활발한 교류를 가지게 된다.

예총 포항지부가 주관하여 자매도시인 일본 후쿠야마 시(市)와의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두 도시가 서로 방문해 연주회를 가졌다. 이러한 교류행사는 1993년, 1995년 두 차례나 상호 교환하여 이뤄졌다.

6. 포항시의 지원시대 열어

1990년대에 들면서 지역음악계의 또 다른 현상은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단체별로 이뤄지던 음악행사가 행정지원 단체로 이양되는 측면을 보였다. 그동안 포항시로부터는 외면당한 음악행사가 포항시와 의회의 이해로 조금씩 지원되는 시대를 맞았다. 이것은 지역 예술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했다.

1992년 제1회 포항음악제가 그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포항시의 형산문화제 일환으로 음악협회가 주관하는 무대였다.

당시로서는 성악, 기악, 작곡 등 일반 연주단체를 총 망라한 종합발표 형식으로 폐체제적인 음악회 형식을 갖춘 무대였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 후원 하에 지역예술을 활성화 시키는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순수민간단체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약한 지역예술단체의 입지를 약화시킨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것은 해가 거듭될수록 자체주관 행사보다는 지원금에만 의존하는 행사로 점점 바뀌게 되었다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는 행사 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마칩내는 거의 시립예술단의 행사에만 한정되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경북지역의 각 음악회가 모여 경북음악인회를 창설하고 그 첫회 사업으로 합창제, 기악제, 창작곡의 밤을 개최했다. 이를 시발점으로 오늘날에 경북합창제의 모습으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1990년대 중반으로 들면서 포항음악계는 초반기 관변 중심 행사들이 주류를 이루는 반면 창작무대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는 현상을 보였다. 일부 단체에 의해 외부 초청공연이 이뤄지기도 했으나 이러한 공연은 한번 왔다 가면 그 뿐, 지역 음악인이 마련하는 창작무대가 더욱 더 소중하게 느껴지게 되는 시기였다. 이런 가운데 열린 윤상빈, 이동행, 배명배 등 지역 음악가의 개인 독창회는 다소의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주었다.

1998년과 1999년은 IMF로 인해 관변행사마저 줄었으며 협회 차원의 공식적인 행사까지도 미흡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나마 일부 음악단체를 중심으로 정기공연이 이루어지고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포항금관5중주단과 포항청소년오케스트라가 창단된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대부분 활동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단체가 늘어났다. 이렇게 되니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시립합창단과 시립교향악단만이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

이 시기는 이 두 단체에 의해 포항 음악이 주도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 시기에도 지역 출신 유학파들이 귀국하여 독주회나 독창회를 통해서 자신을 알려오는 행사가 있어 다소 숨통이 트이는 듯도 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어두운 시기였다. 지역에서도 음대 출신 전공자들이 수십 명씩 양산되고 있으나 이들의 진로도 어려웠으며 개인단체 음악회의 활성화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체계적인 재정적 지원책이나 메세나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2000년대 들면서 포항음악협회는 그동안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면서 송수웅 지부장 시대에는 안정기에 들었다고 할 정도로 차폐차폐 정리되기 시작했다. 이어 김석훈 지부장 시대에 들면서는 새로운 도전의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되고 있다. 김석훈 지부장은 포항윈드오케스트라를 결성, 수준 높은 연주단으로 키웠으며, 포항관악제를 비롯해 포항합창제를 지금까지 존속시켜 포항음악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

또한 2007년에는 포항색소폰오케스트라를 창단, 맹연습으로 2009년부터는 수준 높은 연주를 보여주게 됐다. 2000년에 들면서 포항음악은 르네상스 시대를 열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새로운 일류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

• 한국음악협회 포항지부 회원현황

지 부 장 : 김석훈

부지부장 : 이항덕, 강맹기

사무국장 : 이승목

관악분과이사 : 권우석

현악분과이사 : 최원영

합창분과이사 : 허종호

행사분과이사 : 신영희

피아노분과이사 : 신혜령

감 사 : 이진철, 정은령

회 원 : 김정률, 장효예, 최선경, 최하얀, 권성원, 박정근, 김용수, 장현석, 이주석, 이설희, 배민경, 김보현, 하수민, 손현지, 김효인, 황인경, 이혜인, 윤 미, 최광훈, 공시은, 김지연, 이환희, 정현실, 박현진, 금혜성, 한수진, 문현지, 김대용, 이지민, 최혜영, 김혜성, 이지혜, 김수정, 황지혜, 홍경원, 김정석, 강세영, 공찬미, 박은송, 김경림, 권순우, 김정희, 신호진, 정유경, 이혜진, 한지은, 권현정, 주구슬, 이애립, 김난현, 손미주, 김은담, 최수미, 송수웅, 박윤정, 안영중, 박천영, 이슬예, 이창예, 차영현, 황현미, 김희정, 최채향, 홍옥분, 김태현, 양태승, 송성애, 류 정, 고미진, 오현경, 신항미, 편성준, 현우현, 한수연, 김보경, 김주자, 강은경, 박미향, 강은영, 김아람, 강지선, 김소라, 김민주, 최기상, 최건주, 이재명, 김영선, 김도영, 이기락, 김흥만, 서성교, 윤재덕, 서해진, 최영선, 조유미, 박성희, 원희정 /양현희

7. 음악연주 단체

현재 포항지역 음악계를 주도하고 있는 음악연주 단체는 소규모 아마추어 단체들을 모두 포함하면 수십여 개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 중에는 최근 재정적 어려움으로 활동이 중단되거나 지극히 미미한 수준의 활동을 펴고 있는 단체도 많다. 이 가운데 비교적 활동이 활발한 단체들을 중심으로 기록해 두고자 한다.

1) 포항윈드오케스트라

포항윈드오케스트라는 1996년 전문 관악기연주자들로 구성하여 지역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 발전, 음악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크게 노력해 오고 있다. 포항은 물론 타 도시에도 널리 알려진 연주 단체이다.

다양한 레퍼토리를 자랑하며 정기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축제음악회 등의 연주회를 무리 없이 소화해 내고 있으며 늘 모든 연령층의 관객이 함께 즐기며 호흡할 수 있는 연주회를 꿈꾸며 창단 이래 100여 회 연주회를 하였다.

특히 2006년 울릉도 초청연주는 울릉도 역사상 가장 많은 인파를 모이게 한 연주회로써 지방 언론의 많은 찬사를 받았으며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음악회는 각 지역문화 예술계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2006년 10주년 기념 음악회를 맞으면서 지휘를 맡은 김석훈은 40여 명의 정예화 된 단원을 구성하여 지금까지 민간 연주단체로서는 보기 드문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조 직

- 단 장 : 박화종 • 지 휘 자 : 김석훈 • 악 장 : 이승목
- 단 무 장 : 황승섭 • 기획홍보 : 오승용

• 주요연혁

- 1996. 7. 20 포항윈드오케스트라 결성
- 1996. 12. 14 제1회 포항윈드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 1997. 7. 20 제2회 포항윈드오케스트라 (백혈병 학생돕기)
- 1997. 12. 30 제3회 포항윈드오케스트라 연주회
- 1998. 12. 20 제4회 포항윈드오케스트라 연주회
- 1999. 10. 7 영일만 음악제 초청연주회

- 1999. 12. 11 송년 예술제 초청연주
- 2000. 11. 6 제5회 포항원드오케스트라 연주회
- 2001. 9. 29 제7회 경북음악제 참가
- 2001. 10. 18 포항원드와 함께하는 제4회 영일만 음악제
- 2001. 12. 21 포항관악제 연주
- 2002. 9. 14 청소년을 위한 관악 대축제
- 2002. 12. 21 포항관악제 연주
- 2003. 5. 17 청소년을 위한 관악 대축제
- 2003. 7. 16 전주예총 초청연주회(전주소리문화예술회관) 전주
- 2003. 8. 23 한·일 합동연주회(후쿠야마시티 밴드) 포항
- 2003. 10. 4 경주 엑스포 초청연주회(경주)
- 2003. 10. 12 영일만 음악제(환호공원)
- 2003. 11. 8 포항시 생활체육회 초청연주회(실내체육관)
- 2004. 10. 10 포항시민을 위한 가을 음악회(포항 해맞이공원)
- 2004. 10. 30 청송군 현서면민을 위한 가을 음악회(화목초등학교)
- 2004. 11. 5 영양군민을 위한 가을음악회(영양 문화체육센터)
- 2004. 11. 13 경주 나자레원 방문연주(경주나자레원)
- 2004. 11. 24 영덕군민을 위한 타악기 앙상블(영덕 군민회관)
- 2004. 12. 18 흥해읍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흥해중학교)
- 2005. 7. 22 광양시 초청 푸른음악회(광양시청앞 야외무대) 광양
- 2005. 8. 11 울진군민을 위한 한여름밤의 음악회(염전해수욕장특설무대) 울진
- 2005. 9. 3 장기면민 및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장기중학교)
- 2005. 10. 21 교정가을 그리고 음악(진보중고등학교 강당)
- 2005. 11. 20 늦가을 추억의 선율 속으로(장성성당)
- 2005. 12. 2 여고생을 위한 음악회(유성여고 강당)
- 2005. 12. 2 밝은 세상 따뜻한 손길(성모병원 마리아홀)
- 2005. 12. 16 포항관악제 연주
- 2006. 5. 19 청소년과해설과 함께하는 음악회(경주서라벌문화회관) 경주
- 2006. 6. 27 포항원드오케스트라 창단 10주년 기념음악회(효자아트홀)
- 2006. 7. 14 진보문화체육센터
- 2006. 8. 5 백암축제 초청연주회(울진)
- 2006. 8. 6 봉화은어축제 연주회
- 2006. 9. 17 제15회 전국무용제 야외무대 포항예술회관앞

- 2006. 9. 30 상주 상지여자고등학교(상주)
- 2006. 10. 27 포항 KBS홀 연주회
- 2006. 10. 28 울릉도 연주회(10.28~29) 울릉도
- 2007. 5. 1 효자아트홀(정기연주회)
- 2007. 7. 8 경주보문단지 야외무대(경주)
- 2007. 10. 7 경주엑스포 야외공연장 (16:30) 경주
- 2007. 10. 7 포항환호 해맞이공원 야외공연장(19:30) 포항
- 2007. 10. 27 울릉도 연주회(10.27~28) 울릉도
- 2007. 12. 11 포항관악제(효자아트홀)
- 2008. 10. 6 포항문화예술회관(19:30)
- 2008. 10. 11 포항 해맞이공원(16:00)
- 2008. 11. 7 포항KBS공개홀(19:00)
- 2008. 11. 14 울릉도 연주회(19:00) 울릉도
- 2008. 11. 18 청송 군민회관 연주회(15:00) 청송
- 2009. 5. 11 어린이, 아버지, 스승을 위한 우리들의 노래(19:30) 포항
- 2009. 5. 30 포항 해맞이공원 야외공연장(18:00) 포항
- 2009. 7. 25 2009 포항 국제 불꽃축제 초청연주회(20:00) 포항
- 2009. 9. 19 구미 새마을 박람회 초청연주(14:00~16:00) 구미
- 2009. 9. 20 구미 새마을 박람회 초청연주(15:00~16:00) 구미
- 2009. 10. 6 포항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19:30) 아트홀
- 2009. 10. 23 청송 중고등학교 찾아가는 음악회 연주(청송)
- 2009. 11. 24 포항윈드오케스트라 후원인을 위한 음악회(예술회관)

2) 포항소년소녀 합창단

1990년 10월에 정대규 지휘자에 의해 창단되어 19년째를 맞고 있는 포항소년소녀 합창단은 노래를 좋아하는 포항의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모여 매년 정기연주회와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에서 활동하고 있다. 포항 MBC 문화 대상을 수상할 수 있었으며 한민족 해맞이축전, 한국합창제, 일본·중국과 하와이에서의 교류연주회를 통해 포항을 널리 알리는 문화사절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포항시립합창단, 포항시립교향악단,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단, 경북합창제, 한국합창제, 한일하계 합창콘서트, 국제물리올림픽피아드 개막식, 포항국제불꽃축제, 울산어린이 합창단연주회, 청소년합창제, 전국어린이합창컨벤션 등에 출연하였다.

2006년에 제2대 이창예 지휘자를 거쳐 2008년에 제3대 류정 지휘자를 거치면서 포항소년소녀합창단은 전래동요, 뮤지컬음악, 영화음악, 전통합창음악 등 다양한 장르로 연주하였으며 2009년 7월 20일 제17회 정기연주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가을에는 포항시 오페라단의 카르멘, 대구 현대오케스트라와 포항의 전래동요 음악극 ‘월월이청청’, 한국합창제(여의도 KBS홀), 하늘마음양로원 위문공연과 봉사, 다문화가정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하게 활동, 봉사하고 있다. 또한 포항 리틀소년소녀합창단을 창단하여 초등학교 1-2학년들의 음악기초와 시창, 청음, 동요 등을 지도하고 있다. 포항 소년소녀합창단은 음악 영재를 양성하고 포항지역 예술과 문화수준을 높이는 데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 조 직

- 지휘자 : 류 정
- 트레이너 : 이유미
- 반 주 자 : 이선희
- 고 문 : 정대규(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 자문위원 : 박신화(안산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김인재(전주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박창근(포항 대동중학교장, 한국합창총연합회 부이사장)
- 기획팀장 : 박희경
- 행정팀장 : 김지희
- 자모회장 : 김경희
- 단원대표 : 흥혜리

• 주요연혁

- 1990. 10. 창단
- 1991. 6. 포항 YWCA소년소녀합창단 창단연주회
- 1992. 3. 포항 소년소녀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
- 1993. 11. 제16회 한국합창제 참가
- 1994. 7. 94여름 소년소녀 제주합창제 출연
- 1995. 5. 전국 시립소년소녀 합창제 출연
- 1996. 11. 정다운 우리가곡의 밤 출연
- 1997. 1. 대한소년소녀합창제 주최 하와이연주

- 1998. 3. 포항 시립 합창단 정기 연주회 출연
- 1999. 4. 해병대 창설 50주년 군악 연주회 출연
- 1999. 12. 포항MBC 문화대상 수상 및 TV 출연
- 2000. 5. 포항시립합창단 2000 합창음악의 밤 출연
- 2001. 2. 포철 교육 재단 설립 30주년 기념 관악 콘서트 출연
- 2002. 1. 한일교류 합동연주회
- 2003. 11. 울산 현대 리틀싱어즈 정기연주회 출연
- 2004. 7. 국제 물리올림피아드 개막식 행사 출연
- 2005. 1. 포항 MBC TV 해맞이 출연
- 2006. 6. POSCO 효자아트홀 주민 개관식 행사 출연
- 2007. 5. 경북매일신문 주최 경북 어린이백일장 및 사생대회 개막식 공연
- 2007. 11. 제30회 한국합창제 출연(고양시)
- 2008. 4. 포항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출연
- 2008. 11. 제16회 장애인 초청 정기연주회
- 2009. 1. 어린이합창 컨벤션캠프 및 연주 (대전, 1000여명 참가)
- 2009. 5. 포항 음악협회 주최 합창제 출연
- 2009. 9. 대구 현대오케스트라의 전래동요 창작극 ‘월월이청청’ 출연
- 2009. 9. 카르멘오페라 출연
- 2009. 10. 한국합창제 (여의도 KBS홀)

제5절 미술

포항의 현대미술사는 태동기(1950~1960), 개화기(1980~향토미술회, 청년작가회, 미목회), 현재(1990~구상회, 계명회 등)로 나눌 수 있다.

태동기인 1950년대에는 소규모의 그룹을 형성하여 활동하거나 개인적으로 미술 작업을 선보인 이들은 6.25 한국전쟁 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당시로서는 매우 전위적인 성향의 작업을 하며 지역 미술계를 형성하였다.

1950, 1960년대를 향토에서 보낸 작가로서는 배원복, 서창환, 김우조, 김건규, 권영호, 최종모를 들 수가 있다. 이들의 대부분이 지역의 중·고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후학을 지도하는 한편 작품에 있어서도 개성적인 작업을 선보였다.

이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다방 같은 협소한 공간을 이용하여 작품전을 개최하였으며 특히 서창환, 권영호, 이방웅은 의욕적인 개인전을 가지기도 했다.

1960년대의 속칭 ‘포항미술회’는 배원복을 위시한 지역미술인 10여 명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던 모임이었다. 정식으로 그룹화 되지는 못했으나 이를 축으로 여러 번의 발표회를 가지기도 하였다. 이들 작가들이 이 시기를 포항에서 보냄으로 하여 당시의 화단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정이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분위기도 잠시 이들 중 대부분의 작가들이 지역을 떠나버림으로써 향토 미술계와 더 이상 밀착되지 못한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모처럼 형성됐던 지역 미술계도 반쪽으로 줄어 단체다운 면모를 보이지 못하고 다시 지역미술이 휴면기를 보는 듯했다.

이같이 모두가 떠나버린 지역 미술계를 외로이 지킨 이가 바로 배원복이다. 배원복은 흥해 태생으로 서라벌예술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졸업 지역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후학 양성을 하는 한편 경주와 포항에서 여러 전시회에 참여하고 있었다. 한국미협 포항지부장과 경북지회 간사, 그리고 대동중학교의 교장을 역임하였으며 최근에도 전통적 표현기법을 현대화 하는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포항현대미술은 태동기를 벗어나면서 젊은 작가들의 개인전이 열리기 시작했다. 강문길(대동중 교사)이 1969년 개인전을 열었으며, 뒤이어 1973년 김두호(대동중 교사)의 개인전이 열렸다.

이 같은 자극으로 1979년 류영재가 대학생으로 개인전을 열어 지역 선배들에게 평가를 받았으며, 같은 해 최재영이 개인전을 열어 미술의 텃밭을 일구었다.

1970년대 이후 1980년대 초반까지 지역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표구화랑들의 극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표구화랑이란 작품 표구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도 겸하는 점포로서, 이들 업주는 당시 지역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서 발생하는 반사이익을 노려 지역민들의 미술에 대한 무지를 악용, 서울에서 활약하는 동양화가들을 불러들여 다방이나 여관방을 주 무대로 작품 매매를 일삼았다. 이들의 무제한적인 미술 상행위는 그 후 오랫동안 지역 미술계나 미술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독소가 됐다.

그러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활동한 작가가 김두호이다. 1974년 첫 개인전을 개최한 이후 1993년의 시민갤러리전까지 지역에서만 4회에 이르는 개인전을 열고 작가로서 미술교사로서 후학을 지도하며 1993년에는 미술협회 지부장을 역임하였다. 초기 목가적 서정성 높은 작업을 하던 김두호의 근작들은 풍경의 여러 요소를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비교적 담백한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한편 초기 포항 미술계를 잠깐 거쳐 간 사람으로 김홍이 있었다. 김홍은 화가요 기인으로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있다. 어려운 생활 속에서 몸부림치며 여러 차례 전시회를 열었던 불우한 화가의 한사람이었다.

김홍은 포항 흑장미 다방에서 작품 몇 점을 걸고 간이전시회를 가졌는데 이를 계기로 포항문인협회 손춘익과 박이득 등 몇 사람과 교류했고 술자리를 자주 하는 사이가 됐다. 그때까지만 해도 김홍의 정신상태는 괜찮은 편이었다. 그러나 그 뒤 그는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

1981년 설립된 중등미술연구회는 현재 미목회(美睦會)라는 이름으로 향토미술계 최장수 그룹으로 건재하고 있으며, 미술교사로 근무하는 회원을 두고 교사 교류(공립교사)로 항상 회원변동이 있음에도 지역에서 가장 큰 미술계로 꼽히고 있다.

이 그룹은 김기철, 신완식, 신정기, 최재영 등이 주도하며 이미 지역원로가 된 배원복이나 김두호도 꾸준히 참여하여 그 활동의 폭을 넓혀 왔다. 주로 소품위주 전시를 해오고 있으며 이들이 양성한 미술인구는 가히 내일의 포항미술을 짊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시기에 윤석균(경남 마산)이 우리지역에서 석마아카데미 미술학원을 운영하며 1981년(당시 포항문화원 3층)에서 개인전을 열어 그의 작품세계를 보여주었다.

강문길도 포항미술학원을 운영, 박수철은 갈피화실을 운영하면서 개인전을 열었으며, 1990년에 들면서 지중엽 개인전, 박용 수채화전, 최복룡 수채화전 등이 계속되면서 지역화단에 젊은 작가들의 왕성한 활동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또, 이 시기에 젊은 작가들로 구성된 포항향토미술회가 창립(1981년, 류영재 회장)되니 김갑수, 이창연이 바로 그들이며, 한편 이원창, 배현철이 1985년 제4회 미술대전

에 출품하여 특선에 입선한 바 있으며, 박용이나 하명수, 배현철 등은 ‘100+’라는 그룹을 결성하여, 당시로서는 지역에서 보기 드문 100호 이상의 대작 위주의 전시를 두 차례 가졌다.

인근 경주 출신인 조희수는 1994년 포항으로 이주해 와 20여 년간 지역에서 작품 활동을 하며 후진을 키워오고 있다. 그는 1987년 한국미협포항지부 결성에 앞장섰으며 경상북도 지회장과 한국미협 이사, 부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1987년 6월 15일 인준을 받고 출범한 한국미협포항지부(초대지부장 조희수)는 총 15명의 회원으로 단출하게 출발하였으나 점차 미술인구 증가에 따라 현재 정회원 70여 명의 큰 규모로 성장, 지역 미술계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해마다 대규모 정기회원전을 비롯하여 각종 초대 및 기획전에 회원을 추천, 참여케 하며 포항시가 주최하는 축제 때에는 미술인구의 저변확대와 청소년들에게 꿈과 이상을 심어줄 학생미술실기대회를 해마다 개최해 오고 있다.

미협 포항지부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을 즈음, 1988년 구상미술의 위상 재고와 높은 창작열에 의해 자연스럽게 발족한 포항구상회는 김두호, 명동수 등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고 있다.

구상회는 포항 구상미술의 현주소를 지키고 있는 그룹으로 과거 유사한 성격의 여러 그룹들이 잠시 모였다가 흩어진데 비하면 그룹의 성격이 뚜렷하게 출발한 만큼 그 존재 의의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1988년 결성된 또 하나의 모임이 포항청년작가회이다. 향토 출신의 젊은 신인들로 이루어진 이 그룹은 현재까지 정기전을 거르지 않고 열고 있으며 왕성한 창작 의욕을 보이고 있다.

1989년 선린전문대학 내에 신설된 상업디자인과(현 시각디자인과 학과장, 최인수)는 1991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후 미술인력 양성 측면에서 지역 미술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1980년대 후반의 특기할 사항은 비로소 이 시기에 젊은 작가군 가운데서 비구상 계열의 작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이 일련의 작가들은 비구상 작업이나 현대미술 계열의 작품을 발표하면서 매우 폭 넓은 조형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들의 활동은 90년대 들어와서는 지역 미술의 발전에 분명한 획을 긋는다.

1990년대 들어와서는 시민갤러리, 아슴터갤러리가 들어서면서 자못 의욕에 찬 전문 화랑으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듯했으나 이것마저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문을 닫고 말았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개관한 대백갤러리는 기업문화 차원의 공간으로 출발하면서 비교적 화랑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 ‘청전 이상범전’이라든지 ‘피카소 도예전’, ‘장두건 화백의 그림전시회’ 등을 유치하는가 하면 아울러 지역 미술계와도 긴밀한 관

계를 유지, 초대전과 기획전을 열어 향토미술 발전에 기여했으나 현재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문을 닫고 말았다.

1993년 문민정부를 표방하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업차원의 문화지원 방안으로 포함제철이 본사 사옥 내에 ‘문화갤러리’를 개관하였다. 초기에는 알찬 전시회가 기획되기도 했으나 갤러리와 지원인력이 분리되어 기획자가 서울로 옮기면서 현재는 자체적인 기획은 거의 없고 가끔 뜻있는 프리랜서의 기획에 협조하고 있는 실정이 안타깝게 여겨진다.

1995년 지역민과 지역예술문화인의 소망이던 포함문화예술회관이 개관하였다. 향토 미술인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개관기념전에 참여하였으나 전시장의 구조와 시설 등에 실망한 나머지 일부에서는 개관전을 회의시 하는 움직임마저 있었다.

그러나 지금 끝없던 큰 공간이 생겼다는 사실에 아쉬움을 달래고 참여하기로 의견을 정리. 많은 참여가 이뤄졌다.

이 같은 경험으로 보아 앞으로는 공연장이나 전시관을 건립할 때 지역 전문가와 예술가, 작가, 배우, 연출자 등에게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설계에서부터 참여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미술인들 사이에서 틈 날 때마다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다. 지금부터는 실수요자, 실 사용자의 감각과 경험이 충분히 받아들여져야 될 것이다.

한편 포함지역 서예가들의 활동영역이 넓어지기 시작한 것도 이즈음의 일이다. 미협 내 서예분과가 구성된 이래 박인호, 손성범, 정보인 등 몇몇 서예가들에 의해 활동영역이 한정되어지던 것에서 서예가 협회가 구성되는 등 서예가들의 입지가 점점 넓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손성범은 대한민국미술대전 등 각종 공모전에 입상을 하면서 대한민국서예대전, 경상북도서예대전 등에서 초대작가로서 입지를 굳혔다. 그는 미협이 구성될 당시부터 서예분과위원장을 맡아 1994년 일본 후쿠야마시와 교류전(예총 주관)을 가진 바 있으며, 1998년에는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개인전을 가지는 등 지역 서예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전개했다.

1990년대 들어 서실이 연이어 생겨나면서부터는 지역에서도 서예분야가 독자적인 예술영역으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는데 신진 서예가들의 대거 등장이 주목할 만하다.

이이수, 김정화, 김정완, 정경수, 최영란, 이형수 등이 경상북도서예대전 추천작가로 선정되는 등 각종 공모전에서 활발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지역 연구나 여건에 비해 우위에 서는 성과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미술계의 방향은 미협의 주도로 이루어진다. 의식 있는 젊은 작가의 대거 참여 후 미협은 명실상부한 지역 미술인의 구심체 역할을 하며 발전해 왔다.

초대 지부장 조희수 이후 2대 박인호, 3대 배원복, 4~5대 신정기, 6대 김두호, 7대 명동수, 8대 강문길, 9대 최인수에 이르기까지 9명의 지부장을 거쳤으며 특히 미협지부의 행정체계 확립에 힘썼던 신정기 지부장 재임기인 1992년 자매도시 일본 후쿠야마 미술관의 초대전에 회원들이 작품과 함께 지역 꿈나무들인 초·중등 학생의 작품도 전시하였다.

이 행사는 현지에서 매우 좋은 반응을 얻어 이웃 도시 시모카마가리 란토가쿠(蘭鳥閣)미술관에서도 순회 전시한 바 있으며, 또한 1995년 제76회 전국체전 기념행사로 대한민국 미술대전 순회전을 문화예술회관에서 대통령 부처와 각 부 요인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되기도 하였다.

1997년의 중요행사로는 ‘한·중 작가교류전’이 지역에서 개최되었으며 중국 ‘요령성 작가협회’에서 그들의 작품 30여점을 출품하면서 현지 작가 4인이 참석하여 뜻 깊은 교류행사를 가진 바 있다.

이와는 달리 매년 연말에 가지는 예총 주최의 송년예술제 미술합동전은 지역의 주민들과 아마추어 화가들의 참가를 유도하여 향토미술 축제와도 같은 분위기로 치러지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부 젊은 작가들에 의해 활발히 전개된 비구상 계열의 운동은 과거 우리나라 현대미술의 중심지였던 대구 경북의 맥과 같은 연결 축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제1·2회 ‘대구현대미술제’에 참여했던 김기식, 이하우 같은 청년작가들이 향토에 정착하여 1992년 그룹 ‘비(非)’를 결성하면서 ‘지역 현대미술가 9인의 체험적 시각 정신전, 개인의 언어, 단체의 논리전’과 같은 일련의 기획 의도가 담긴 회원전을 꾸준히 이어 와 오늘까지 10여회의 정기, 비정기전을 개최하였다.

현재 그룹 ‘비(非)’는 P.C.A.A.(포항현대미술화가회)라는 이름으로 재정비하여 보다 전향적인 모임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들에 의해 주도된 ‘인간, 환경을 위한 설치 작업전’이나 ‘인스털레이션(installation) 4원소전’과 같은 기획전시는 지역 현대미술의 표현 능력을 ‘설치작업’에 이르기까지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에 지역에서 이루어진 현대미술 계열의 주요전시회는 ‘지역현대미술 6인의 시각전’(1997년 포스코갤러리), ‘T.A.C. 포항전’(1998년 대백갤러리), ‘21C를 준비하는 작가들 전’(1999년 대백갤러리) 등을 들 수가 있다.

이보다 앞서 1994년 향토 출신 장두건의 개인전이 1986년의 ‘포항문예 공간전’에 이어 8년 만에 대백갤러리에서 다시 열렸다. 장두건은 이 지역 출신의 미술대학교수이자 중앙화단의 원로화가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구상 계열의 활동은 포항구상회를 위시해서 1996년 명동수, 김두호 등이 주도하는 포항미술작가회가 발족하면서 중국 ‘연변 조선족 화랑’ 기획전에 참가 했으며, 1997년에는 현상회가 창립되어 3회의 회원전을 가진 바 있다.

1990년대에는 지역 화단에 신인작가들이 대거 입성했다. 이들은 선배들, 앞 세대의 적극적인 활동에 자극받은 바가 크고, 아울러 미술대학에서 익힌 바람직한 작업태도가 귀향 후의 작업과 잘 연결되어 비교적 나아진 환경과 안정된 여건을 바탕으로 실험적 성향의 작업들을 시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2000년대 들면서 포항미술은 개화기요 전성기를 맞았다. 우리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미술관이 개관준비를 하고 있으며, 전국 공모전을 통해 포항미술의 격을 크게 높이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에 많은 미술인재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 인재 배출이 많아지고 또 유능한 작가들도 크게 늘어나게 됐다.

최근 들어 조각, 서예, 한국화에 이르기까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포항미술은 르네상스 시대를 열고 있다.

1. 지역의 주목할 만한 단체들

1) 일요 화가회

일요화가회는 포항에서 미술계라는 기반이 아직도 완전하게 조성되기도 전인 1979년 서양화와 한국화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EMt을 모아서 결성한 단체이다.

회원으로는 박수철, 김영진 등으로 1979년 12월 창립전을 시작으로 해서 정기 전람회를 개최, 지금까지 30여 회의 전람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2) 포항 묵화회

포항 묵화회도 1979년 한국화를 전공한 미술인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인데 지금까지 20여회의 회원전과 5회의 국제교류전을 가졌다.(회장 서철교, 지도 정대모)

일요화가회와 포항묵화회는 포항에서 미술의 기반이 채 조성되지 않고 있던 1970년의 어려운 시기에 포항미술의 빈 공간을 채워왔으며 지금까지도 꾸준히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작업을 쉬지 않고 있다.

1990년대 들면서 지역 미술계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실험성 짙은 비구상 혹은 현대미술 계열의 작품 발표회가 왕성해 졌다는 것이다.

● 한국미술협회 포항지부 회원현황

지 부 장 : 최 복 룡

부 지 부 장 : 김 왕 주, 강 희 룡, 박 정 열

서양화1분과위원장 : 박 경 원

공 예 분 과 위 원 장 : 김 민 근

서양화2분과위원장 : 김 익 선

평론학술분과위원장 : 이 상 택

서양화3분과위원장 : 목 진 국

전시기획분과위원장 : 김 정 완

한국화분과위원장 : 이 철 진

청소년분과위원장 : 이 종 길

서예 1분과위원장 : 김 귀 조

수채화분과위원장 : 박 성 민

서예 2분과위원장 : 김 태 현

여성분과위원장 : 박 경 속

문인화1분과위원장 : 김 복 수

감 사 : 박 종 범, 이 병 우

문인화2분과위원장 : 박 경 희

사 무 국 장 : 권 종 민

디자인분과위원장 : 김 속 희

사 무 차 장 : 강 성 태

조 소 분 과 위 원 장 : 이 동 섭

회 원 : 강대욱, 강문길, 강성태, 강희룡, 고봉민, 곽근호, 곽현순, 권영옥, 권정미, 권종민, 권태남, 김 선, 김갑수, 김경희, 김귀조, 김금례, 김기식, 김기영, 김기철, 김남두, 김대락, 김두호, 김두환, 김명화, 김미지, 김민근, 김복수, 김상미, 김석현, 김숙필, 김속희, 김승우, 김신호, 김엘리, 김영립, 김영수, 김영용, 김영자, 김영혜, 김옥련, 김왕주, 김유리, 김은숙, 김의숙, 김익선, 김점희, 김정금, 김정동, 김정숙, 김정완, 김정화, 김주리, 김직구, 김천애, 김태현, 김태훈, 김택수, 김향자, 김현식, 김현철, 남영주, 남현지, 두은영, 두희승, 류 선, 류영재, 류춘희, 명동수, 목진국, 박 원, 박경속, 박경원, 박경희, 박계현, 박근일, 박기훈, 박문희, 박상현, 박해강, 박성찬, 박수철, 박순덕, 박승태, 박은경, 박인호, 박정만, 박정숙, 박정열, 박정희, 박종범, 박차연, 박흥묵, 박회원, 박훈포, 박흥순, 배강자, 배선애, 배원복, 배종현, 배현철, 백수현, 백인태, 변수진, 서길수, 서동진, 서종숙, 서현경, 서현숙, 성인애, 손 속, 손성범, 손현서, 손흥락, 송명희, 송상헌, 신동학, 신백균, 신완식, 신정기, 심익대, 안상도, 양근익, 예진영, 오건용, 오남식, 오원석, 우형동, 원윤연, 윤은경, 윤필영, 이경순, 이나나, 이동건, 이동섭, 이만수, 이방웅, 이병우, 이상락, 이상민, 이상택, 이상택A, 이상형, 이선영, 이영철, 이용규, 이은광, 이정기, 이종길, 이종호, 이창연, 이철진, 이하우, 이해남, 이형수, 이화우, 장미화, 장이정, 장정일, 정경수, 정규원, 정낙훈, 정대모, 정원희, 정현석, 조영오, 조정석, 조정희, 조현옥, 지중엽, 진복규, 최마룩, 최병인, 최복룡, 최성희, 최수정, 최영란, 최인수, 최재영, 최정미, 최지훈, 최현숙, 추경옥, 한승협, 황경원, 백광자, 이상훈, 이성민, 맹하섭

제6절 사진

1. 사진협회 포항지부 결성

(사)포항사진작가협회는 1965년 9월 4일 인준되어 포항의 예술단체 중 가장 빠르게 협회가 정식으로 결성되었다. 정식 협회 결성 이전 미미한 개인적 활동을 보였으나 1938년에 대구일보 포항지사 기자로 부임한 박영달이 처음으로 지역에서 사진예술의 무한 가능성과 기록성의 길을 보였다.

이것이 바탕이 되어 1945년 아마추어 사진동우회인 포항사우회, 오광회 등이 결성 되니 여기서부터 예술성과 기록성을 갖춘 작품이 나오기 시작, 이 시기를 포항사진예술의 태동기라 하겠다. 이 시기에 박영달, 박원식, 김상용, 김덕수, 허치곤 등은 1960년 후반까지 포항사진영상 예술의 개화에 선구자 역할을 해주었다. 특히 박영달은 1980년 초반까지 포항사진 예술계를 대표하는 원로 사진작가로 후진들에게 사진예술의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도록 했다.

박영달은 1913년 대구에서 출생, 1938년 대구일보 포항지사 기자로 부임한 이래 1986년 6월 2일 타개할 때까지 포항을 고향으로 삼고 살았다. 포항에 살면서 문화운동가이며 화가이신 이명석과 문학가인 한흥구 등과 깊은 교분을 맺고 이들과 함께 포항의 문화예술 운동을 일으켜 준 지역의 어른들 중 한분이었다.

그는 1958년과 1963년 한일국제사진촬영 입선을 비롯해 1965년 국전 제1회 사진부, 1966년, 1967년 동아사진 콘테스트, 1973년 국제사진촬영 등 우수한 국내외 사진 공모전에서 입상했으며, 순간운동의 역동적인 선을 전혀 표현하지 못하고 대상을 부동화(不動化), 혹은 경직시키는 사진예술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조형예술의 본질론에 입각한 창조의 갖가지 법칙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창하는 등 사진예술의 이론가로서의 면모도 보여주었다. 이 시기에 또 김덕수가 동아 콘테스트에서 ‘장가가는 날’로 특선을 했으며, 허치곤이 ‘내릿 사이소’로 준 특선을 하는 등 포항 사진예술도 주목 받기 시작했다.

이 시기 이후 사진예술 활동이 다소 주춤해 지면서 명색만 유지하는 듯 했으며 앞서의 박영달, 김덕수, 허치곤 등에 필적할만한 작가도 작품도 나오지 않았다. 이 같은 침체기에 이도윤이 등장. 침체된 사진영상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다. 그는 지역에서는 드물게 국전에 입선하면서 그의 작품세계를 인정받았고, 그 후 ‘한사전’에서

두 차례나 더 입상경력을 쌓았으며 각종 공모전에 금상, 은상 등을 수상하며 전국 사진계에 이름을 올렸다.

2. 제1회 개항제, 모델촬영대회

1968년 포항에서 처음으로 문화제가 열렸으니 제1회 개항제가 그것이다. 제1회 개항제는 이명석이 주도했으며 오실광(초대상공회의소 회장), 김유(상회의원), 정명바우(상회의원)등 지역 상공인들이 크게 도왔다. 그런데 당시로서는 처음 보는 문화제요 예술제인데다 개항제 행사의 일환으로 미인대회를 겸한 모델 촬영대회가 열렸는데 포항에서 모두가 처음 있는 일이라 구경꾼이 구름처럼 모였었다고 한다.

당시 변화가 인근으로 포항시민의 최고 휴식처인 수도산에서 2차에 걸쳐 모두 50여명의 사진작가들이 치열한 촬영 경합을 벌였는데, 당시만 해도 촬영대회 자체가 생소했을 뿐만 아니라 변화가에서 뜻밖에 열리는 행사였으므로 매우 성공적일 수밖에 없었다. 카메라 등 장비가 열악했던 시절이었음에도 사진예술에 대한 관심을 드높인 의미 있는 행사라고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다.

3. 이도윤 최초로 개인전

1973년 지역에서는 최초로 본격 개인전을 열었다. 그 전까지 박영달, 김상용, 박원식 등이 개인전시를 했으나 본격적으로 하지 못하고 청포도 다방이나 자기 사진실에 10여 폭 미만의 작품을 걸어두고 지인들이 찾아오면 작품을 설명해 주는 수준에 그쳤었다. 이 시기에 이도윤이 최초로 본격 개인전을 열어 자신의 사진예술의 전부를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변변한 전시공간 하나 없던 때라 변화가에 있는 다방의 벽면을 빌린 조촐한 자리였으나 당시 수준으로 제법 형식과 틀을 갖춘 전시회였으며 전시장에 예술사진을 관람하는 관람객이 불벼 큰 바람을 일으킨 전시회라는 평가를 얻었다.

그 뒤 포항수산전문대학(현 포항대학)의 초점사진회와 간호전문대학(현 선린대학)의 시선사진회 등이 발족되었다. 이렇게 대학 사진동아리가 조직되면서 지역에서도 가끔씩 사진전시회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아마추어 수준을 넘지 않았지만 이들의 열정적인 활동은 포항지역 사진동아리 결성에 불을 당기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후 1978년 12월, 일반인들로 구성된 포영회가 발족되고, 동시에 김상용이 주도한 칠광회가 결성되면서 1970년에서 1980년까지 사진 동우회가 앞 다투어 생겨났다.

이들 동우회 대부분은 주로 사진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간혹 전문작가 반열에 오르는 실력을 가진 이들도 있었다. 이때부터 회원전, 씨클전 등의 이름으로 많은 전시회가 열리면서 지역 사진예술 분야도 큰 활기를 띠게 되었으며 1886년 8월에는 대백갤러리에서 한성학씨가 개인전을 열기도 하였다.

4. 박원식 지부장 시대

1989년 이 지역의 최고 원로사진작가의 한 사람이었던 박원식이 후배들의 추대를 받아 사진협회 포항 지부장을 맡았다. 박원식은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에게 자신의 실력을 평가 받을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전국사진 공모전을 기획해 신인작가 발굴에 나서기로 한다.

지역에서 1989년 처음으로 시작한 전국 공모전에 전국의 사진 동호인들 작품이 1000점씩 출품되고 그 중 100여 점이 시상됐지만, 정작 지역작가들의 참여도가 낮아 지역적으로는 큰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그러나 그뒤 전국사진공모전이 개최되는 전통을 쌓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지역에서 큰 공모전으로 이름을 얻고 있다.

이 같은 전국공모전과 함께 1982년부터 시작된 정기회원전은 그간 포항사진협회의 활동실적 중 가장 대표할만한 것이라 하겠다.

1988년 서울올림픽 성화맞이 형산문화제의 일환으로 한사전(대한민국 사진대전)을 포항으로 유치했으며, 1995년부터 서경도서관 아슴터갤러리, 시민갤러리 등의 소규모 전시공간을 벗어나 문화예술회관으로 옮겨 대규모의 전시를 개최해 오고 있어 한사전 규모에 맞는 전시회가 됐다.

1990년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사진협회 주관의 연례행사 이외에도 사진작가 자신들의 개인별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즉, 1990년에 들어서면서 지역작가들이 대한민국사진대전 등 각종 전국 공모전을 겨냥하는 경향이 점차적으로 늘어나 입상작가가 다수 배출되니 김훈, 조동진, 남국희, 강중현, 박영길, 박종하, 이귀현, 김상탁, 정동, 나애경, 김경순, 한복태, 손충모, 박영숙 등 일군의 작가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 뿐만 아니라 이도윤, 김재동, 조용진, 한성학, 최규환, 최영철, 박종화, 이문균, 최임수, 이정철 등은 경북사진대전(전 경북미술대전)에서 두각을 드러내면서 초대작가로 활동하게 되었고, 김훈은 추천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1990년 들어와서는 개인전을 열어 자기 작품을 평가받는 일이 많아졌다. 이 시기에

김훈, 최임수 등은 개인전을 통해 그동안의 작품세계를 정리하면서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 이 시기에는 작품의 경향도 많은 변화를 보였다.

즉, 1970년대까지 리얼리즘을 추구했다면, 1980년대에는 싸롱퐁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면서는 각종 사진장비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형식주의와 실험적 성격이 강한 작품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1990년대 중반으로 들면서 사진협회는 회원 간의 결속을 강화하는 한편 사진인들 간의 유대관계가 한결 돈독해졌다.

1996년 사진작가협회 포항지부장에 조용진이 선출됐다. 조용진은 포항합동사진촬영대회를 기획해 동호인간의 벽을 허물고 유대관계를 결속시키고자 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사진인들 사이에서도 호응이 커 매년 정기행사로 자리 잡게 됐다.

1998년에도 사진작가협회를 주축으로 전체 사진동호회사진촬영대회를 전남 보성에서 가졌으며 1999년 6월에는 삼척 두탄산에서 이끼와 폭포를 주제로 사진촬영대회를 가졌다. 한편 1998년 10월에는 포항예총의 주선으로 자매도시인 후쿠야마, 광양, 포항 3개 도시의 문화교류 차원의 사진전시회가 포항에서 개최됐다.

전시회가 끝난 후쿠야마 사진작가측은 전시작품 모두를 포항시에 기증했다. 이에 대한 답례로 1999년 3월에는 두 도시의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하는 예술전에 사협 포항지부 회원들의 전시회가 마련되기도 했다. 이때 사협포항지부 회원들의 전 전시작품을 후쿠야마시에 기증했다.

새로운 천년을 맞는 2000년대에 들면서 포항사협은 안전기에 들며 성숙기에 들었다 하겠다. 그리고 새천년의 사업구상, 작품구상에 진지한 정진의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진일보의 계기로 받아들이고 있어 각 작가들이 새로운 작품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2002년 안성환씨가 지부장에 부임하면서 포항사협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대과없이 임기를 마치기도 하였다.

5. 최영철 지부장 취임

최근 들어 디지털시대에 도래하여 사진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2008년 1월, 최영철 지부장이 포항사협 신임지부장으로 취임하여 포항관광전국사진공보전, 포항국제불빛축제사진공모전, 포항전국사진공모전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2009년 전국 최대 규모인 울릉도·독도 전국사진공모전을 유치하여 경북 제일의 도시의 저력을 과시하면서, 현재 광역시를 제외한 시 단위로서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명실 공히 사진예술문화 도시의 기반을 구축했다.

6. 포항사협 지부 및 사진 동우회

현재 포항지역에서 활동하는 사진인은 순수사진동호회 회원을 포함해 300여 명에 이르며 사진협회 포항지부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동우회는 모두 15개이다.

1) 한국사진작가협회 포항지부

각종 공모전에서 수상실적에 따른 점수 합산이 일정한 점수에 도달하면 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현재 기준으로는 50점을 획득해야 하며 등단 이후 4년의 활동경력을 쌓으면 정회원이 된다. 현재 93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 한국사진작가협회 포항지부 회원현황

지 부 장 : 최 영 철

부지부장 : 서종덕, 두병하

사무국장 : 박영길

사업간사 : 김응식

연구간사 : 박재환

홍보간사 : 남성우

섭외간사 : 양해운

기획간사 : 정규택

진행간사 : 조현호

전산간사 : 최흥태

협력간사 : 유영님

회 원 : 조용진, 김덕수, 안성환, 한성학, 김재동, 이치현, 최임수, 박종하, 강중현, 김 훈, 차재훈, 이문균, 주진욱, 김상탁, 이한구, 조병을, 강철성, 최맹종, 서용원, 권순종, 진석봉, 남국희, 김한식, 김외식, 김지미, 홍성철, 서태조, 황영구, 전만재, 나호권, 김덕수, 김병철, 신창목, 김상문, 곽동환, 박성진, 손중영, 안재현, 이옥규, 송영성, 신정원, 류효동, 이창우, 양보옥, 황종림, 김병철, 안석봉, 임대현, 박영길, 황해근, 허복현, 김승기, 김태화, 홍순복, 박영숙, 한국상, 문성국, 박수경, 최영숙, 원영만, 박원근, 최정현, 박성두, 신명준, 이옥표, 정상직, 조민자, 김충환, 윤해인, 최병우, 권문예, 김숙경, 양영예, 이주형, 정현숙, 최윤수, 황정희, 박재석, 김병국

• 주요활동

- 정기회원전 개최
- 전국사진작품 공모전 및 촬영대회
- 사진 강좌
- 송년 포항사진인 합동전

- 1988. 9. 3. 한국사진작가대전 유치전
- 1991. 7. 10. 제10회 한국사진작가대전 입상작 유치전
- 1998. 5. 5. 제1회 포항사진인 합동촬영대회
- 1998. 5. 5. 노인인물사진 찍어주기 봉사활동
- 1998. 10. 27. 자매결연도시 사진작품교류 전시회
- 1999. 10. 1. 국제우호도시 작품 교류전
(후쿠야마, 훈춘, 피츠버거, 광양, 포항)
- 2009. 5. 17. 회원 단합대회 및 촬영회
- 2009. 7. 25. 전국사진인대상 전국사진강좌 개최

그 외 각종 전국규모의 공모전과 사진전시회 등 다수

2) 영상동인회 경북지부

- 1982년 창립
- 정기회원전 개최(총 20회)
- 전국망을 가진 동우회로서 포항에서도 전국전시회를 가진 바 있다.
- 한국영상동인회(전국) : 본부 회장(김육만), 본부 부회장(김병철), 본부 감사(최영철)
본부 사무총장(조현호)을 포항지부에서 맡고 있다.
- 문성국, 이승권, 임대식, 박준호, 김영희 회원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 회원 정기 촬영회 : 매월 1회
- 회원 : 24명

3) 칠관사진 동우회

- 1978년 창립
- 정기 회원전(21회)
- 회원사진 촬영대회(8회)
- 순수사진 동우회로서 포영회와 더불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단체이다.

4) 철우 사진회(포범사진동우회로 개명)

- 1987년 창립
- 정기회원전 개최(21회)
- 포항제철(주) 사내 사진동우회로서 회원전 위주의 사진전시회를 열어오고 있다.
- 회원 : 10명

5) 포스코 사진동우회

- 1979년 창립
- 정기회원전 개최(13회)
- 촬영회(9회)
- 포항시 사진인 합동 작품전 참가(4회)
- 포항제철(주)사내 사진동우회로서 철우사진회와 그 성격을 같이 한다.

6) 포영회

- 1978년 창립
- 회원전 매년 개최
- 회원 사진도록 발간
- 지역 사진씨클 합동전시회
- 포항사진인 합동전시회 참가
- 회원합동 야외촬영 매년 2회
-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사진 동우회이다.
- 회원 : 15명

7) 포커스 사진동우회

- 1988년 창립
- 정기회원전 개최
- 매월 1회 이상 촬영대회 실시
- 포항 사진인전시회 참가
- 포항제철(주) 직원들로 구성된 사진동우회
- 회원 : 20명

8) 포토프리즘 동우회(일월사진동우회로 개명)

- 1990년 창립
- 1991년 해변누드촬영회(한국사진작품연구원 포항지부 주최)
- 1993년 해변누드촬영회(한국사진작품연구원 포항지부 주최)
- 창립 이후 전국사진공모전에서 입상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 몇몇 회원은 한국사진연합회(KPC뉴스)의 리포터로도 활약하고 있다.
- 회원 : 12명

9) 포항사진 연구회

- 1981년 창립
- 1983년 창립전
- 1998년 제4회 예천사진동우회 교류전
- 정기회원전(13회)

10) 포항 햇살회

- 1998년 창립
- 포항최초 여성 사진동우회
- 유영림 초대 회장을 주축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
- 회원 : 11명

11) 포항여성 사진회

- 2001년 창립
- 최영숙 회장, 이옥표 회원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
- 회원 : 12명

12) 포스회

- 2002년 창립
- 박원근, 이재오, 정만기, 최창호, 이정호 회원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음
- 회원 : 22명

13) VICO 회

- 2000년 창립
- 한동대평생교육원에서 결성되어 현재 회원 모두 열심히 창작활동을 하고 있음
- 회원 : 17명

14) 사진 빛고을

- 2004년 창립
- 위덕대 평생교육원에서 출발하여 매년 전시회를 갖고 있음
- 회원 : 13명

15) 기타 단체

포항DSLRL CLUB 외 사진작가협회를 포함하여 16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밖에 과기연 사진동우회, 석영회, 선린사진 동우회, 영심회, 형산사우회 등이 있었으나 현재 활동을 중지하고 있다.

제7절 연극

1. 포항 연극의 발전

3.1운동 이후 한국사회에 나타난 특징 중의 하나는 전국에 걸쳐 청년운동이 불같이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포항지역의 청년들도 80년 전인 1922년에 연극단을 조직하고 계몽운동에 나섰다.

포항 청년들의 이같은 연극 계몽운동은 서울지역 청년단체들의 연극 계몽운동과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다.

1922년에 발족한 포항의 영일·영덕유학생회는 그 해 8월 초순에 하계휴가를 이용하여 순회연극단을 조직하고 포항, 경주, 안강, 영덕, 장사 등을 순회하고자 처음으로 포항에 그 여장을 풀었다.

포항경찰서에 수속을 마치고 공연 장소인 포항 남빈동 성재수 댁에서 공연하는 도중에 청년 장교역으로 임한 허성도가 각본과 달리 흥분된 어조로 민족사상을 열변으로 고취시켰다고 일경이 트집을 잡는 통에 경찰의 간섭으로 일시 장내가 소란하였으나 전 5막을 끝마쳤다.

그 다음날 아침 포항 경찰서 고등계에 회장 허방을 호출한 고등계주임 소진 경부는 전날 밤 연극의 내용이 각본과 판이하고 심히 불온하다고 하면서 장시간 심문하고 요시찰 인물로 낙인찍는 동시에 3, 4명의 일경에게 강제로 수족을 잡혀 20일간 구류를 살았다.

이와 같은 기록은 포항 향토지인 《일월향지》에서 연극공연 년도가 1922년 8월이고 연극의 주인공인 연기자가 허성도라는 실명이 밝혀져 있으며 연극 중에 민족사상을 열변으로 고취하다가 일경에 연행, 구류 처분을 받았다는 상황과 연극이 5막극이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그것은 3.1운동 직후 청년들이 계몽운동으로 들고 나온 연극이 짧은 촌극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으며 당시의 연극 내용 고찰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당시 경찰에 구금되어 20일간의 구류 처분을 받은 포항의 영일·영덕유학생 회장 허방은 1889년 영일군 청하면 월포리에서 출생하여 대구 계성중학교 3학년 때 3.1운동에 참여했고 곧 경찰에 체포되어 퇴학 처분을 받았다. 그 이후 일본중앙대학 법대 전문부에 유학한 포항·영일지역의 선구적 지식인이었다. 그리고 지역의 계몽연극 운동의 멤버들이 단순한 청년들이 아니고 동경 유학생들과 국내 유학생들이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얼마나 민족정신이 투철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923년 6월 3일에는 김소량이 이끄는 극단 취성좌가 포항에 도착, 영일좌에서 공연을 하였고 이어서 6월 9일에는 경주 동리여관 가설극장에서 가정 정극을 하였으며 6월 13일 밤에는 경주 동도여관에서 공연하였다.)

당시 지역의 공연 장소는 가설무대나 단원들의 숙소로 정한 여관 마당이였다. 이와 같은 기성단체들의 연극과 함께 청년단체들의 소인극 운동은 전국적으로 번져 갔다.

1923년에는 대구에서 교남 학우회가 연극단을 조직하여 여름방학 동안 20일간 영남지역을 순회했는데 경주, 안동, 김천, 상주 등 20여 개 도시를 순회했다.

6.25전쟁 휴전 이후 포항지역 연극은 학생극부터 시작되었는데, 1956년 포항수고에서 권영호 학생이 중심이 되어 유치진 작 ‘별’을 가지고 포항, 구룡포, 감포, 강구, 영덕, 울진지역을 순회공연 했는데, 권영호는 졸업 후 서라벌 예술대학 연극영화과로 진학했다가 미술과로 전과, 졸업해 경남대학교 미술과 교수로 재직, 정년퇴임했다. 또한 포항여고에서도 1956~1957년 ‘영터리 악극단’ 등 장막극을 공연하는 등 휴전 이후 학생극이 다시 부활했다.

포항지역에서 본격적인 연극의 태동은 KBS 포항방송국에서 방송드라마를 제작, 방송하기 위해 극작가와 남녀 성우를 모집한 1963년 12월부터다.

KBS 포항 방송국은 당시 방송 드라마 작품 당선 작가로 신상률, 남녀 성우는 김삼일, 전영치, 공설자, 강신희, 김옥자 등 7명을 선발해서 주 1회씩 CP극장을 통해 방송 드라마를 내보냈다. CP는 KBS 포항방송국 호출부호로 성우들은 1주일 내내 연습해서 주 1회 30분 드라마를 내보냈으며 이때 연출은 부산에서 온 이동영과 포항의 신상률이었고 1년 후에 최동주도 합류했다. 당시의 이 남녀 성우 모집이 포항연극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세찬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영일만을 바라보면서 무대로 향한 정열을 불태우기로 하고 극단을 조직하자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이때 누군가 밤하늘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저 하늘의 은하수! 그래! 극단 이름을 은하로 하자!” 이렇게 해서 포항지역 최초의 극단인 은하극장이 탄생됐다. 이것이 포항연극의 시작이었다.

2. 극단 은하극장

여기 불모지에 꽃을 심으렵니다.

그 꽃이 시들어지고 또 짓밟혀 쓰러져도 그치지 않고 또다시 심으렵니다.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샘물을 찾아 우리는 발버둥 쳐

푸른 화원을 이 고장에 이룩해 보렵니다.

많은 성원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극단 은하극장이 1964년 12월에 창단을 하고 1965년 8월에 포항 시내 육거리에 있는 애린예식장에서 최동주 작, 백야 연출로 ‘태화 저항’이라는 창단공연을 했을 때 프로그램의 모시는 글이다. 너무나 순수하고 정성어린 영혼세계의 숨결소리다. 은하는 창단공연의 모시는 글과 같이 당시 문화 불모지인 포항에 꽃을 심기 위해 갖은 고통과 난관을 뚫고 정진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83년에는 극단 은하극장을 모체로 하여 전국 최초로 시립극단을 탄생시키는 등 포항연극을 뿌리내리는 데 산파역을 해냈다. 1966년에는 하유상 작, 김삼일 연출의 ‘어느 날의 환상’을 공연하는 등 그 해만도 5편의 연극을 공연했다. 연습실이 없어 바닷가 모래사장과 포항의 뒷산 같은 곳에서 연습을 했고 포항시립도서관에 단원들이 청소를 해 주는 조건으로 도서관 열람시간이 끝나는 밤 10시부터 열람실의 의자를 한 곳으로 밀쳐놓고 연습을 하였다. 당시 포항문화원과 시립도서관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는데 당시 문화원장 이명석은 이들 아마추어 연극인들을 무척이나 아꼈다. 그래서 김삼일을 1965년부터 명예직인 포항문화원 사무국장으로 임명해 주기도 하였다. 무보수 명예직이긴 하지만 김삼일이 사무국장에 임명되자 연극연습 공간확보는 한결 쉬웠다.

이명석 문화원장은 일본관서 미술학교 출신으로 포항 문화운동의 선봉장으로 포항에서는 인간 상록수로 존경받고 있었다. 이명석 원장은 진실을 첫째로 꼽고 김삼일을 비롯한 단원들에게 예술을 하려면 우선 정신영혼을 항상 같고 닦아 진실의 토대 위에서 이룩해야 된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역설하였다.

1965년 극단 은하극장의 창단공연에는 단 4명의 관객밖에 없었다. 포항 애린예식장에는 150개의 좌석이 있고 입석까지 합하면 2백명 정도 수용할 수 있었으나 연극 구경을 하러온 관객은 단 4명이었다. 1965년 당시는 인구가 6만 명도 채 안 되었고 문화 불모지란 오명 또한 안고 있던 포항이었지만 입장료는 없고 모두 초대손님이었는데도 예상보다 너무나 적은 관객이었다. 4명의 관객도 출연자의 가족이었고 일반 관객은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단 한명의 관객 앞서서라도 막은 울려야 되었다. 예식장을 공연 장소로 무료로 빌려준 이명석 포항문화원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명석 원장은

예식장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밤에는 애린고등공민학교로 사용하면서 야학을 하고 있었고 문화예술 발표장으로도 무료로 빌려주고 있었다. 이명석 원장은 공연 시작 전에 관객 4명에게 나가 열변을 토했다. 전례 없이 열정적으로 격려사를 하면서 문화 불모지인 포항을 문화예술의 도시로 가꾸어야 된다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단 4명의 관객에게 “연극을 보러온 여러분의 마음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하였다. 이명석 원장의 열변이 있고 난 후 공연이 시작되고 1시간 여 만에 막은 내렸다. 연출자나 연기자 모두 한 마디 말이 없었다. 이 공연 이후 연기자들은 모두 흩어졌다. 남은 사람은 김삼일과 정정화 단 2명이었고 신상률과 최동주는 고문격으로 계속 힘을 보태주었다. 그래서 2회 공연은 남자만 3명 나오는 하유상의 ‘어느 날의 환상’을 공연했는데 김삼일과 정정화가 남자 2명을 하고 한 사람의 남자는 연기자가 없어 녹음으로 남자 목소리를 내면서 하였다. 정열 하나만으로 무턱대고 연극을 만들어갔던 것이다. 2회 공연 때는 공연장인 애린예식장에 2백여 명이 모여들어 성황을 이루었다. 인사에 나선 이명석 문화원장의 목소리도 전에 없이 밝고 힘찼다. 이렇게 포항의 연극은 이명석 원장의 진실된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왔다. 문화운동의 기수로 1940년대부터 활동한 이명석 원장의 정신을 바탕으로 연극정신도 단순한 공연이 아닌 일종의 문화운동 차원의 정신으로 입하였다. 그것을 보면 포항연극은 처음부터 길을 제대로 찾아든 것이다. 신상률, 최동주의 문학으로 바탕이 된 순수한 연극정신도 제자 연극인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었다. 신상률은 고교 시절부터 효안문학동인회를 결성해 문화 불모지에 문학의 씨를 뿌렸고 최동주도 서정시를 발표하는 등 그들은 맑디맑은 영혼의 소유자였다.

단 2명의 단원만 남은 극단 은하극장은 재기의 몸부림을 쳤다. 김삼일과 정정화, 이들 두 명의 연기자는 포항문화원에서 매일 만나 다음 작품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고심하면서 문화원 서재에 있는 모든 책을 하나하나 점검했으나 희곡집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도 끈질기게 찾아가던 중 맨 끝 책장에서 유치진 작 ‘조국’이 실린 희곡집을 찾아내고는 단번에 읽어보고 곧바로 무대에 올리기로 했다. 김삼일과 정정화는 이제 연극 동지로 뭉쳐 1960년대 중반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던 지방연극, 그것도 문화 불모지인 항구에서 연극을 하겠다고 싸우게 된 것이다. 연극이 배고픔의 예술인 것을 알지만, 무슨 사명감 같은 것이 그들의 가슴 속에 내재해 있었다. 유치진 작 ‘조국’이 실린 희곡집에는 작가 유치진에 대한 약간의 소개가 있었는데 그가 당시 우리나라 최고의 연극 지도자라는 사실을 두 사람은 인식하게 되었다. 연습에 들어가 정도 역에는 정정화, 혁이 역에는 김삼일이 하고 연출도 김삼일이 맡기로 정했지만 일본순사와 장서방, 그리고 정도어머니 역을 구할 수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수소문해 경주공고를 졸업한 원종한을 일본순사 역을 시키고 정도어머니 역은 여자를 구할 수 없어 아버지로 바꾸어 경산에 있는 김삼일의 친구 이원종을 불러와서 시켰다. 그리고

장서방은 역시 경산에 있는 이원종의 6촌 동생 이은세가 맡았다. 처음에는 포항과 경산에서 각각 연습을 하다가 공연 10일 전에 포항에서 합류, 연습에 들어가 포항문화원 강당에서 1966년 6월 하순에 막을 올렸다. 공연은 대성공이었다. 여자 연기자를 구할 수 없어 어머니를 아버지로 바꿔 공연하였는데 할아버지가 자식을 데



● 별은 밤마다(차범석 작, 김삼일 연출, 극단 은하극장) 1966. 9.

리고 구차하게 살림을 살다보니 더욱 동정이 가고 슬프게 느껴져서 극적 효과는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더 컸다. 극단 은하극장은 이에 힘을 얻어 차범석 작 ‘별은 밤마다’를 공연하기로 했는데 이 작품은 2막극으로 정통 사실주의 작품이다. 이 작품도 문화원과 도서관의 서고를 뒤져 ‘갈매기’란 잡지에 실린 것을 찾아내어 연습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단막극을 했으나 포항 연극사상 최초로 2막극을 하게 되어 포항시민회관에서 막을 올리기로 하고 포항소방서 강당을 빌려 연습에 들어갔다. 이 ‘별은 밤마다’를 위해 여자 연기자 3명을 발탁했는데 김광자, 김성희, 김명옥이었다. 3개월 정도 연습을 하고 시민회관 무대에 올렸는데 대성공이었다. 연출을 맡은 김삼일과 주인공 역을 맡은 정정화의 눈에는 이슬이 맺혔다. 7백석 객석을 모두 메우고 입석까지 천여 명이 모여든 ‘별은 밤마다’는 극단 은하극장이 통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또 이때 한국연극협회 포항지부도 인준되었다. 협회 인준으로 인해 행정당국과 서로 협력, 협조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별은 밤마다’를 포항에서 공연했다는 것을 작가 차범석이 나중에 알고 ‘산불’의 전편에 속하는 작품이라고 연출자 김삼일에게 말한 바 있다

극단 은하극장 단원들은 계속 포항문화원과 시립도서관에서 살았다. 그곳에는 연습장이 있고 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어서 극단 은하극장은 1966년 12월 유진 오닐의 단막극 ‘고래’를 포항문화원 강당에서 올려 대 호평을 받는다. 이 작품은 김삼일 연출에 선장 역 정정화, 부인 역 허연도가 맡았다.

포항의 유일한 극단인 은하극장은 1970년대 접어들면서 대표 김삼일의 과로로 입원하는 등 난관에 봉착하던 중에 중앙과의 교류도 끊기고 연극 협회 지부 인준도 취소되고 말았다. 그래서 부득이 1975년부터 1978년까지 정기공연을 중단하게 된다.

그러던 중 1979년 극단 산울림에서 조연출 등 스태프로 있던 김천중이 포항제철 사원으로 포항에 오면서 김삼일, 김천중, 최희만이 모여 극단 은하극장의 재기공연으로 올린다.

르나르 작 ‘홍당무’를 김천중 연출로 1979년 5월에 포항시민회관에 올려 관객 2천여 명을 확보하는 등 대성공을 거두었다. 김천중은 극단 산울림의 임영웅에게서 조연출로 연출력을 다졌기 때문에 공연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 그 여세를 몰아 김천중 연출로 뮤지컬 ‘철부지’를 공연해 또 성공시켰다. 이 공연에는 김삼일이 주인공 엘갈로 역을 맡았다.

1979년 12월 13일자로 연극협회 포항지부 인준도 다시 받았다. (지부장 김삼일) 1980년에는 유진 오닐 작, 김삼일 연출 ‘밤으로의 긴 여로’를 정옥희, 최희만, 백진기, 신계호가 출연해 막을 올렸다. 정옥희는 이때 어머니 역으로 연기력을 인정받았으며 1983년 6월 부산에서 열린 제1회 전국연극제에 극단 은하극장 단원으로 참가해 이반 작 ‘바다로 나가는 사람’에서 노파 역으로 연기상을 수상하게 된다. 1981년에는 차범석 작 ‘왕교수의 직업’을 포함해 모두 네 작품을 공연하여 극단 은하극장은 그들 자신의 힘으로 중흥기를 창출하였다.

단원 상호간의 인화단결과 연극에 대한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매월 1회의 정기 모임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YMCA회관이나 시민회관에서 워크숍을 하면서 수준 향상에 매진하였다. 1982년에는 연출가 임영웅, 정진수, 김도훈 등을 초청해 연기술, 연출론, 한국연극의 현실과 지방연극의 육성책 등을 주제로 전국 연극인 워크숍을 주관했다. 이때까지 포항연극은 극단 은하극장의 활동이 곧 포항연극의 활동이었다. 포항시의 연극사는 극단 은하극장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극단 은하극장의 활동상과 그에 관련된 인물을 살펴보는 것이 저절로 포항시의 연극사를 형성해 버린다.

1981년 극단 은하극장은 서울신문사가 제정한 제1회 향토문화상을 수상하게 된다. 이때 수상자는 대전의 국악인 임윤수가 대상을, 전남대학 지춘상 교수와 극단 은하극장 대표 김삼일이 장려상을 받았다. 당시 서울신문은 극단 은하극장을 칭하여 “문화 불모지에 꽃피운 연극예술…… 정열만을 지주 삼아 17년, 관객 4명이 4천 명으로”라고 하였으며 당시 서울 신문은 문화면 톱기사를 통해 온갖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수상을 계기로 행정당국의 시각도 많이 달라졌고 관심도 가지기 시작했다.

1983년에는 전국연극제가 창설되어 부산에서 개최된 대회에 극단 은하극장이 경북 대표로 참가하였고 대구는 연합팀을 구성, 참가하게 된다.

포항극단 은하극장은 이반 작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을 가지고 출전해 정옥희가 여자연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안게 된다.

이것을 계기로 신상률과 김삼일은 포항시장을 만나 포항시립극단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그 결과 정충검 포항시장은 조례를 제정하고 발족시키겠으나 예산문제가 있으므로 비상임체제로 발족하겠다고 약속하였고 5월 초 정식 발족하게 된다.

3. 포항시립극단

1983년 5월 초 포항에 포항시립극단이 생겼다. 한국 연극협회 포항지부장 신상률을 단장으로 하고 극단 은하극장 대표 김삼일을 연출자로 민간 자율단체로 발족한다. “포항시립 극단 출범은 극단 은하극장의 19년 노력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은하극장의 대표로서 포항연극계를 주도했고 시립극단의 연출자를 맡게 된 김삼일은 말한다. “유진 오닐의 프로빈스타운 부딪가의 창고극장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강풍과 모래뿐인 이 고장에 연극의 꽃을 피워보자고 결심했습니다.” 이날 일간스포츠 기사는 구희서 기자가 직접 서울에서 김삼일을 만나 대담 형식으로 취재해 당시 문화면 톱기사로 취급했다.

4. 전국연극제

1985년에는 차범석 작, 김삼일 연출 ‘대지의 딸’을 가지고 극단 은하극장은 청주에서 열린 전국연극제에 경북대표로 나가 영예의 대통령상과 함께 이휘향이 여자연기상을 수상하는 또 한 번의 영광을 안았다. 이때의 수상은 다른 대도시 연극인들에게 부러움을 샀다. 대도시도 아닌 문화 불모지 포항의 이름 없는 극단이 수상을 하고 보니 대도시 극단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공연장도 전문 연극인도, 훈련된 관중도 없는 불모지에서 가냘픈 연극의 꽃이 피어나는 조짐을 보여준 것이다. 이는 사막에서 피어나는 선인장 꽃과 같은 것이었다.

세 번째로 실시된 전국연극제에서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다. 문화와는 거리가 먼 철의 항구도시 포항의 조그마한 아마추어 극단 은하극장이 영예의 대통령상을 받은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김삼일은 포항에서 혼신의 노력으로 중앙수준의 연극을 창조한 기적의 연출가로서 지방 연극인의 예범을 보여주었다. 극단 은하극장이 성장하면서 유능한 연극자가 속속 배출되기 시작하였다. 최희만, 장동수, 신계호, 백진기, 이협수, 이휘향, 정옥희, 서병익, 김종길, 장광수, 서영철, 조종원, 이용희, 이원욱, 남정욱, 김영미, 황영란, 최명석 등이다.

1989년에는 제7회 전국연극제가 5월 21일부터 6월 5일까지 포항시민회관에서 있었다. 대회를 앞두고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700석 규모의 포항시민회관을 말끔히 단장했다. 조명과 음향시설도 보강했다.

전국 각 시·도 대표팀이 참가한 가운데 막을 올린 제7회 연극제는 극단 은하극장의 차범석 작, 김삼일 연출의 ‘산불’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심사위원장에는 유민영, 심사위원에는 노경식, 김동훈, 한영광 등이었다.

전국 연극제 수상 현황

회	공연 연도	공연단체	작가	공 연 명	연출	수 상 내 역
제1회	1983년	극단 은하(포항)	이반	바다로 가는 사람들	김삼일	연기상(문예진흥원장상) - 정옥희
제3회	1985년	극단 은하(포항)	차범석	대지의 딸	김삼일	최우수상(대통령상) 연기상(연극협회이사장상) - 이휘향
제4회	1986년	에밀레극단(경주)	김동리	무녀도	이수일	장려상(대구직할시장상) 연기상(연극협회이사장상) - 이애자
제7회	1989년	극단 은하(포항)	차범석	산 불	김삼일	우수상(문공부장관상) 연출상(문예진흥원장상) - 김삼일 연기상(연극협회이사장상) - 황영란
제8회	1990년	에밀레극단(경주)	허규	바다와 아침등불	이수일	미술상(문예진흥원장상) - 김경수
제9회	1991년	극단 은하(포항)	정복조	독 배	백진기	장려상(경남은행장상)
제10회	1992년	에밀레극단(경주)	노경식	춤추는 꿀벌	이수일	연기상(연극협회이사장상) - 이애자
제12회	1994년	극단 은하(포항)	차범석	청계마을의 우화	백진기	우수상(문화부장관상) 연출상(문예진흥원장상) - 백진기 연기상(연극협회이사장상) - 황상해
제15회	1997년	에밀레극단(경주)	이강백	봄 날	이수일	우수상(문화체육부장관상) 연기상(연극협회이사장상) - 정구익
제18회	2000년	극단 은하(포항)	김태수	언덕에 서면 보름달이 보인다	백진기	연기상(연극협회이사장상) - 하지희
제20회	2002년	에밀레극단 (경주)	김동기	아 비	이금수	우수상(문화체육부장관상) 연기상(연극협회이사장상) - 이애자
제21회	2003년	극단 은하(포항)	이윤택	불의 가면	백진기	은상(공주시장상)
제22회	2004년	구미레파토리 (구미)	김태수	옥수동에 서면 압구정동이 보인다	황윤동	은상(한국예총대구광역시지회장상) 무대예술상(대구공업대학장상) - 최정주

6월 4일 전북 대표극단 황토의 박조열 작, 박병도 연출의 ‘오장군의 발톱’이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경북대표 포항극단 은하극장의 차범석 작, 김삼일 연출의 ‘산불’은 연출상과 문공부장관상, 그리고 황영란이 여자 개인연기상을 수상하는 등 3관왕을 차지했다.

포항에서 개최된 전국연극제는 포항연극 인구의 저변확대를 꾀하고 행정관서와 지역유지, 식자층과 시민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14일 동안 학생만 4천 명이 관람하는 등 학생들에게 연극의 실체를 보여주는 교육적 효과가 있었다.

당시 공연장소인 포항시민회관의 매각설이 떠돌았으나 전국연극제 개최를 계기로 매각설은 쑥 들어가 버렸다.

제7회 전국연극제에서 연출상을 수상한 차범석 작 ‘산불’을 두고 평론가들은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극단 은하극장 김삼일 연출의 ‘산불’은 대조와 통일성의 무대 미학을 살려낸 수작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방안 내부에서의 대화 구도, 대밭에서의 은밀한 밀회 구도, 이를 위해 반투명 망사천, 적절한 내부 공간 확장, 양면적 기능을 갖춘 무대 구조물의 활용 처방이 모색되면서 공연 연출의 중후한 품격을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5. 연극 전문 소극장 늘푸른 공간

1988년에는 포항에 연극 전문소극장 늘푸른 공간이 탄생되었다. 늘푸른 공간은 소극장이면서 극단 명칭도 함께 사용했다.

포철사원이면서 극단 예매회원이었던 서형욱, 이진희, 이한엽 등 13명이 주축이 되어 포항시 죽도동 골목길 안에 있는 창고를 세내어 그 안에 소극장을 만든 것이다. 포항지역에 연극문화를 뿌리내리고 문화 불모지라는 불명예를 떨쳐버리기 위해 단원들이 적지 않은 정열을 쏟아 백여 석이 넘는 연극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단원 전원이 1인당 50만원에서 2백만 원까지 공간조성을 위한 기금을 기꺼이 내어 연극 하나만을 위해 단원 모두가 직접 벽돌을 쌓아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소극장을 빌릴 장소가 여의치 않아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마련코자 뜻을 모았던 것이 이처럼 훌륭한 극장이 마련될 줄은 전혀 예기지 않았던 일이라고 서형욱 단장은 밝혔다.

그해 10월에 박낙원 작·연출 ‘장뿔뱅이’를 개관기념으로 공연한 이래 실험성 짙은 작품에서부터 뮤지컬과 아동극에 이르기까지 대중 지향적인 작품 위주로 매년 3~4회씩 정기공연을 가졌다.

늘푸른공간은 그 후 명칭이 극단 가인으로 바뀌는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열린 숲’, ‘꿈 먹고 물마시고’, ‘울보’, ‘위기의 여자’, ‘임금 알’, ‘아일랜드’, ‘신의 아그네스’, ‘엘렉트라’, ‘안내봐? 못내봐?’, ‘어머니’, ‘이혼 파티’, ‘셀부르의 우산’ 등 지금까지 30여 회의 공연기록을 가지고 있다.

6. 1990년대 이후 극단 은하극장

극단 은하극장은 1990년에 백진기 연출 ‘노비 문서’, 이협수 연출의 ‘배비장전’을 공연했고 1991년에는 백진기 연출의 ‘독배’가 전국연극제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으며, 1992년에는 극단 은하극장 부설 청소년연극회가 창단되었다.

이 밖에 1993년 ‘바다의 뿌리’ 공연에 이어 차범석 작, 백진기 연출 ‘청계 마을의 우화’가 전국연극제에서 우수상과 연출상, 그리고 연기상(황상해)을 수상했다. 이 밖에 ‘느낌 극락 같은’ 등 창단 후부터 지금까지 70여 회의 공연 기록을 갖고 있다. 특히

2001년에는 일본야쿠모 국제 연극제에 이현화 작, 백진기 연출의 ‘산씻김’이 출전해 대상과 여자연기상(하지희)을 수상했다.

7. 기타 극단

이 밖에 포항시내 일선고교 교사들로 구성된 극단 형영이 1992년에 최송림 작, 강순원 연출 ‘돈으로’ 창단공연을 한 이래 1993년 ‘마술가게’, 1994년 ‘한씨 연대기’, ‘그 여자 사람잡네’, ‘숨은 신’, ‘너도 먹고 물러나라’, ‘토끼와 포수’, ‘가위 바위 보’, ‘장사의 꿈’, ‘실내극’, ‘단 하나의 성한 구멍’, ‘아리랑’ 등 35회의 공연기록을 보이고 있다. 연출은 주로 강순원, 최운철, 이영률이 맡고 있다.

또한 지난 1993년에는 양귀자 작, 진용진 연출 ‘나는 소망한다’로 창단한 극단 난장이 ‘불 줌 꺼주세요’, ‘북어 대가리’, ‘서툰 사람들’, ‘늙은 도둑 이야기’, ‘비연소’, ‘용띠 위에 개띠’, ‘아카시아 꽃잎은 바람에 날리고’ 등 14회의 공연 기록을 세우고 있다.

8. 1990년대 이후 포항시립극단

관립극단인 포항시립극단은 1990년대까지는 극단 은하극장과 합동으로 공연을 해 오다가 1991년부터 완전 분리돼 공연을 해오고 있다. 1991년에 손튼 와일더 작, 신계호 연출 ‘우리 읍내’, 1992년에 이협수 연출 ‘칠수와 만수’, 1993년에 이원욱 연출의 ‘모닥불 아침이슬’, 류충렬 연출 ‘등신과 머저리’, 1994년 백진기 연출의 ‘배비장전’, 1995년 이협수 연출의 ‘어물전의 새벽’, 1998년 이운택 작, 이협수 연출의 ‘어머니’, 1999년에는 엄인희 작, 김삼일 연출 ‘작은 할머니’, 김상렬 작, 김삼일 연출 ‘번지 없는 주말’, 2000년에는 해밀튼 작, 김삼일 연출 ‘가스등’, 차범석 작, 김삼일 연출 ‘가 거라 삼팔선’, 이진수 번역, 김삼일 연출 ‘크리스토퍼 빈의 죽음’ 등 3편을 공연한데 이어 2001년에는 테네시 윌리엄스 작, 김삼일 연출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차범석 작, 김삼일 연출 ‘열대어’, 테네시 윌리엄스 작, 김삼일 연출 ‘뜨거운 양철지붕 위의 고양이’ 등 3편의 명작을 공연했다. 2002년에는 차범석 작, 김삼일 연출 ‘그 여자의 작은 행복론’, 오영진 작, 김삼일 연출 ‘시집가는 날’을 공연했다. 또 포항연극협회의 송년연극제로 설해순 작, 김삼일 연출 ‘비단구두 사 오셨네’를 공연하는 등 지금까지 100회 이상의 공연 기록을 세우고 있다.

2005년에는 김철문을 대표로 하여 극단 over21이 창단되어 ‘경숙이, 경숙이 아버지’를 공연하는 등 이협수 연출로 왕성한 활동을 펴고 있어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된다.

9. 포항 바다국제연극제

2000년부터 백진기는 포항 바다국제연극제를 창설하여 2008년까지 제8회째 개최하고 있어 포항연극 중흥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포항지부장은 1대 김삼일, 2대 신상률, 3대 최원학, 4대 이한엽으로 이어져 오고, 2009년 3월부터 현재 부지부장 이협수가 직무대행으로 2009년 12월 말까지 지부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8절 문 학

1. 해방공간과 청포도 다방시절

우리지역은 일제강점기 말기 8.15 해방, 군정 건국초기, 6.25한국전쟁. 이 시기에 많은 지식인들이 있었다. 이 중 문화계 예술계 인사로는 이명석, 김대청, 박영달, 한흑구 등이 선두적인 역할을 해주었다.

이들은 해방공간에서 잠시 포항의 역사, 정체성, 문화와 예술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6.25한국전쟁은 포항을 초토화 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정지되는 패닉 현상을 만들었다. 자연히 전쟁 복구의 기간이 길어졌다. 전쟁복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자 1960년대 중반 이명석, 박영달, 한흑구, 김대청 등이 다시 청포도 다방(우체국 옆)에 모여 포항의 정체성, 문화와 예술을 얘기했으며 문학, 연극, 사진, 연예예술을 비롯한 장르별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했으며 문화예술의 육성책까지 얘기하기 시작했다. 이에 문화, 예술 쪽에 관심을 가진 젊은 무리들이 이들 네분 스승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들이 바로 김기윤, 신상률, 서상은, 손춘익, 김삼일, 박이득 등이었다.

이들은 주로 네 분 스승들의 얘기를 경청했으며 스스로 따랐다. 당시 이명석은 앞으로 문화원을 세울 것과 예총 포항지부를 결성할 것. 도서관을 빨리 세워야 한다는 등 구체적 지적과 지시를 해주는 한편 우선, 문화와 예술 쪽의 전문인력과 관심인물을 찾아 행동 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 활동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시기 문화예술계 쪽으로 관심 있는 인물들이 대거 청포도다방(지금의 우체국 옆)으로 모였다고 해서,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시기를 청포도 문화살롱시대라고 했다.

2. 한흑구 포항으로 이주

1948년 흑구 한세광이 포항으로 이주, 지역문인 지망생들과 예술 지망생들이 선생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흑구는 1909년 평양에서 나고 평양 승덕보통학교를 졸업, 평양승인상업을 거쳐 보성전문에 입학, 다음해인 1929년 미국 시카고시 노스파크 칼리지에 입학하여 시, 수필, 소설, 평론을 각 지상에 발표하는 한편 영미문학과 흑인문학을 한국에 소개하기 시작했다.

흑구는 독립운동으로 미국에 망명중인 아버지 한승곤 목사를 찾아 본인도 망명성 유학을 하게 됐으며 이 시기 갖은 고초를 겪으며 고향생활을 하면서도 왕성한 창작의 욕을 보였다.

그러던 중 1934년 모친 박승복 여사의 숙환으로 급거 귀국, 일경의 감시로 다시는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1939년 끝내는 흥사단 사건으로 왜경에 잡혀 1년간 옥고를 치르게 된다.

그러나 이때도 한흑구는 왕성한 작품 활동으로 각 일간지와 문예지 등에 광범위하게 작품을 발표했다. 그 뒤 광복과 함께 미군정청에 서울시장 통역관으로 또 보좌역까지 맡게 되는 등 승승장구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해방공간의 좌우익 대립, 요직에 앉고 보니 이권에 따른 뇌물공세, 거절하면 협박과 공갈, 심지어 폭력까지 난무하는 무법천지의 세상이 되고 보니 흑구의 성품에는 도저히 맞지 않았다. 이에 미군 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 낸 책이 번역시집 ‘현대미국시선’이었다.

얼마 후 정부가 수립되자 관료들은 다시 흑구를 필요로 했다. 초대 공보처장 자리였다. 그러나 그는 장관 반열의 그 자리마저 미련 없이 외면했다. 자유롭기를 희망하는 흑구에게는 그 높은 자리마저도 자유와는 바꿀 수 없었다.

포항에 온 이후에는 주로 수필만 썼다. 포항에 온 후 얼마 되지 않아 포항대학(당시 포항수산초급대학)에서 영어 교수로 부임했다.

당시 영·미 수필론은 명강의로 소문이 났으며 외부인사들도 강의를 들으러 학교로 몰려오기도 했을 정도였다.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칠 뿐 다른 일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언제나 혼자 송도해수욕장, 송림 등지로 산책할 뿐 정말 말이 없는 은둔자였다.

그러나 후학들에게는 문단의 거목이,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는 선생이, 서구사상에 젖은 이가, 일제에 조금도 굽히지 않은 지조 높은 선비가 우리들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흥분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이 한흑구의 영향력이라 하겠다.

3. 문학단체

1) 포항문인협회

이명석, 박영달이 주축이 되어 미래 정식으로 포항문인협회가 될 것을 꿈꾸며 1951년 발족했으나 얼마 가지 못했다.

2) 효안동인

1953년 학생문학서클로 신상률, 석병호, 정화식, 최일곡, 문장필, 김병수, 이무율, 김정예 등과 3인의 여학생이 있었으며, ‘종’이라는 동인지를 발간했다. 시화전, 시 낭송회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이들은 성인이 된 뒤에도 계속해서 동인 활동을 했으나 1962년 이후 활동이 미약했으며 끝내는 동인활동은 중단됐다.

3) 청패동인

1955년 서상원을 중심으로 동지중·고학생 몇 사람이 참여했으나 1960년 활동이 중지됐다.

4) 청포도동인회

1966년 손춘익이 조선일보, 대구매일신문 신춘문예에 동화가 나란히 당선되자, 박이득이 문학하는 동기생 몇 사람을 모아 청포도 동인을 결성하고 당시 지역신문인 ‘동해 경제신문’에 5단 통으로 축하광고를 낸 것 이외에는 별로 한 일이 없다.

이들이 바로 손춘익, 박이득, 정민호, 김용남, 최가수 등으로 누가 등단했다면 동인 이름으로 축하를 해주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당시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4. 박경용, 손춘익 신춘문예 당선

박경용은 1958년 동아일보, 한국일보에 동시와 시조가 나란히 당선되어 화려하게 등단했으며 왕성한 문학 활동을 전개, 동시 ‘굴 한개’가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리는 등 한국문단에 중진으로 진출했으며 그 뒤 문단에서 여러 개의 감투를 쓰는 등 이제는 동시계 뿐만 아니라 문단 전체에서 원로로 대접받고 있다. 그러나 박경용은 포

항지역과는 별 인연 없이 중앙에서만 활동하고 있어 지역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손춘익은 1966년 조선일보, 대구매일신문에 동화 두 편이 나란히 당선되어 한국동화계에 셋별처럼 등장한 신인이 됐다. 지역문단에서 오랫동안 목마르게 기다리다가 손춘익이 신춘에 당선됐다고 하자 먼저 청포도 동인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으며, 지역의 원로이신 이명석, 박영달, 한흑구 선생 등이 크게 기뻐하며 환영했다.

손춘익은 창작 의욕이 대단한 작가였다. 매년 창작 동화집을 1~2권 정도 냈으며 어느 해도 빠지지 않았다. 그는 또 40대 후반에 들면서 월간문학, 창작과비평 등에 소설을 발표하면서 소설가로서도 명성을 얻었으나 창작동화만큼 성공을 거두지는 못한 것 같다. 손춘익은 그의 창작활동에 비례해서 세종문학상, 소천문학상, 경북문화상, 소파상까지 수상했으며 동화집, 소설집, 산문집 등 50여 권의 작품집을 남기고 있다.

5. 흐름회 탄생

이와 같이 본격적인 문학인이 탄생하면서 1967년 한흑구, 손춘익, 김녹촌(포항에서 교직, 1968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동시 당선. 지금은 타지에 거주)등의 문인과 지역문화인사 김대청, 박영달, 최성소 등이 중심이 되어 흐름회가 결성됐다.

흐름회는 이후 약 7년동안 문학강연회, 학생백일장, 출판기념회 등 각종 문학행사를 개최하면서 향토문학의 발을 일구고 씨를 뿌렸다.

흐름회 문학강연에는 이원수, 김동리, 서정주, 고은 등 당대 원로 문인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흐름회도 중요 회원 중 한두 사람이 빠지자 서서히 몰락. 처음의 열기를 유지하지 못하고 종내는 막을 내렸다.

6. 한국문인협회 포항지부 탄생

이 즈음인 1976년 2월, 춘강 빈남수가 포항에 정착하게 됐다. 춘강은 1927년 경남 사천에서 태어나 1952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공군대전기지 병원장, 상주 적십자병원장 등을 역임 한 뒤 포항의 동광병원 내과과장으로 자리를 옮겨 온 의학박사였다.

춘강은 이미 수필문학계에서도 왕성한 작품활동을 하고 ‘수향’, ‘갈숲’, ‘한국수필’, ‘경북수필’, ‘안행’ 등의 수필동인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수필집도《팔호 밖의 인생》, 《망각의 이방지대》를 상재했다.

이후 포항문학은 한흑구, 손춘익, 빈남수, 박이득에 의하여 전개되어 나갔다. 이같이

4인 시대가 3년여 동안이나 계속 됐다. 이때를 이대환 작가는 ‘포항의 아름다운 4인 문학시대’라 적고 있다.

이들이 이룬 첫 사업은 바로 한국문인협회 포항지부 설립이었다. 이들의 노력으로 마침내 1979년 8월 31일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포항지부의 결성을 보게 되었다. 당시 조직을 보면 고문 한흥구, 김대청, 지부장 빈남수, 부지부장 신상률, 박무근, 사무국장 박이득이었으며, 회원으로 손춘익, 장승재, 이상익, 신동화, 제갈태일, 우재욱, 김명선, 유인식 등이 참여하였다.

이날 이명석, 박영달 두 분을 고문으로 모시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기는 했지만, 포항제철의 준공으로 시세가 날로 번창하던 시기에 문인협회의 결성은 그야말로 시의적절한 움직임이었다.

7. 지역 창작의 근거지 ‘포항문학’

‘포항문학’은 1981년 창간호 발간 이후 한국문인협회 포항지부에서 연간집으로 발간하는 작품집이다. 향토의 문화정신을 수렴하고 선도해 나갈 문학지로 해마다 문화전반에 관한 문제를 특집좌담으로 실어 우리 문학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더 나아가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한권의 책이 나오기까지 좌담준비, 특집시인 선별 등 수차례의 편집회의를 가진다. 이 회의에서 문제를 안고 있는 수준 이하의 작품은 필자에게 되돌려 주어 더 나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여타 지역에서 나오는 문학지와는 다른 특징이다. 1988년 발간된 ‘포항문학’ 8호는 ‘지역문학 그 현황과 전환’이라는 특집 좌담으로 손춘익, 염무웅, 김흥규, 이동순, 김일광이 참석하여 ‘지역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시하였다. 이 좌담 내용을 서울신문(1988. 6. 21)에서는 이렇게 인용하고 있다.

“지역문학이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하나는 문학 활동을 담당하는 주체의 생활 근거지를 말하는 쪽과 다른 하나는 창작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든 그 문학작품이 갖는 관심과 체험의 토대, 그리고 그 주된 내용이 어떤 지역성을 지닌 경우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기준이 조정, 통합되어 성공할 때 중앙문학에 대비되는 좀 더 당당한 민족문학에 기여하는 지역문학이 될 것이다. 좌담과 더불어 8호에서 빼놓을 수 없는 ‘포항 영일지역 가사문학’은 매우 돋보이는 발굴이었다. 이 해의 ‘포항문학’ 특집시인으로 김종인, 박무근, 이상익이 참가하게 된다.

1989년의 ‘포항문학’은 민주화라는 시대의 물결과 맞물려 ‘노동현장, 그 생생한 삶의 목소리’란 주제 아래 육봉수, 이영돌, 최국현, 석상근, 김정구가 참여하여 포항지역의 노동현장의 실태를 다방면에서 조망하였다. 더불어 노동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의 글을 ‘노동문학’이란 특집으로 수용하여 산업사회에서 포항만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여기서 발굴된 많은 작품이 각종 언론에 인용, 발표되고 이 지면에 실린 필자 중 육봉수를 포함하여 다수가 문단에 얼굴을 내밀게 되었다. ‘노동’은 이후 몇 년간 ‘포항문학’의 주된 화두가 되기도 했다.

1990년 창간 10주년 기념호를 맞아 ‘포항문학’은 <아동문학>을 특집으로 다루었다. ‘아동문학의 실상과 전망’이란 주제로 이오덕, 김문수, 김경희, 손춘익이 상업화에 휩쓸리는 아동문학가의 책임론을 신랄하게 밝히고 꼬집었다. 신작시로 최부식, 여국현이 참가하고 각계 인사들이 ‘포항문학’을 바라보는 ‘포항문학을 말한다’를 실었다.

창간 10주년을 맞아 ‘포항문학’은 10주년 및 10호 출판기념회를 5월 10일 오션파크호텔 무궁화홀에서 지역인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었다. 10호까지 나오면서 ‘포항문학’에 후원과 격려를 보내 준 독자가 많았다. 그 중 대표적 인물이 바로 이대공, 도용환, 변승열 등이다. 이들은 포항문학협회와 ‘포항문학’에 물심양면 많은 지원을 해 준 분들이다.

1999년 ‘포항문학’ 19호는 이호철의 백두산 기행과 이문구의 금강산 기행이 앞면을 장식하였다. 이는 6.25 이후 처음 열리게 된 금강산 여행과 함께 독자들에게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특집 시인은 김정구, 권순자 였다.

‘포항문학’은 2009년으로 30호까지 발행됐다. 발행 때마다 그 해의 주제를 잡아 특집을 발행했으며, 중앙의 종진, 원로 문인들이 기꺼이 함께 참여해 주었다. 그리고 책을 낼 때마다 모든 부문에 혼신의 힘을 다해 전 회원 문인들이 ‘포항문학’을 구입해서 애독하는 일이 점차 늘어나 서울 교보문고에까지 중앙문예지와 함께 진열·판매하고 있다. 원로소설가 이호철은 전국 문예지를 평가하는 자리에서 단연 ‘포항문학’을 으뜸 자리에 놓는 평가를 해주었다. 문단의 아무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포항문학’은 이제 전국 문학지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것은 전체 포항문인협회의 작품수준이 중앙 기성문인들의 수준에 도달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회원 작가들의 작품집도 다양하게 출판되고 있다. 중앙문단의 수준을 넘어 보려는 포항 문협 회원들의 실험정신과 작가정신은 계속되며 올해도 전국에서 주목받는 작품과 작가가 속출하고 있다. 문학의 포항시대를 열고 있다. ‘포항문학’은 포항의 자산으로 포항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들도 늘 관심을 가져주는 문학 무크지로서 2007년부터 반연간지로 발행 중이다. 지금까지 ‘포항문학’에 작품을 실은 집필진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시 부문

박재삼, 고 은, 신경림, 박이문, 민 영, 허영자, 이문구, 박성룡, 조태일,
김명수, 이시영, 이동순, 정호승, 문정희, 박남철, 김용락, 문인수, 김사인,
김명인, 유홍준, 안도현, 유안진, 박남준, 정일근, 손택수, 김왕노, 권석창,
김충규, 김정구, 김만수, 김종인, 하재영, 윤석홍, 최부식, 차영호, 권순자,
정차준, 김성찬, 조현명, 조혜전, 김재환, 이종암, 권선희, 손창기, 백명자,
최 빈, 김말화, 이석현, 김동현, 김찬자, 김정향, 이상식, 김상웅, 김현욱

• 소설 부문

김문수, 이문구, 한승원, 손춘익, 김유미, 이대환, 조중의, 이충현, 성홍근,
김살로메, 이강란 등

• 동화 부문

김문수, 유재용, 손춘익, 심후섭, 박이득, 김일광, 하재영, 서성원, 박이득,
김정호 등

• 동시 부문

조무근, 이승민 등

• 평론 부문

염무웅, 유종호, 손춘익, 정지창, 최영호, 이동호, 고봉준, 방민호 등

• 수필 부문

빈남수, 서상은, 박성준, 김녹춘, 이진형, 성홍근, 박이득, 이삼우, 조유현,
장호병, 배용재, 황기석, 김 훈, 이상기, 백운호, 배정미, 이문구, 이태우,
이영희, 박창원, 김희준, 정장식, 이순영, 장성부 등

• 서평 부문

이하석, 이태수, 장문평, 안종관, 김녹춘, 김종인, 임길택, 민 영, 오승강,
남호섭, 문인규, 김명수, 고재석, 남진원, 정호웅, 정차준, 이종암, 조현명

• 민담 부문 : 신 왕

1999년부터 포항의 문인들의 활동이 다양해지면서 많은 저서들을 발표하게 된다. 주요 시인으로는 푸른시 동인으로 활동하는 김만수, 차영호, 하재영, 손창기, 조현명, 최빈, 김말화, 등이 있으며, 그 외 이종암, 권선희 시인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소설에는 이대환, 조중의 김살로메, 동화의 김일광, 김정호, 수필에는 형산수필 회원, 보리수필 회원들이 포항의 문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1988년 이후 10년간 포항에서 활동 하는 문인들의 출판물 발간 및 출판기념회, 수상내역을 연표는 시승격 50주년 기념 《포항시사》 참조)

8. 그 외 다수

1) 쇠물백일장

1988년 4월 포항제철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제1회 쇠물축제가 개최되었다. 이 행사의 한분야로 쇠물백일장이 문인협회 포항지부 주관으로 1987년 개교한 포항공과대학 잔디밭에서 열리게 된다.

첫 회임에도 불구하고 초, 중, 고, 대학, 일반부 2000여 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마친 쇠물백일장은 이 지역의 새로운 문학 행사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후 해마다 4월 포항제철(주) 창사기념일 전후하여 자리를 문예회관 동편 공원을 이용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이 지역민을 비롯하여 멀리 영덕, 울진, 경주, 대구 시민들 중 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행사로 자리를 잡아 왔다. 기업의 문화 참여 메세나 운동이라 할 수 있는 쇠물백일장은 지역의 문학 애호인과 함께 하는 연례행사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백일장 출신으로 주목할 만한 작가로 정차준과 변왕중을 꼽을 수 있다. 제1회 시 부문 장원을 차지한 정차준은 1991년 7월, 시 ‘동화책을 찾습니다’ 외 4편으로 ‘한국문학’ 신인상에 당선되었다. 1990년 제3회 쇠물백일장의 고등부에서 장원을 차지한 대동고 3학년의 변왕중은 후일 1994년 ‘세계의 문학’에 ‘이 세상 과거는 없다’ 외 4편을 통해 정식 문단에 등단했다. 변왕중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5천만원 고료 1998년 삼성문학상에 ‘소멸의 의식’으로 화려하게 당선되기도 했다. 쇠물백일장 출신의 작가지망생 중에는 앞으로 여러 곳에서 문단에 연이어 얼굴을 내밀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 형산백일장과 문학 강연회

포항시의 문화제 행사 중의 하나로 매년 10월에 개최되는 형산백일장과 문학 강연회는 우리지역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아 온 행사였다. 처음에는 수도산과 시민회관에

서 치러졌으나 지금은 육거리 시민회관이 없어서 문학 강연회와 백일장 자리도 바뀌고 있다. 그래도 백일장에는 2000여명 이상의 예비 문사들이 모여들고 있으며 인기가 높았으나 19회를 끝으로 1996년부터는 영일만이란 새로운 명칭으로 이어진 행사이다. 당시 포항시와 영일군의 통합으로 부득이 문화제 명칭을 바꿔야 했기 때문에 백일장 명칭도 바뀌게 된 것이다.

포항문화회에서 개최하는 문학 강연회는 학생을 중심으로 관중이 모여들었는데 그동안 꾸준한 성황을 이어오고 있다. 당시 문학 강연에 초청된 강사로는 문단의 최고 원로급이 대부분이었다.

- 1982년 : 김동리 •1983년 : 구 상 •1984년 : 백낙청 •1985년 : 이호철
- 1986년 : 신경림 •1987년 : 김문수 •1989년 : 김태길 •1990년 : 박이문
- 1991년 : 유종호 •1992년 : 김주영 •1995년 : 홍상화 •1996년 : 이문구

3) 재생문화 공덕비와 재생백일장

재생 이명석은 1904년 영덕군 삼사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 일찍이 포항으로 이주하여 이곳을 본향으로 삼아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주도 하였다. 1960년대 포항문화원을 설립하였고, 이 지역 최초의 문화제인 개항제 개최를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 건립운동에도 앞장을 섰다.

문화의 여명기에 씨를 뿌린, 명실 공히 문화의 숨은 일꾼으로 활동해 온 재생 이명석의 공덕과 노고를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1998년 2월 28일 포항문화사와 한국문인협회 포항지부가 중심이 되어 수도권에 ‘재생 이명석선생 문화공덕비’를 세웠다. 비문은 손춘익이 짓고, 글씨는 정현식, 조각은 홍성문이 맡았다. 유족 이진우, 이태우, 이대공을 비롯하여 문화를 사랑하는 많은 시민이 참석한 문화공덕비 제막식은 이 지역의 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막식에 소개된 재생 이명석의 약력을 간단히 인용하면, 포항 선린애육원 설립, 이사장 역임, 포항문화협회장, 한국예총 포항지부 결성 주도, 포항시 교육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였고 ‘포항시민의 노래’ 가사를 쓰는 한편 연극에도 관여하는 등 문화예술의 전반을 주도하고 이끌어 주었다.

이같은 이명석의 문화예술 운동과 애호운동을 기리고 기념하기 위해 제1회 재생백일장을 1998년 10월 31일 수도권 재생문화공덕비 앞에서 개최하여 초, 중, 고, 대학, 일반부 등으로 2천 5백여 명이 참가했다.

올해로(2009) 12년째 개최되고 있으며 매년 2천 5백여 명 이상이 참여하여 이 지방 최고 문학 백일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4) 평보백일장

포항대학 설립자인 평보 하태환 선생의 문학사랑과 인재육성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2001년 제정된 백일장이다.

이 백일장은 포항대학에서 주최하고 포항문인협회에서 주관해서 해마다 열리고 있으며 주로 경북 동해안 지역의 학생, 일반인 등 2천여 명 이상이 참석하고, 점차 참가 인원이 늘어나고 있어 우리지역의 큰 문학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5) 보리누름, 하계 세미나, 송년 문학의 밤

한국문인협회 포항지부의 연중행사로 보리누름과 하계 세미나, 송년 문학의 밤을 개최하고 있다. 보리누름은 우리 지방에서 가장 보리밭이 넓은 대보 들판에서 펼쳐 있는데 넓은 보리밭에서 보리가 누렇게 익는 철(오뉴월) 황금빛 보리를 보며 시와 수필을 낭송하고 차와 음악을 마시며 그야말로 낭만에 젖어 보는 문인들의 호사 시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푸른 바다와 누런 보리색이 확연히 대비되면서도 동시에 조화를 이루는 한국 남도의 초여름 속에서 문학을 얘기하고 예술을 논하는 문인들과 시민들은 새로운 작품 구상, 새로운 문학 공부, 새로운 독자로 태어나게 된다.

이 행사는 1990년대 초까지는 구룡포에서 행사를 가졌지만, 구룡포 지역의 활발한 개발로 보리밭이 크게 줄어들면서 1995년부터 이 행사는 대보면에서 거행하게 되었으며, 일반시민들의 참여가 많아지면서 1997년부터는 문학기행 행사로 발전되어 이제는 완전히 시민행사로 자리를 옮겨가고 있다. 대보면 보리밭은 한국문단의 거목인 한 흑구의 명 수필 ‘보리’의 태생지이기도 하다.

포항문학 하계 세미나는 문협회원의 자기연수라 할 수 있다. 그해에 나온 ‘포항문학’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자리이기도 한 이 세미나는 주제발표와 그 주제에 따른 난상토론으로 새로운 문학적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이다.

1990년 전후 하계 세미나가 실시된 곳은 상옥과 유계리 계곡이었다. 1995년 이후 이 행사는 대보면 송림촌(청니헌)에서 갖게 되었는데 회원들은 의무적으로 한 편의 시와 노래를 발표해야 했다.

이처럼 포항문학 하계 세미나는 토론에 참여해서 논지를 펼쳐야 하며 시와 소설, 동화와 수필 등을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등 점차적으로 연수적 행사로 가고 있어, 문학의 새로운 체험이 되고 있다.

송년 문학의 밤은 해마다 12월 중·하순에 실시한다. 한해가 저물어 가는 세모, 지역의 문학 애호인들이 모여 시를 낭송, 감상하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문학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는 밤이다. 작품이 부족했던 문인은 새해에는 좀 더 알찬 작품을 몇 편 이상 쓰겠다는 각오를 하게 되고 서평이나 세평이 좋았던 작가는 새해에는 더 좋은 작품을 써야겠다는 굳은 맹세를 마음속 깊이깊이 잡아매는 것이 송년 문학의 밤이기도 하다.

1990년 전후로는 명성예식장에서, 1993년부터는 대백쇼핑 7층 갤러리에서, 1997년부터는 경북일보 강당에서 치러진 이 행사는 한국문인협회 포항지부 회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른 문학단체 회원들을 초청하여 소속된 문학단체(한빛, 새박, 문학레이더, 한울타리, 포스코 문학회, 문영 등)를 소개해서 서로 소통의 길을 열어주는 자리이기도 하다. 또 문학의 밤 등 다른 행사를 구상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송년 문학의 밤은 한국문인협회 포항지부의 각종 행사 중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침표와 같은 행사이다.

6) 문학단체

우리 지역에서는 문학 동호인들이 자생적으로 활동하고 그 작품의 수준 또한 높은 편이다. 우리지역에 뿌리내린 문학단체와 이 지역 출신 문인들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1) 형산수필문학회

1984년 7월 7일 발족. 1985년 11월 동인지 ‘형산수필’ 창간호를 발간했다. 이후 해마다 동인 수필집 ‘형산수필’을 발간하여 수필의 저변 확대에 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형산수필 회원들은 매월 작품 합평회를 갖고 있으며 매년 수필집을 발간하여 2009년 현재 25집을 발간하고 있다.

초창기 회원으로는 빈남수, 서상은, 장현, 성홍근, 이삼우, 김규련, 이기태, 박귀훈, 조유현, 이난영, 윤영대, 김훈, 손일석, 변종수, 이화련, 김삼일, 이상윤, 서강홍, 박안복, 성정애, 서동훈, 김춘희, 조효선, 전미라, 원용수 등이며, 박이득, 박상태는 2005년부터 참여했다.

(2) 비화시조 문학회

경주시 안강읍에 본거지를 두고 1979년 6월 결성된 비화시조 문학회는 1984년 주무대를 포항으로까지 확대해서 시조인구 저변확대와 계승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년 ‘비화’ 동인 시조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1991년 ‘노계 박인로’ 사당 및 시비 순례를 하였으며, 1992년에는 시조 부흥을 위해 세미나도 개최하였다.

1999년 ‘비화’ 19집을 발간하면서 비화 회원들은 신춘문예를 비롯한 각종 문예지에 신인문학상 시조 분야에 당선하는 등 회원마다 알찬 약력과 실력을 쌓아가고 있다.

2009년까지 ‘비화’ 동인 시조집은 계속 발행되고 있으며 회원들의 작품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어 우리지역에 시조문학을 더욱 확실하게 하고 있다.

회원으로는 강성태, 김두섭, 김우연, 김진혁, 배종교, 서석찬, 서숙희, 손수성, 운영자, 이경옥, 이문균, 이유나, 이정미, 박광훈, 조순호, 원정호, 조영두, 조주환, 황무광 등이다.

초대회장 조주환은 1999년 한국시조시인협회 부회장에 당선되었고, 서숙희는 1996년 월간문학 신인상에 소설이 당선된 소설가이기도 하다.

(3) 푸른시 동인

1998년 보다 젊을 때 보다 좋은 시를 쓰자는 취지로 결성된 푸른시 동인은 포항문협소속의 시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1999년 8월 죽장초등학교 죽북분교에서 대구의 이하석 시인을 초청해서 ‘제1회 푸른시인학교’를 개강하여 2박 3일 동안 시 잔치를 펼쳤다. 이들은 매년 푸른시 동인지를 발행하는 한편 명시 감상, 문제 시 토론 등의 행사를 펼치면서 자신들의 시 정신과 작품 세계를 넓혀가고 있다.

푸른시 회원으로는 김만수, 차영호, 하재영, 조혜전, 김성찬, 이종암, 김종현, 손창기, 정차준, 권선희 등이며 모두가 시집을 낸 기성시인들이다.

(4) 포항문에 아카데미

포항문에 아카데미는 교양 있는 민주시민 육성, 문학의 저변 확대, 전문 문학인의 육성 등을 위해서 1999년 4월 설립됐으며 초대원장은 조유현씨가 맡았다.

포항문에 아카데미는 문학수업에 뜻있는 수강생을 모집, 매주 1회 문예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2009년 현재 11년째 연속으로 강의를 계속해서 그동안 많은 수강생을 배출했으며, 지역 문학의 저변확대는 물론 문단에 등단하는 전문 문인까지 배출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큰 관심과 함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초창기 강사로는 손춘익, 손진은, 서동훈, 빈남수, 하재영, 이덕승, 강은교, 김만수, 이영희, 박완서, 박이문 등이었으며 운영위원으로는 조유현, 김정구, 김일광, 김만수, 하재영, 장태원, 조현명, 서병철 등이 활동하고 있다.

(5) 한빛 문학회, 새북 문학회

1989년 11월 경성된 한빛 문학회와 새북 문학회는 여성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인들의 활동 분야는 시와 산문으로 동인집 ‘지느러미만 열심히’를 3호까지 발간하

였다. 회원으로는 유미경, 민경숙, 박동숙, 김정희, 김미선, 최정숙, 김정기, 진용숙 등이 활동하고 있다. 새북 문학회는 동지여상 출신 문학 동인으로 시 낭송과 작품집 발간을 통해 꾸준히 문학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6) 보리수필문학회

2004년 1월, 포항지역에 삶을 갖고 있는 박창원, 김희준, 정혜숙, 정옥희, 장영희, 이순영, 윤종희, 이종기, 이남재 등 9명의 회원으로 출발하였다.

보리수필문학회라는 명칭은 포항지역 해변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아름다운 보리밭을 상징하는 한편, 포항에 살면서 ‘보리’라는 명수필을 남긴 한흑구 선생의 문학적 업적을 계승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2009년 말 현재 박창원(1~2대회장), 김희준(3대회장), 강길수(4대회장), 김병래, 손달호, 윤종희, 이강란, 이남재, 이상준, 이순영, 이종기, 장승부, 조 숙, 최미영 등이 활동하고 있다. 2006년부터 매년 작품집 《보리수필》을 내고 있으며, 격월로 작품합평회, 연2회 문학기행을 하고 있다.

(7) 다른 지역 거주 문인

• 박경용

1958년 동아일보, 한국일보 동시, 시조 당선. 작품집〈어른에겐 어려운 시〉, 〈그날 그 아침〉, 〈굴 한개〉, 〈별총총, 초가집 총총〉, 〈침류집(枕流集)〉, 〈적(寂)〉 등이 있으며 손춘익, 박이득 등과 교분이 두터웠다.

• 정민호

사상계 마지막호에 시 ‘저 푸른 강변의 연가’가 당선, 당시 박목월은 심사평에서 장례성 있는 시인을 발견했다고 했다. 경주 근화여고 교사, 경주 문협지부장, 경주 예총지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시집 10여 권을 남기고 있으며, 2009년 7월에는 삼국유사 완역본을 내 노익장을 과시했다. 신광면 출신으로 선비정신이 강하다. 박이득, 손춘익과는 동기생이다.

• 최석하

1941년생으로 흥해 출신, 대구 MBC에 근무, 1975년 ‘문학과 지성’을 통해 시로 등단했다. 시집 〈바람이 바람을 불러 바람 불게 하고〉, 〈물구나무서기〉, 〈희귀식물 엄지호〉 등이 있다. 제3회 대구문학상 수상. 박이득, 손춘익과 동연배로 교분이 있다.

• 박남철

흥해 출신으로 1979년 ‘문학과 지성’ 겨울호에 연날리기 외 3편의 시로 당선, 등

단했다. 시집 <지상의 인간>, <반시대적 고찰>, <자본에 살어리랏다> 등이 있다. 동지상고 출신으로 손춘익과는 사제의 연이 있다.

- 이영희

1951년 ‘조각배의 꿈’이 한국일보 신춘문에 동화에 당선. 우리지역 출신으로 최초의 신춘문에 당선자가 됐다. 포항여고,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했으며 한국일보 기자로 입사, 문화부장에 오르니 당시 우리나라 최초의 중앙 일간지 여자 문화부장에 취임하는 기록을 남겼다. 창작집 <책이 산으로 된 이야기>, <해 돋는 나라>, <별님을 사랑한 이야기> 등 30여권의 동화집이 있다. 1968년 해송동화상, 1971년 소천문학상, 1972년 대한민국 아동문학상을 받았다. 1994년 조선일보에 ‘노래하는 역사’를 연재하여 5권의 단행본으로 발간했다. 소설집 ‘달아 높이 꿈 돌아사’ 등 여러권을 발간, 1998년 포항으로 귀향, 포철 연수원에서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다. 신경북 일보(경북일보 전신)에 우리 지역의 토박이말과 관련된 이영희 교수의 역사 퀴즈를 연재하기도 했다.

- 하창수

1960년생으로 포항에서 출생, 성장했다. 1987년 ‘문예중앙’ 신인문학상에 ‘청산유감’이 당선, 문단에 나왔다. 작품집으로는 <지금부터 시작된 이야기>, <수선화를 꺾다>,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 <알>, <허무총> 등이 있다.

- 변왕중

1994년 ‘세계의 문학’에 <이 세상 과거는 없다> 외 4편의 시가 당선. 문단에 등단했다. 이에 머무르지 않고 5천만원 고료 현상공모 1998년 ‘삼성문학상’에 <소멸의 의식>이 당선되어 문단 등단을 더욱 화려하게 했다. 변왕중은 쇠물백일장 출신 작가 1호를 기록하기도 했다.

7) 2000년 들면서

포항문협은 2000년 들면서 문학에 대한 저변확대와 의미 공유를 위해 문학인 자체 행사가 아닌 시민에게 다가가는 진취적이고 동적인 행사를 가지고 있다. 또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현상공모를 실시하고 있어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앙상가 실개천을 중심으로 매년 거리문학축제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함과 동시에 흥을 돋움으로 어려운 문학이 아닌 즐거운 문학이라는 의식을 시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그 노력의 성과로 해마다 많은 시민들이 문학행사에 참여하여 문화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8) 한국문인협회 포항지부 연혁

- 1979년 8월 31일 한국문인협회 포항지부 구성 지부장 빈남수, 사무국장 박이득
- 1980년 손춘익 전래동화집 《이야기의 샘》 일지사 발간
- 1981년 9월 25일 《포항문학》창간호 발간-특집 ‘한흑구의 삶과 문학’
- 1982년 9월 《포항문학》제2호 발간-특집 향토문학씨클 탐방 ‘문영문학동인회’
- 1983년 1월 정기총회 2대 지부장 성흥근
- 1983년 5월 한흑구문학비 건립(서상은, 성흥근, 손춘익)
- 1983년 11월 《포항문학》제3호 발간-특집 제1회 동해지구 초중고백일장
- 1984년 5월 김일광 제12회 ‘창주아동문학상’에 동화 ‘훈이의 손’ 당선
- 1985년 2월 김정구 회원 《시인》지에 시 ‘화부’, ‘신호수’연작으로 데뷔
- 1987년 1월 김일광 회원 매일신문 신춘문예 동화 당선
- 1988년 1월 정기총회 3대 지부장 빈남수, 사무국장 김정구, 김일광
- 1988년 1월 하재영 회원 충청일보 신춘문예 동화 당선
- 1989년 5월 조무근 회원 제12회 한국아동문학작가상 수상
- 1990년 1월 하재영 회원 매일신문 신춘문예 시 ‘갈증’ 당선
- 1991년 4월 제4회 쇯물백일장, 수도산
- 1992년 1월 정기총회 4대 지부장 손춘익, 사무국장 김일광
- 1992년 5월 30일 보리누름 행사, 구룡포 상정리
- 1993년 7월 23~25일 《포항문학》 하계세미나
- 1994년 5월 《포항문학》제14호 ‘문학과 현실’ 발간
- 1995년 4월 22일 제8회 쇯물백일장, 수도산
- 1996년 1월 정기총회 5대 지부장 손춘익, 사무국장 김일광
- 1996년 4월 6일 제9회 쇯물백일장, 문화예술회관
- 1997년 12월10일 송년문학의 밤 《낮선 새 길 속으로》 대동일보사
- 1998년 2월 28일 재생 이명석 선생 문화공덕비 제막식, 수도산
- 1999년 9월 15일 한국문인협회 포항지부설립 20주년 기념식, 오션파크호텔
- 1999년 12월 청포도시비 건립(추진위원장 하재영)
- 2000년 1월 14일 정기총회 임원개선 5대 지부장 김정구, 사무국장 고상환, 최부식
- 2000년 9월 4일 동화작가 손춘익 별세
- 2001년 1월 14일 포항문예아카데미를 포항문인협회 산하 단체로 편입
4기 원장 김일광

- 2001년 5월 정보백일장 포항대학 교정
- 2002년 1월 정기총회 6대 지부장 김일광, 사무국장 최부식
 문예아카데미원장 김만수
- 2003년 8월 22일 수필가 빈남수 별세
- 2004년 1월 정기총회 7대 지부장 김일광, 사무국장 최부식
 문예아카데미 원장 김만수
- 2004년 11월 시인 김정구 별세
- 2005년 10월 8일 손춘익 문학비 건립(위원장 김일광, 이대환)
- 2005년 11월 7일 시인 김정구 유고집 발간(내 붉은 노래)
- 2006년 1월 정기총회 8대 지부장 김만수, 사무국장 권선희
 문예아카데미 원장 하재영
- 2008년 1월 정기총회 9대 지부장 김만수, 사무국장 김말화
 문예아카데미 원장 이대환
- 2008년 5월 포항문학 반년간으로 발간(편집위원장 조현명)
- 2009년 10월 포항소재 문학작품 공모(대상 김영아)
- 2010년 1월 정기총회 10대 지부장 이대환, 사무국장 김살로메
 문예아카데미 원장 하재영

9) 한국예총 포항지부 소속단체

-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 포항지부(1981. 5. 19 인준)
 지 부 장 : 박이득
 수석부지부장 : 심근식
 부지부장 : 김동은, 강문길
 감 사 : 강순원, 이원만
- 한국국악협회 포항지부(1994. 3. 25 인준)
 지 부 장 : 김오택
 부지부장 : 심재돌
 사무국장 : 이원만
- 한국무용협회 포항지부(1987. 2. 14 인준)
 지 부 장 : 손 현
 부지부장 : 이해령
 사무국장 : 이지원

- 한국문인협회 포항지부(1979. 8. 31 인준)
지 부 장 : 김만수
부지부장 : 차영호, 최부식
사무국장 : 김말화
- 한국미술협회 포항지부(1987. 6. 15 인준)
지 부 장 : 최복룡
부지부장 : 김왕주, 강희룡, 박정열
사무국장 : 권종민
- 한국사진작가협회 포항지부(1965. 9. 4 인준)
지 부 장 : 최영철
부지부장 : 서종덕, 두병하
사무국장 : 박영길
- 한국연극협회 포항지부(1979. 12. 31 인준)
지 부 장 : 이한엽(2008년 12월경 개인 사정으로 사퇴)
부지부장 : 이재훈, 이협수(2009년 12월까지 지부장 직무대행)
사무국장 : 설해순
- 한국연예예술인협회 포항지회(1975. 7. 1 인준)
지 회 장 : 심근식 수석부지회장 : 손해숙
부지회장 : 최만도, 박봉태 사무국장 : 김태영
- 한국음악협회 포항지부(1981. 5. 19 인준)
지 부 장 : 김석훈
부지부장 : 이항덕, 강맹기
사무국장 : 이승목

제9절 포항여성의 문화예술

1. 국 악

1) 포항국악과 여성

국악은 우리 민족의 혼과 성정이 그대로 담긴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예술이다. 그럼에도 포항의 국악이 시민적 관심과 더불어 번듯한 예술의 한 분야로 발전하기까지의 역사는 비교적 짧다고 하겠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음악협회 내에 국악분과로 머무는 수준이었으나 1994년 문화부가 지정한 ‘국악의 해’를 맞이하여 국악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포항에도 국악협회가 결성되었고 국악활동이 점차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국악협회 포항지부 결성에 참여한 여성 국악인으로 심재돌, 임종복, 최은경이 있으며 이들 여성 국악인은 포항국악의 맥을 이루어 오면서 지역 국악의 계승발전에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포항국악은 비교적 짧은 연륜이지만 지역 내의 사설 국악원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여성국악인의 활동과 참여비율이 높다. 전문 국악인 외에도 일반 국악동호회가 결성되어 정기적인 공연, 연주회 등을 가짐으로써 포항국악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주로 주부들을 비롯한 아마추어 일반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악동호회로는 1988년에 창단된 ‘한터울’, 1999년에 결성된 ‘민요보존회’, ‘해오름’, ‘오름골’이 있으며 그밖에도 농협부녀회 국악동우회가 있다.

2) 포항의 여성국악인들

원로 시조명창 김정미는 포항시우회에서 시조창 지도를 비롯하여 초등학교 학생과 교사, 일반인들에게 시조창을 가르치면서 시조창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

‘심재돌 판소리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우리 가락 보급과 후진 양성에 힘쓰고 있는 심재돌은 진주의 판소리 명창 조영태의 영향으로 판소리계에 입문을 한 국악인이다. 무형문화재 8호 이명희를 사사하였으며, 상주민요 경창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고 박정희 대통령 육영수 여사 추모제 참여 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국악협회포항지부의 부지부장과 가야금병창 분과위원장을 역임한 임종복은 경주의 장월중선으로부터 가야금병창을 이수 받았으며 전국 국악대전 등 여러 대회에서 수상

을 하고 경북무형문화재 제19호 가야금병창 전수조교로 활동하였다. 한국국악협회경북지회 이사를 역임하였고 포항국악원, 포항민속예술단 단장을 맡고 있다.

최은경은 이말양, 장월중선, 이춘희로부터 각각 가야금과 민요를 사사한 젊은 재원으로 포항에서 국악원을 운영하면서 포항문화원, 노인대학, 포항BPW, 청소년수련관, 초·중학교 국악반에도 나가면서 국악의 보급과 저변확대에 힘써왔다. 중요무형문화재57호 경기민요이수자, 경상북도 무형문화재19호 가야금병창 이수자이며 도립국악단 상임단원을 역임하고 경기민요보존회 경북지부장을 맡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이수자인 박소연은 장월중선, 박덕화, 이창배로부터 각각 고전무용, 시조, 12잡가 및 경기민요를 공부하고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호미꽃예술단을 지도해왔으며 ‘박소연국악연구실’을 운영하는 등 지역에서 국악보급과 발전에 애쓰는 여성 국악인이다.

포항지방의 특색이 물씬 풍기는 중요무형문화재인 동해안별신굿 이수자인 정채란은 해마다 열리는 정월대보름 풍어제에서 고장의 발전을 기원하며 굿판을 벌이는 그는 동해안별신굿 12굿 중에서도 특히 춤사위가 아름답다는 노동굿의 명인이다.

사물놀이 분야의 김미화는 1988년 창립된 만피골놀이마당 한터울에서 강습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국악인으로 김덕수패 사물놀이, 우도 장구춤, 조정제 선생 장구춤을 이수하여 포항시청소년수련관, 부덕사를 비롯하여 각급 학교에서 풍물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 외에도 황현자(제23회 남원전국국악경연대회 국회의장상 수상) 이소순(제6회 진해전국국악경연대회 금상 수상), 조한향(경북민요제전 대상 수상) 등 여성소리꾼들이 대회입상을 통해 포항의 국악을 내외에 알리는 성과를 내고 있다.

2. 문 학

1) 포항문학의 태동과 여성

포항에 문학의 터를 일구기 시작한 사람들은 박경용, 이명석, 박영달, 신상률, 석병호, 서상은 등이었다. 포항문학의 시작은 1930년대 한국 영문학계의 거목 중의 한 사람이자 수필가인 흑구 한세광의 1948년 포항 이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흑구의 작품 활동이 포항에서 계속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그가 포항문학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여 후일 ‘포항문인협회’의 창립과 ‘흐름회’로 이어져 포항 문학이 본격적으로 그 뿌리를 내리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명석, 박영달 등은 포항문인협회를 중심으로, 신상률, 석병호, 정화식 등의 문학청

년들은 ‘효안’ 동인으로 활동하였고 1955년에는 서상원이 중심이 되어 ‘청패’ 동인을 결성하였으며 박경용은 18세인 1958년에 동아일보 신춘문예(시조)에 당선되는 천재성을 발휘하는 등 포항문학의 발이 일구어지고 있었으나 이 시기 여성들의 두드러진 활동은 아직 뚜렷하지가 않았다.

포항문학이 태동되던 1950년대 여성이 참여한 유일한 문학단체로는 1951년 신상률 등이 중심이 된 ‘효안’ 동인회였다. 여기에 참여한 여류로는 김정예, 김옥련, 정연숙, 이길선, 김옥자, 이재영으로 이들은 동인지 《종》을 발간하고 시화전, 시낭송회도 가지면서 문학에의 젊은 꿈을 키워나갔다.

1970년대 작은 규모였으나 나름대로 활발한 활동을 해온 동인 중에 ‘갈숲’이 있었는데 유일한 여성으로 김명선이 참여하였고 그 후 1979년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포항지부 결성에도 참여한 유일한 여성이었다.

등단 경로를 거친 문인들은 아니었으나 포항지역에서 초등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문예클럽인 ‘포항아동문예연구회’가 1979년에 창립되어 《영일문예》를 발간하기도 하였는데 여기에 장연숙, 배종금, 신영희를 비롯한 많은 여교사들이 작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한편 포항이 배출한 여성문학인으로 이영희가 있다. 포항에서 태어나서 서울로 이주하여 1951년에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동화가 당선되었고 1958년 동화집 《책이 산으로 된 이야기》를 시작으로 창작동화집 30권, 《꽃과 유리의 언어》등의 수필집 5권, 《달아 높이곰 돌아사》등 소설집 4권, 일본 고대문집인 만엽집을 해독한 《노래하는 역사》 등 50여권의 저서를 펴내었다. 한때 고향 포항으로 돌아와서 포스코 인재개발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호활한 상상력과 거침없는 입담으로 조선일보에 <續 노래하는 역사>를 연재하는 등 왕성한 작품 활동을 계속하여왔다.

1980년대 이전 김명선 외에 이렇다 할 여류가 없던 포항지역에 송애경이 《포항문학》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후 《시인》지를 통해 등단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여류들의 활동이 크게 나타난 시기로 권순자, 조순태, 형산백 일장에서 장원을 한 김명옥도 ‘형산수필’ 회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1989년부터 포항에서 문학 활동을 한 시인 박소유(부산일보 신춘문예)가 있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포항지역은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 새로운 융성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각종 문예지나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여성 문학인 또한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1989년 《현대시조》 신인상 당선, 1992년도 매일신문과 부산일보 신춘문예 시조부문에 당선한 서숙희는 이후 소설가로도 활동영역을 넓히면서 2000년 시집 《그대 아니라도 꽃은 피어》를 내었다.

동시를 쓰는 이승민은 1991년 《아동문학연구》로 등단하여 동시집 《물소리 바람

소리》를 출간하였고, 진용숙은 1993년 《문학세계》로 등단한 시인으로 지역문예지 등에 작품을 발표하면서 활발한 문단활동을 하고 있다.

1993년 《한맥문학》으로 등단하여 시와 소설을 쓰는 도은숙, 같은 해에 수필과 시로 등단한 유미경, 《시세계》로 문단에 나온 최삼영, 하영희, 1995년 《문학세계》로 문단에 나온 이후 2008년 매일신문 신춘문예에 수필이 당선되어 화려한 새 출발을 시작한 수필가 정서운(본명 정옥자), 1995년 등단한 시조시인 이경옥, 《자유문학》으로 시를 쓰는 조혜전, 1997년《수필문학》을 통해 등단하여 고희의 고개에 선 2000년도에 수필집을 낸 이영애 등 여류의 활동이 두드러진 90년대였다.

1990년도 후반부터는 젊은 여성들의 문학활동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는데 1998년 《포항문학》으로 활동을 시작한 권선희는 ‘구룡포’ 연작시로 시단의 주목을 받아왔다. 2007년에 발간한 시집 《구룡포로 간다》가 문화예술위원회 우수문학도서로 선정되는 등 작품성을 인정받은 시인이다.

2000년 포항문학 신인상을 수상한 최빈(본명 최영미), 2004년 영남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이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소설가의 길을 걷고 있는 김살로메(본명 김복남), 2004년 동서커피문학상 시부문에 입상한 김말화, 2007년 포항문학 신인상에 평론이 당선된 박주현, 2001년 신라문학대상 단편소설 부문 수상과 2005년 포항문학공모 수필부문 신인상을 수상한 이강란 등 실력 있는 여성문학인들이 주로 《포항문학》을 중심으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수필가 박모니카(본명 박연자)는 신라문학대상(2006년)과 경남일보 신춘문예(2008년)에 수필로 당선하여 수필문단의 주목을 받고 있다.

2) 여성문학동호회

포항에서 여성 문학인들이 참여한 문학동인회를 보면 ‘맥시조문학회’와 ‘이웃과 시’, ‘푸른시’, ‘소창동 사람들’ 등이 있다.

2000년도 이후부터는 포항문협 부설 포항문예아카데미와 포항문학 신인상을 통해 지역 여성 문학도가 많이 배출되었다.

1985년에 포항지역 최초로 여성들로만 구성된 동호회 ‘새봄’이 창립되었다. 등단 경로를 거친 문인이 아닌 동지여자상업고등학교 교내 동아리 출신으로 구성된 최초의 여성 문학동호회라 하겠다.

1988년에 결성된 ‘한빛문학동인회’는 포스코 사원 부인들이 참여한 여성문학동호회다. 당시 포스코 홍보과에 근무하던 시인 우재욱, 시조시인 제갈태일의 지도로 본격적인 문학수업을 받으면서 여러 명이 등단하여 지역 문단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1994년 5월에 또 하나의 여성문학동호회인 ‘대동여류문인회’가 창립되었다. 당시

대동일보사(지금의 경북일보사)의 후원으로 포항·경주 지역의 등단한 여류문인들로 구성, 회원 11명으로 출발하였다. 여기에 참여한 포항지역 여성문학인으로는 도은숙, 하영희, 배종금, 서숙희, 정해경, 진용숙 등이며 두 번에 걸쳐 ‘대동여성백일장’을 개최하였는데 포항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 경주, 경산 지역의 여성들까지 참여하였다. 그 해 11월에는 허영자 시인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열기도 하였으나 이후 특별한 활동 없이 해체되고 말았다.

현재 포항에는 여성들만으로 구성된 문학동인회는 없다. 그러나 60년,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드물었던 여성문학인이었는데 현재 시, 시조, 소설, 수필 등 각 장르에 걸쳐 여성들의 활동은 오히려 남성을 능가할 정도이며 포항지역에는 지금 대략 50여 명의 여성문인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3. 미술

1) 포항여성미술의 형성과 여성 작가들

포항 여성미술사에 가장 먼저 거론되는 사람은 김경희이다. 김경희는 포항여성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길 여성계의 대표적 인물로서 서양화를 전공한 미술학도였다. 대학 중퇴 후 포항지역에 머물면서 1957년부터 1959년까지 2년간 포항여고 미술교사로 재직하면서 후배들을 지도하였다.

그 당시만 하여도 전쟁 후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다 할 미술계의 활동이 두드러지지 않은 가운데 여류의 활동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김경희는 지역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하면서 어려운 시절이었으나 학생들에게 미술에의 꿈을 키워주었다. 데생에 필요한 목탄이 없어서 버드나무를 구워서 사용하고, 유화물감을 구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워 주로 수채화를 지도하면서 강당에서 학생들의 전시회를 여는 등 후학들을 지도해 나갔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를 건너오는 동안 포항미술계는 배원복, 서창환, 김우조, 권영호, 이방웅 등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전위적인 성향의 작업을 하며 의욕적인 개인전을 열기도 하고 ‘포항미술회’라는 모임이 결성되기도 하였으나 아쉽게도 이들 남성들과 함께 활동한 여류가 없었다.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수채화 동호회인 ‘오월회’와 서양화, 구상·비구상이 함께한 ‘도무지’ 등 여성들만의 미술단체나 동호회가 비로소 탄생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여성미술인의 활동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이 무렵 민화분야도 지역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는데 최신희에 의해 포항지역에 보급

되어 이후 ‘진솔당규방문화회’가 그 활동을 이어갔는데 이정옥이 지금까지 그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

김정숙은 여러 차례의 개인전을 열고 한국여류화가회 정기전을 포함에 유치하는 등 여성미술발전에 기여하고 있고, 미협포항지부 사무국장직을 맡았던 김향자, 대백갤러리 큐레이터를 담당했던 박경숙도 현재까지 지역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여성 미술인이다. 조정희 역시 포항청년작가회 회원으로 작품 활동을 하면서 1995년 아슴터갤러리에서 가진 ‘이창연 조정희 부부화가 작품전’은 지역 화단의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제27회 경상북도 미술대전 일러스트레이션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숙희, 한국여성미술공모전 등에서 특선의 경력을 소유한 이은광, 수채화 오월회의 회장을 역임한 김정금 등이 주요 여성작가이다.

1990년에 문을 열어 90년대 중반까지 지역 작가들의 전시 공간이었던 시민갤러리를 운영한 장현애와 아슴터갤러리의 최송자는 작가는 아니지만 포항미술에 기여가 큰 인물이다.

최송자는 포항 경주 지역의 작가들은 물론 서울 대구 등지의 유명작가들의 기획전까지 유치하는 등 적극적인 운영을 해나갔다. 회화 작품전뿐만 아니라 퍼포먼스, 설치미술, 판화 등 실험성이 강한 작품세계를 지닌 작가전을 기획하였다.

시민갤러리와 아슴터갤러리는 지역에서 전문화랑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나 아쉽게도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1997년에 문을 닫았다. 그러나 여성에 의해 운영된 화랑이 포항미술 발전에 남긴 족적은 적지 않다고 본다.

2) 2000년 이후의 포항 여성미술

2000년 이후 포항여성 미술사를 짚어보면 몇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먼저 포항청년작가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작가들이 대학에서 전공한 분야를 심층적이며 실험적인 현대미술의 경향을 보여 젊고 신선한 화단을 형성하고 있는 한편 전국 미술공모를 통하여 등단한 여성 미술인이 양적으로 많이 배출된 시기로, 그동안 회화와 서예 부분에서 국한되어 있던 미술에서 도예, 조각, 목공예 부분의 작가들이 배출되어 보다 전문화 되고 확장된 미술분야를 개척하고 있다.

특히 최정미는 꾸밈없는 기교와 시원한 손맛의 질감으로 여성조각가의 활동이 어려운 조각분야에서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술치료학(서종숙, 현 박사과정)과 유약에 관한 연구(서현경), 예술행정(박경숙) 등 대학원에서 미술의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여 작가 활동과 이론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30대 여성작가로 구성되어 있는 ‘다다회’(2004년 창립)는 미술을 놀이와 상상의 개념에서 풀어내어 해마다 다양한 주제전을 개최하여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재미를 더해 주는 작품을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2000년대는 그전 시기에 비하여 개인전이 왕성하게 열린 시기이며, 김정숙, 김향자, 김의숙, 이정옥, 김엘리, 김정금, 박경숙, 박경희, 두희승 등이 괄목할만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박경숙은 2008년 ‘여성의 오늘전’, 2009년 ‘남북KOREA여성오늘전’에 참여하였고 현재 한국미술협회 여성분과위원장, 포항미술관 학예사로 재직하면서 대학원에서 전공한 예술행정을 포항미술 발전에 접목하고 있다.

3) 서예

미협 내에 서예분과가 구성되고 포항서예가협회가 결성되는 1990년대부터 서예가 독자적인 예술의 영역으로 자리잡아 가게 되었고 지역 서예가들의 활동 또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여성 서예가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어 포항서예 발전에 여성의 역할은 크다고 하겠다.

최영란은 1976년 미협에서 주관하는 전국신인공모전에 입선하면서 서예계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이후 신라미술대전, 미협 주관 대한민국서예대전, 서협 주관 대한민국서예대전, 경상북도미술대전에서 특선 등의 화려한 공모전을 거쳤다.

손성범은 한글, 한문을 비롯하여 문인화에서 대한민국 서예대전 특선, 경상북도미술대전 및 서예대전, 대구광역시서예대전, 포항시서예대전의 초대작가이며 여러 차례의 개인전을 열었다. 포항미술협회 서예분과 위원장과 경북미술협회 부지회장과 위원장, 경북문인화협회장, 한국미술협회 이사직을 맡았다.

포항시여성회관장을 역임하고 지금은 타계한 조우정은 문인화, 전각, 한글에 능한 여류로 동아미술대전, 대한민국서예대전, 신라미술대전 등의 입상과 경상북도서예대전, 포항시서예가협회 초대전, 한중서예교류전 등의 초대전 및 단체전에 참여하였고 경상북도서예대전, 포항시서예대전의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을 맡기도 하였다.

김정화는 경상북도미술대전, 신라미술대전에서 대상, 대한민국 서예대전 입선 경력의 서예가로 경상북도 미술대전 운영 및 심사위원을 역임하였고 경상북도 개도100주년전과 국제교류전(중국 요령성, 일본 후쿠야마)에 참여하였으며, 대한민국서예대전, 매일서예대전에 입선과 특선 경력의 김귀조는 신라미술대전 초대작가, 경상북도 서예대전 추천작가로서 2000년 밀레니엄 해맞이예술전에 참여하였다.

박경희는 2000년부터 잇따라 세 번의 개인전을 열면서 대나무 작품을 전통의 기법을 바탕으로 한 능란하고 힘찬 필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고, 1993년부터 열린 포항시서예대전을 비롯하여 경상북도서예대전 등에서도 포항의 여성들이 대거 입상(박정숙, 이순임, 노명옥, 최정희, 권태남)하면서 신진 여류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포항시전의 경우 해마다 2백 명이 넘는 출품자 중에서 여성이 약 7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이 대회를 주관하는 측의 말이다.

4. 무 용

1) 포항무용의 개척자

포항무용의 역사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포항무용은 곧 포항여성무용의 역사라 할 만큼 전적으로 여성들에 의해 창조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무용인구가 전무하다시피 한 포항에 무용의 씨를 뿌린 사람은 남성인 최진환이었다. 그는 1960년대에 포항에서 무용학원을 경영하면서 지역 무용을 개척했다. 안타깝게도 최진환은 일찍 타계하고 말았고 최진환에 이어 포항무용이 맥을 이은 사람은 여성인 김동은이다. 영천 태생으로 한국무용을 전공한 김동은은 1970년대 말 포항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 지금까지 포항무용의 대모로서 지역 예술발전에 열정을 쏟아 왔다.

1978년 ‘김동은 무용학원’을 설립할 당시만 해도 포항에는 무용학원이 전무하였다. 1979년 3월 시민회관에서 첫 발표회를 가진 이래 주로 화관무, 검무, 부채춤, 살풀이, 장고춤 등의 전통무용을 계승한 창작무를 매년 무대에 올림으로써 김동은은 무용인구의 저변확대와 무용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변환, 인재양성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김동은의 열정과 노력으로 포항무용이 고급문화로, 수준 높은 예술의 한 분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무용협회 포항지부장, 한국무용협회 경북지회장을 맡아왔다.

2) 포항무용의 발전기

무용인구가 형성되기 시작한 10여 년의 연륜이 쌓인 포항무용은 1988년 무용협회 포항지부의 인준으로 지역 무용인들의 체계적인 활동의 장이 마련됨으로써 포항무용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지부장 김동은을 비롯하여 손현, 흥성란, 조은정, 안혜경, 이경수 등을 포함한 15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무용협회 포항지부는 그 해 10월 올림픽 성화봉송 축하공연을 무대에 올림으로써 포항무용을 대표하는 협회 차원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무용협회 포항지부는 형산문화제, 쇯물축제, 예총포항지부에서 주최하는 송년예술제, 1990년부터 열린 경북예술제 등의 지역 문화축제에 참가하는 것을 비롯하여 포항시와 해외 자매도시인 일본 후쿠야마시 초청 공연, 중국 하남성 공연 등 멀리 해외로까지 포항무용의 기량을 넓혀 나갔다.

무용협회 포항지부에 이어 포항 무용계 발전의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된 것은 시립무

용단의 창단이였다. 이는 지역 무용인들의 오랜 숙원이자 젊은 무용인들이 지역 무용계로 되돌아 와서 창작의욕을 북돋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이었기에 시립무용단의 창단은 여러 가지로 큰 의미를 안겨주었다.

이러한 발전의 단계를 거치면서 2006년 9월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춤의 축제인 제 15회 전국무용제가 포항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전국 15개 시·도 대표팀과 초청 공연팀 등 70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수준 높은 작품과 다양한 부대행사로 무용 애호가들과 시민들의 호응 속에 연일 만원을 이뤘으며 특히 포항지역의 어려운 문화예술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업, 사회단체, 학교 등의 단체 관람이 줄을 이어 유료 관람 문화 정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989년 전국무용제가 처음 시작된 이후 경북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린 대회로 지역 무용애호가들에게 새롭고 다양한 춤의 세계를 제공해 문화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서 포항무용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되었다.

3) 지역무용을 이끄는 포항무용인들

1988년 김동은에 이어 포항에서 두 번째로 무용학원을 연 사람은 발레를 전공한 권옥희였다. 후진양성에 힘을 쏟은 결과 대학콩쿠르 등 전국규모의 대회에서 대상, 특상 등에 입상하는 원생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다수의 문하생들이 전국 유수의 대학 무용과에 진학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는 포항 태생으로서 시립무용단의 상임단원으로 활동한 손현이 있다. 1988년 올림픽 성화봉송 기념공연, 포항시와의 해외 자매도시인 일본 후쿠야마시의 미술관 개관 기념공연, 중국 하남성 공연에 참가하였고 1998년에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폐막식 공연에 출연하기도 하였다. 경북무용협회 이사를 역임하였고 현재 포항무용협회지부장을 맡아 포항무용을 이끌어 가는데 정열을 쏟고 있으며 1995년부터 ‘손현 무용학원’을 개원하여 무용 꿈나무 육성에 힘쓰고 있다.

그 외에도 무용학원을 열어 후진 양성에 기여하면서 전국 규모 및 도단위 대회를 비롯한 각종 콩쿠르에서 입상을 하고 정기적인 발표회를 통해 지역무용 활성화에 애쓰고 있는 무용인으로 유지영(우방무용학원), 신혜경(신혜경무용학원), 오경선(영남무용학원), 김성희(효성무용학원), 박은미(불쇼이무용학원), 이해령(이혜령무용학원)이 있다.

2000년 9월에는 김동은이 안무와 연출을 맡아 ‘2000년 무대공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 고장의 설화인 ‘연오랑 세오녀’를 재구성하여 무대에 올려 지역 무용인들의 역량을 마음껏 펼쳐 보였다.

5. 음 악

1) 포항음악의 발달과 여성의 참여

포항음악의 체계적 발전 계기가 된 것은 한국 음악계의 거목이었던 박태준이 1950년 피난 차 포항에 머무른 것이었다. 박태준이 포항에 머무른 3년 동안 포항음악은 악기연주 중심의 그간의 활동에서 독창과 합창에 이르기까지 본격적인 음악발전의 터전이 닦여졌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이르기까지 남성들과 함께 음악동호회를 결성하거나 단체에 직접적인 참여는 하지 않았으나 포항여성음악의 선구자라 할 만한 사람으로 방정분이 있었다. 그는 ‘보리’의 작가인 포항문학의 거목 흑구 한세광의 부인으로 1950년대 초부터 중반까지 포항여고에서 음악을 가르치면서 후진양성에 힘썼다.

1981년에는 한국음악협회포항시지부가 인준을 받음으로써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악인들의 결집과 함께 포항음악의 구심체 역할을 해나가게 되었다.

이후 기독교청년연합회가 중심이 된 ‘새롭합창단’, ‘포항합창단’, 현악기 분야의 ‘포항시립합주단’, 순수 민간차원의 ‘포항교향악단’이 창단되었는데 이는 후일 시립교향악단 창단의 기반이 되었다. 이밖에도 현악중주단인 ‘포항트리오’, 관악합주단인 ‘포항심포니밴드’가 새로이 태어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포항음악사에서 여성의 활동은 1960년에 창단된 ‘포항합창단’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겠으며 소프라노에 정옥련, 추두리, 윤성자, 이경희, 주영숙, 이영주, 엘토에 정명자, 차영자, 반주에 채옥주, 정순여, 이미선, 최춘숙이 있었다.

그밖에도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까지 포항에 머물면서 음악단체와의 협연과 후진 양성을 위해 활동한 여성 음악인으로 주영목, 포항전문대학에 재직하였던 송수복, 조혜원, 김명희 등이 있었다.

음악인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가던 1970년대에 이 지역에서 활동한 여성 음악인으로 조영숙이 있었다.

효자교회에서 성가대를 지휘하면서 포항에서 열린 소음악회 등에 솔로로 출연하면서 여성 음악발전의 기초를 닦은 음악인이었으며 1977년 무렵까지 포항에서 활동하였다.

효자교회 성가대에 조영숙의 뒤를 이은 사람이 안순자이다. 바이올린을 전공한 안순자는 서울여성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다가 1970년대 중반에 포항으로 이주해 오면서 현재까지 포항음악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포항시립 실내악단 및 관현악단의 악장 역임, 포항 최초이자 유일의 여성 합창단인

포항여성합창단에서 7년간의 지휘에 이어 1990년 창단된 포항시립교향악단에서 창단 멤버로 활동하였다.

2) 1970년대 이후부터의 포항여성음악

활기를 띠어가던 포항여성 음악은 마침내 여성들만으로 구성된 실내악단 성격의 음악동우회인 ‘어울림’을 만들었다. 지역에 거주하는 주부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포항여성 음악사에 기록될만한 일이라고 하겠으며 바이올린 안순자, 피아노 현영순, 첼로 이유진, 성악에 안진남, 장승은, 김동순이 참여하였다.

이 어울림이 모태가 되어 1985년 탄생된 음악단체가 여성트리오 ‘필그림’이며 이후 시립교향악단이 창단될 때까지의 5년간 보호시설이나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매월 정기적인 위문 연주회를 가지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1990년 5월 포항 최초이자 유일의 여성 합창단인 ‘포항시 어머니연합합창단’이 창단되었다. 단장 권혁분, 지휘 안순자를 비롯하여 포항시내 37개 초·중학교 어머니들로 구성하여 지역의 대표적인 합창단으로 발전하여 왔다. 창단시에는 주부들로만 구성되었으나 1997년 ‘여성합창단’으로 개칭하고 젊은 여성들의 참여 또한 늘어나면서 그 수준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포항에서 건전노래 부르기 지도자로 잘 알려진 조덕희는 포항성서신학원 음악강사, 포항여성아카데미 합창단 지휘자, 제일교회 장로부부 성가대 지휘자로 활동하였다.

소프라노 허미자는 시립합창단의 상임단원, 포항시여성합창단의 부지휘를 역임하였고, 포항시여성합창단의 반주를 담당한 김정혜가 있다.

6. 연극

1) 포항연극의 발달과 여성의 참여

포항연극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 자료는 없으며 1950년 12월 포항시 동빈동 창고에서 계몽연극을 했다고 전해진다.

1963년 12월 KBS포항방송국에서 방송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해 극작가와 성우들을 모집한 것이 본격적인 포항연극의 태동이다.

1964년 김삼일을 비롯한 남녀 성우 7명이 모여 포항 최초 극단인 ‘은하극장’을 탄생시켰다. 포항 최초의 극단인 은하극장은 이후 ‘극단은하’의 이름으로 존재해 오기까지 포항연극사의 큰 물줄기를 형성하여 왔다.

여기에 참여한 7인의 멤버 중 강신홍과 공설자가 여성이었다. 두 사람 모두 KBS포항방송국 전속 성우로 있던 중 은하극단에 입단하여 연극 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들 두 여류가 참여한 최초의 공연이자 은하극단의 창단공연은 1965년 시내 상원동에 위치한 애린예식장에서 막을 올린 최동주 작 ‘비와 대화’였다.

포항연극사에 있어 여성연극인의 활동은 절대적인 역할을 할 정도였다. 포항연극을 주도하여 오던 극단은하는 1983년 제1회 전국연극제에서 여자연기상, 1985년 제3회 전국연극제에서는 ‘대지의 딸’이 대통령상과 여자연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러한 발전에 힘입어 1989년에는 제7회 전국연극제를 포항에서 유치하게 되었으니 이는 중소도시로는 최초로 그만큼 포항연극의 역량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바라 하겠다.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신진 극단들이 하나 둘씩 탄생되고 포항연극 발전의 하나의 획이라 할 수 있는 시립극단이 1983년 5월13일 창단되었다.

1981년에 극단 ‘예맥’, 1988년 극단 ‘가인’(창단시에는 ‘늘푸른 공간’), 1992년에는 극단 ‘형영’, 1993년에는 극단 ‘난장’, 2002년에는 ‘극단 Over21’이 창단되어 포항연극의 전성기를 맞게 된다.

2) 포항연극을 이끈 여성 연극인

1983년 우리나라 연극의 대제전인 제1회 전국연극제에서 ‘바다로 가는 사람들’에서 여자연기상을 수상하면서 연기력을 인정받은 정옥희가 있다. 그는 지역 언론인이면서 1970년대부터 극단은하의 단원으로 많은 번역극의 주연으로 열연하였다. 1989년 포항에서 열린 제7회 전국연극제에서 경북대표인 극단은하의 ‘산불’에 출연하여 호평을 받는 등 포항연극 발전에 주요한 공을 하였다.

포항여성연극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 손꼽을 수 있는 사람은 탤런트로 더 잘 알려진 이휘향이다. 그는 신인 탤런트로 주목받고 있던 차 결혼과 함께 포항으로 온 뒤 포항연극 무대에 서게 되었다.

1985년 첫 작품인 ‘대지의 딸’에서 제3회 전국연극제 여자연기상을 수상하면서 ‘대지의 딸’이 대통령상을 받는데 공헌하였고 이후 연극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연기자로서의 대성을 약속받게 되었다. 지금은 탤런트로, 영화배우로, 연극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선린대 연극동아리 출신 황영란은 1987년부터 ‘굿닥터’를 시작으로 연극무대와 인연을 맺어 1989년의 제7회 전국연극제 ‘산불’에서 자신의 연기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연극제의 꽃이랄 수 있는 연기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1992년 극단은하에 입단한 황상해는 제13회 전국연극제 참가 작품인 ‘산국’ 등에서 다양한 연기를 보여주었으며 1999년부터 시립연극단에 입단하여 활동하고 있다.

제5회 경북청소년연극제의 무대에 올려진 ‘동승’을 시작으로 1998년부터 극단은하에 입단한 하지희는 1999년도 경북연극제와, 2000년 제18회 전국연극제에서 각각 여자연기상을 수상하며 현재 극단은하의 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밖에 극단은하의 전영숙, 박현진, 양윤정, 이지숙, 정소영, 박소라, 김부영, 박현정, 황진경, 이보람, 예맥에서 활동 중인 박춘하, 이금희, 극단형영의 이동선, 최옥경, 김태숙, 정효진, 민광숙, 박지영, 민지혜가 있으며 극단 가인의 김채영, 김외경, 정은이, 진윤정, 극단난장의 제성심, 극단Over21의 박지현, 이응희, 시립극단 소속으로는 장희량, 설해순, 김미라, 김순남, 황상해, 윤주미, 이선아, 김학숙, 최현아, 김용화, 권수정, 이흔지 등이 있다.

7. 사 진

1) 포항사진의 역사와 여성

포항사진의 역사는 1953년 창립된 ‘포항사우회’에 이어 1960년대 초의 ‘새빛클럽’과 ‘오광회’에서부터 그 뿌리가 시작되었다고 하겠다.

이후 1965년 한국사진협회 포항지부의 창립과 함께 그 활동이 전개되었고 박영달과 김덕수, 이도윤 등이 국전 등 전국단위 대회에서 입선을 하면서 작품세계를 넓혀나갔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사진예술이 보편화되지 못했고 특수한 예술 장르로 인식되었던 탓에 여성의 참여는 전무하였다.

197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포항수산전문대학(현 포항1대학)의 ‘초침사진회’와 포항간호전문대학(현 선린대학)의 ‘시선사진회’의 창립은 포항지역에 아마추어 사진 동아리 결성에 하나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이는 사진분야에 여성의 참여를 유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사진협회의 결성과 더불어 1970년대 후반부터 사진동우회가 앞다투어 생겨났으나 여전히 여성들의 참여는 저조하였다.

2) 포항지역의 여성 사진작가와 활동

1990년대까지만 하여도 사진분야에 여성의 활동이 미미했던 시절에 김지미는 《월간영상》 추천작가로 ‘시선사진회’에서부터 창작활동을 시작, 1993년에는 ‘선린사진동우회’를 창립하는 등 남성 일색의 포항사진에 여성작가로서의 두각을 나타내면서 경북미술대전, 노동문화예술제 등 공모전 입상과 동아리 회원전에도 꾸준히 작품을 출

품하였으며 1999년에는 방글라데시 의료선교 자원봉사에 참가하여 그를 테마로 한 기획전(개인전)을 열면서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오경숙은 1994년 진주 개천예술제 사진공모전에의 입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다. 동아국제살롱 입선, 경북미술대전, 신라미술대전 등의 입상경력이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지역 사진계에도 여성의 활동이 활기를 띠게 되어 1998년 ‘포항햇살회’가 창립되어 초대회장 유영님을 주축으로 7명의 여성회원이 참가하게 되었다. 유영님 등 여성 회원 대부분이 전국 사진공모전에 입상 하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01년에는 ‘포항여사회’가 창립되어 김철순을 주축으로 13명의 회원이 활동 하고 있고 역시 다수의 회원이 전국단위의 공모전에서 입상을 하는 등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한국사진작가협회 포항지부에서 회원으로 활동 중인 여성들은 15명이다.

8. 생활예술

1) 꽃꽂이

포항지역에 꽃꽂이문화의 시작은 1960년대 포항 최초의 회원인 시민회원의 김병진 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1970년대 포항여고 교사였던 이정주가 특별활동반으로 만들어진 꽃꽂이반을 지도하면서 슬라이드 학습 자료를 만들어 교육감상을 수상하였다.

이를 계기로 이정주는 본격적인 꽃꽂이연구와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포항 꽃꽂이문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정주는 장애인돕기기금마련 전시회, 회원정기전 등의 전시회를 열고 지역 방송국을 비롯하여 해병사단, 부덕사, 여성문화회관 등에서 강좌를 하는 등 꽃 문화를 발전시켰다.

1980년대에 포항지역 꽃 예술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시작한 사람으로 장현애와, 이선희가 있다. 장현애는 새로운 장르의 꽃꽂이를 시도하여 시민갤러리에서 꽃들회 회원전을 개최하였다.

전국기능대회 메달리스트, WFEA컵 대한민국 전통꽃꽂이대회 대상 등 여러 차례 수상하였으며 전국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지방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국가자격기사 기능사 감독위원을 맡고 있으며, 이선희는 소년소녀가장돕기 회원전을 열었으며 포항 화원협회에서 회원들을 지도하고 있다.

이동은(춘정회)은 프레스플라워(압화) 보급의 주역이며 다수의 수상경력과 전시회를 가졌고 현재 여성문화회관 강사, 선린대 프레스플라워 강사, 은정꽃예술중앙회를 운영하고 있다. 최찬옥(찬옥플라워)은 교회 성전꽃꽂이를 널리 보급 하였으며 흥해새마을

금고 꽃꽂이 강사 등 후진양성에 힘쓰고 있다. 그 외 근연회, 광자숙꽃꽂이, 소정회, 하수회, 하공회 등은 포항의 꽃 문화 발전과 보급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2) 다도

포항지역의 다도 역사는 포항차인회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3년 1월 ‘포항차인회’가 창립되고부터 포항 지역에 다도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부터 당시 포항 여성회관에서 전통다도예절 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100명이 넘는 회원들을 양성하며 20여 년 동안 2천여 명의 차인들을 배출해낸 것이다.

포항차인회는 2004년 6월 15일 ‘포항차인회 청정다례원’이라는 현판을 걸고 본격적인 전통다도 예절교육 실시해오면서 매년 호국 영령을 모신 수도산의 충혼탑에서 헌다례식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 포스코, 포항청년회의소, 각급 학교에 다도 예절을 보급하는데 앞장서는 한편 매년 봄차회와 가을차회를 열어 시민들과 함께 다도의 멋과 향을 나누는 행사도 빼지 않으며 한동대학교 외국인 교수들에게도 한국의 전통다도를 가르치면서 한국과 포항을 알리는 일에도 노력해오고 있다.

2009년도부터는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기획공연으로 열고 있는 상설 브런치 퓨전 공연인 ‘차향이 있는 작은 음악회’에서 차봉사를 함으로써 연주자와 감상자가 차를 마시면서 편안하게 상호 교감하는 예술마당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포항지역에 다도의 씨를 뿌리고 가꾸고 열매를 맺게 한 사람은 현재까지 포항차인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인순이다. 그는 다도보급에 대한 열정과 집념으로 포항차인회의 산파이자 대모 역할을 맡아 다도가 시민들의 생활에 한 뿔을 다하는데 기여한 다도인이다.

현재 포항차인회의 총 회원수는 150여 명으로 회장 김인순, 수석부회장 김점수, 부회장 김봉희, 정순귀, 김숙자, 박해수, 이평자, 이길선, 장영순, 이인호 등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3) 도예

포항도예의 역사는 2003년 포항도예가협회가 창립되면서 비로소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포항시립미술관 학예사 박경숙이 포항대백갤러리 큐레이터로 재직 할 당시 포항에서 작업하는 도예가들을 모아 협회를 창립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창립 다음해인 2004년에 여성 도예가인 김의숙이 회장을 맡아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총 9명의 회원 중 김의숙, 서현경, 오혜영 등 3명의 여성이 활동하고 있으며 포항지역에

도예문화를 알리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2003년 창립전을 시작으로 매년 정기적인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창립전에는 거의 찾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분야였으나 일월문화제와 해마다 열리는 어린이날 행사에서 시민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도자기 무료체험 행사를 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점차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있다. 회원들은 꾸준한 작품 활동과 더불어 지역의 문화센터 등에서 생활도예반을 개설하여 강좌를 열고 대학 강단이나 개인 작업실에서도 후진양성에 힘쓴 결과 해가 거듭 될수록 참여하는 인원이 많아지고 취미반 회원들이 전시회를 갖는 등 포항지역에도 도예문화가 빠르게 자리잡아 나가고 있다.

도예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의숙, 영덕문화예술체험학습장 도예강사로 활동 중이며 청년작가회와 다다회 회원으로 활동 중인 서현경과, 주로 인테리어소품과 생활자기 위주의 소품작업을 하면서 도예강사로 활동하는 오혜영도 초기 창립 회원으로 포항지역에서 각자 개성에 맞는 작업과 함께 대학 강단이나 문화센터 등에서 후진양성과 도예문화를 저변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4) 염색

포항의 천연염색에 관한 역사는 비교적 짧다. 관심이 있어도 포항에서는 천연염색을 배울 곳이 없었던 10여 년 전 김용희, 김영자, 김경순, 이상복, 홍명옥 등이 안동에 있는 전통문화진흥회에서 실시하는 천연염색 1년 과정을 수료한 것이 포항 천연염색의 시작이라 하겠다.

그 이전에 선린대 평생교육원에 염색 강좌가 한번 개설 된 적이 있었으나 순수한 천연염색은 아니고 일반적인 공예염색 과정이었다. 그 후 2005년에 포항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으로 천연염색 과정을 개설하면서 빠르게 보급 되었다. 2006년에는 포항천연염색연구회가 창립되어 38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그간 3기의 과정을 통해 130여 명의 교육생이 배출되었고 연구회 자체 브랜드 ‘토색미소’를 개발하여 상품화하였다.

포항지역에 천연염색을 처음 시도한 사람 중의 한사람인 김용희는 2005년에 한국 공예문화진흥원 천연염색 과정을 수료하고 농업기술센터와 여성문화회관에 출강하여 천연염색의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 이춘자는 개인브랜드 ‘들국화’를 등록하였고, 그 외에도 농업기술센터 수료생들의 조직인 ‘포항천연염색연구회’, 여성문화회관 1기 수료생들의 염색동아리 ‘해오람’이 있다.

포항의 천연염색은 이처럼 역사는 길지 않고 활동하는 작가층도 두텁지는 않지만

현대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참살이, 녹색산업 등의 자연주의 흐름과 맥을 같이하여 그 발전과 호응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 자연물에서 아름다운 색을 얻어낸다는 점에서 건강과 정서함양에도 많은 도움이 되며 건강 차원 뿐 아니라 공예기술과 디자인 감각이 더해져서 실용성과 예술성을 함께 추구하는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9. 여성교육과 여성축제

1) 포항여성 교육의 요람 여성문화회관

1970년대 무렵, 우리사회가 선진사회로 들어서면서 여성회관 건립이 절실하게 되어 1974년 추진위원회(위원장 손정식)가 구성되어 본격적으로 여성회관 건립이 추진되었다. 1976년 7월 9일 포항시 북구 죽도2동 73-6번지에 부지 1,604㎡ 연건평 839㎡,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로 지하 1층 지상 2층을 준공, 포항 지역 여성들의 숙원인 여성회관이 문을 열었다. 개관 당시 운영은 여성단체에서 맡아(명예관장 손정식) 지역 여성들의 복지증진의 요람으로 출발하였다.

1977년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규칙이 공포되고 1989년 5월 11일자로 포항시부녀복지회관 설치조례가 공포되어 부녀복지회관으로 개편하고 포항시사업소로 새롭게 출발하였으며 포항시여성단체협의회장이었던 김경희가 초대 관장으로 부임하였다.

이후 신부대학과 주부대학의 개설과 교육프로그램 및 강사진의 정비로 여성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여성교육 외에 부속 유아원 운영으로 보육사업도 시작하여 맞벌이부부의 자녀 교육에 큰 도움이 되었다.

당시 여성회관에는 유아원반이 3개나 됐으며 전문가들에 의한 교육이 모범적으로 실시돼 호응을 얻었다.

1990년부터는 주부대학을 여성교양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화, 꽃꽂이, 수지침, 어학, 다도 등의 일반적인 교양과 취미 외에도 부업이나 취업을 위한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비하여 조리, 양재, 홈패션, 미용, 도배 등 다양한 기능교육도 시행하면서 전문직업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지역 여성들의 참여도를 높여 나갔다.

1996년부터는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컴퓨터 교육을 신설하였으며 수강생 작품 전시회도 열었다.

그 외에도 일일 취업알선 창구를 운영하여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뒷받침 하는 한편, 법률을 전공한 조우정 관장을 주축으로 부녀자 상담실을 개설하여 여성 권익향상과 건전가정 지도육성에도 노력하였다.

당시의 여성회관 청사는 늘어나는 여성들의 교육수요를 수용하기에 좁은 공간으로 새 여성회관 건립이 추진되었다.

북구 우현동 토지정리지구에 부지가 확정되어 1998년 2월 착공공사를 시작으로 총 공사비 64억 3천만원(국비 17억 4천, 도비 2억 3천, 시비 44억 6천)이 투입되는 현재의 청사 건립이 시작되었다.

2001년 2월 26일 지하 1층, 지상 3층, 대지 3,578㎡, 연면적 4,481㎡ 규모의 여성회관이 마침내 준공되어 같은 해 4월 13일자로 포항시여성문화회관으로 명칭 변경, 4월 26일에 개관하여 현재까지 포항 여성교육과 문화의 요람으로 터를 잡고 있다.

2009년 현재 운영현황을 보면 국가기술자격증 및 독서지도사교육, 취업, 창업, 부업 대비 기술교육, 문화, 예술, 교양교육, 야간 및 토요교육 등 정규 여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연간 약8천명의 수강생을 배출해내고 있다.

그 외에도 중견여성대학, 이동여성회관 운영, 자녀와 함께 하는 체험학습, 여성상담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여성결혼이민자 사회적응교육, 여성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직업교육,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사업으로 명실 공히 지역 여성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학점은행제를 시행하여 정규대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전문 또는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장으로 그 역할을 넓혀 나가고 있으며, 여성취업지원센터도 설치 운영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전문적인 여성 커리어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국제결혼의 급증에 따라 2007년부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결혼이민자에 대한 상담, 직업교육,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통해 다문화가정을 돕고 있다. 또한 600여명이 참여하는 여성자원활동센터를 통해 지역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관과 시설에서 여성의 파스한 손길로 자원봉사를 펼치고 있다.

한편 매년 5월에 열리는 ‘WIN WIN한마음축제’는 1년간 익힌 수강생들의 기술과 솜씨를 자랑하는 전시회, 체험행사, 바자회를 통해 수강생과 결혼이민 여성, 자원봉사자 등 지역 여성과 전시민이 함께 하는 화합의 장이 되고 있다.

2) 포항여성축제의 한마당 세오녀문화제

해마다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한 주간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정해진 여성주간이다. 여성주간을 취지와 내용을 보면 여성의 발전도모 및 남녀평등 촉진 등에 관한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등에서 기념식을 하고 유공자를 격려하는 한편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포항시에서도 이 기간에 즈음하여 여성들의 역량집결과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가족 사랑을 위한 기념행사를 통해 모든 여성들이 함께 참여하여 어우러지는 여성축제를 열고 있다.

1997년부터 ‘포항시여성문화제’라는 명칭으로 열어 오다가 제9회인 2006년부터 지역의 설화 속 인물로 역사성이 있고 잘 알려진 여성인 세오녀를 통하여 보다 친근하고 전통을 계승한 여성문화제로 정착시키고자 ‘세오녀문화제’로 이름을 바꾸어 열고 있다. 이 문화제에서는 여성 중심의 다양한 축제와 여성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행사를 비롯하여 여성문제를 제고해보는 세미나와 강연회를 여는 등 포항지역에서 열리는 가장 큰 여성문화축제로 각계각층의 지역 여성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어우러짐으로써 여성들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지원, 양성평등 의식의 확산은 물론 여성들의 자기발전을 위한 좋은 계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포항시 승격 60주년을 맞아 열린 2009년 제12회 세오녀문화제는 “새로운 포항 60년, 여성의 힘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33개 여성단체 2천여 명이 참여하였다.

한편 세오녀문화제 기간 중에는 포항발전에 공이 큰 여성을 가려 ‘포항시여성상’도 시상하고 있으며 역대 수상자를 보면, 제1회(1998년) 손정식, 박경애, 홍윤옥, 김봉순, 제2회(1999년) 배수련, 제3회(2000년) 김경희, 제4회(2001년) 김인순, 서차분, 제5회(2002년) 채옥주, 김보미, 제6회(2003년) 황복희, 장진복, 제7회(2004년) 조우정, 제8회(2005년) 송춘득, 제9회(2006년) 이분우, 제10회(2007년) 이재선, 제11회(2008년) 이진영, 제12회(2009년) 최채원, 이평자이다.

3) 포항여성예술인 총연합회

2006년 10월 27일, 포항을 문화예술 도시로 발돋움시키는데 한 몫 할 여성예술인 단체가 탄생했다. 포항에서 활동 중인 여성 예술인들이 지역사회의 봉사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고 건전한 예술풍토 조성으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이정옥(민화), 손성범(서예), 안순자(바이올린), 오경숙(사진) 등이 발기인이 되어 총 35명의 회원으로 창립총회를 가지게 된 것이다. 초대회장에는 이정옥, 부회장에는 안순자와 박경희, 사무국장에는 오경숙이 각각 선임됐다. 회원은 각 분야별 활동 10년 이상자로 전체 12개 분과에 여성 예술인들로 결성됐다.

창립 이후에 많은 회원을 영입하였고 활동도 활발하여 창립 이듬해인 2007년 7월 포항시에서 열린 세오녀문화제와 불빛축제에서 다양한 전시와 체험행사를 연데 이에 2008년 7월에는 포항문예회관에서 포항여성예술인연합회전을 열어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2009년 7월에는 50여 명의 회원들이 울릉도에서 다양한 문화체험을 가짐으로써 울릉군민과 포항시민의 유대를 다지고 포항 여성예술문화를 알리는 좋은 기회를 만들었다. 이밖에도 중앙상가 실개천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행사를 열었고 현재 회장에 이정옥, 부회장에 진용숙, 박경희가 맡고 있으며 여성회원 1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기존 예술 분야 외에도 화훼, 요리, 전통차 등 여성들이 활동하는 문화 분야를 총 망라한 30여 분과로 지역을 대표하는 여성 예술단체로서 포항여성 예술의 구심체로 발전하고 있다.

참고문헌

- 포항시, <시승격50주년기념사업자료>, 1998.
연오랑 세오녀상건립추진위원회, <연오랑 세오녀상 건립문>, 2000.
편장섭편, 《해맞이의 성지 포항, 호미곶》, 포항시, 2004.
포항지역사회연구소, 《포항국제불빛축제 개선방안과 포항시 축제 발전방안 심포지엄 논문집》, 2006.
김갑수, <포항국제불빛축제 개선과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포항연구》38호, 2006.
포항시, 일월문화재자료, 2007.
포항시, 시승격60주년 포항시사편찬위원회 회의자료, 2008.
포항시, 시승격60주년기념사업자료, 2008.
각 연구소 연혁자료, 2009.
포항문화원, 연오랑 세오녀선발자료, 2009.
포항시, 각 도서관 및 각종문화기념관 자료, 2009.
포항시, 전통문화전승사업자료, 2009.
포항시, 일월문화제 자료를 비롯한 각종 축제자료, 2009.
본장의 <포항문화 연구논문 및 단행본>참조.

제10절 문화공간과 교육기관

1. 문화공간·시립예술단

1) 문화예술회관

지역의 문화진흥과 예술 활동을 위하여 문화예술회관은 1995. 5. 26 개관이래 격조 높은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유치, 지역문화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대시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공연장 무대 음향, 화장실 전면 개보수, 공연장 조명등의 개보수와 공연장비 첨단화로 공연의 질을 한층 높였으며, 시립예술단 자체 공연과 찾아가는 공연, 우수작 초청기획공연과 자체 기획 전시 개최로 시민정서 함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1) 기본현황

① 연혁

- 1989. 3. 1 회관건립 추진 기획팀 구성
- 1991. 10. 21 착공(시공-LG건설, 감리-포스에이시)
- 1995. 1. 11 회관설치조례제정(제8호)
- 1995. 5. 26 개관
- 1995. 6. 21 회관사용설치조례제정(제158호)
- 건립비 : 280억원(국비 6, 도비 15, 시비 189, POSCO 성금 50, 문예기금 20)

② 기구 및 인원

- 기구 : 관장 1, 담당 3 (관리, 기획홍보, 운영담당)
- 정·현원 현황

구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원	17	1	3	3			7
현원	16	1	3	4		3	8

※ 지방전임계약직 다급 1명

③ 시설개요

- 규 모 : 대지 31,988㎡, 건물연면적 12,943.87㎡
- 구 조 :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조(지하1층, 지상2층)
- 관 랫 석 : 대공연장 982석, 소공연장 266석
- 부대시설 : 전시실 및 교향악단 연습실 등 9개소
- 주요장비 : 음향, 조명, 무대시설등 공연시설장비 일체

④ 주요 문화공간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전체면적	무대면적	좌석 수
대 공연 장	1,817	918	982
소 공연 장	393	100	266
야외 공연장	400	148	수용인원 : 300명
전 시 장	1,614	1층 : 전시실 396, 로비 574 2층 : 전시실 215, 로비 429	

2) 포항시립예술단

포항시립예술단은 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 등 3개단 140여 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매년 110여회 공연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신춘, 청소년, 가정, 송년음악회 등 테마공연 및 클래식과 대중가요를 접목하여 시민과 함께 즐기는 팝스콘서트 및 중·고·대학교·병원·군부대·읍면동·아파트·공동주택단지 등 초청 또는 찾아가는 공연을 개최하고 있다.

시립예술단원 현황

(2008. 12. 31 현재)

구 분	정 원	현 원			창단일
		계	상임	비상임	
계	126	126	126	0	
연 극 단	18	18	18	0	1983. 5. 12
합 창 단	49	49	49	0	1990. 3. 17
교향악단	59	59	59	0	1990. 4. 17

(1) 시립연극단

포항시립연극단은 1983년 5월 12일 전국 최초로 창단된 유일의 시립예술단으로 출발하여 수준 높은 연극을 선사해 왔으며, 1999년부터는 향토 출신인 김삼일 전문연극

인을 상임연출가로 맞이하면서 매년 정기공연과 찾아가는 공연 활성화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좋은 연극을 만들기 위해 전단원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

(2) 시립합창단

1990년 3월 17일 박창근 초대지휘자의 지휘로 탄생하였으며, 1992년 9월 제2대 라경관 지휘자, 1995년 2월 제3대 이판준 지휘자, 1997년 7월 제4대 최성진 지휘자가 단원들의 기량을 부단히 향상시켜왔다.

2005년 1월 이래 제5대 김용훈 상임지휘자가 역임하면서, 연간 4회 정기공연 외에도 특별연주, 찾아가는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시민과 함께하는 공연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3) 시립교향악단

1990년 3월 17일 포항관현악단과 포항교향악단을 모태로 창단된 시립교향악단은 지역에 교향악의 보급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1998년 8월 제2대 상임지휘자 박성완 부산대 교수가 취임하면서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에게 한층 더 친근한 예술단으로 변모하였고, 2008년 4월 제3대 유종 상임지휘자 취임 이래 65명의 단원과 함께 정기연주회, 테마가 있는 특별연주, 청소년 음악회 및 찾아가는 공연 개최로 왕성한 공연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TV방송과 공동주최 팝스콘서트, 해외 연주회 등을 개최하여 국제적인 기량을 연마하는 교향악단으로 거듭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전국교향악축제에 참가를 추진하고 타 교향악단과의 교류와 경쟁을 통한 기량 향상과 음악에 대한 폭을 넓히고자 노력하고 있다.

시립예술단 공연현황

구 분	2007년				2008년			
	계	정기	특별수시	찾아가는 공연	계	정기	특별수시	찾아가는 공연
계	98	20	36	42	91	19	24	48
연극단	28	11	6	11	29	8	3	18
합창단	34	4	13	17	31	3	12	16
교향악단	36	5	17	14	31	8	9	14

(4)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 예술단장 : 부시장(부단장 : 행정지원국장)
- 예술단 운영위원회 : 위원장 부시장(위원 10명)
- 운영위원회 활동 내용 : 각 예술단체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간부단원의 선정 및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을 조정·심의

(5) 공연예술의 다양화

시민들에게 우수하고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운영하고자 전국우수작 초청기획공연 및 초대작가 기획전 개최, 상설 브런치 퓨전공연, 찾아가는 공연활성화로 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기획공연 현황

구 분	2007년	2008년
회 수	7	10
공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관 이형수 문인화전』 · 2007 포항청소년 합창제 · EBS『모여라 덩동댕』 · 발레 『백설공주』 · 퓨전콘서트 · 『소울 오브 하모니카』 · 수능생을 위한 음악회 · 『수능탈출 아자!페스티벌』 · 장용호 조각가 특별초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미술기획전 I · 『사유·놀이·추상 총동』 · 발레『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 연극『휴먼 코메디』 · 2008 청소년합창제 · 차향이 있는 작은 음악회 3회 · 가족뮤지컬『크리스마스캐롤』 · 최미경의 건축타일프로젝트전 외 기획전시 3회
예산액(천원)	100,000	100,000

(6) 문화회원제 운영

질 높은 공연문화 정립을 위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년간 무료회원제를 운영하였고, 고정 관람객의 유치 등 문제점을 보완하여 2004년도부터 다시 유료회원제를 운영하였으나 2007년까지 회원가입이 저조해 2008년 2월에 회원제를 개정·보완하여 회원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① 회원관리

•무료회원

- 회원자격은 가입일로부터 탈퇴할 때까지
- 공연 안내 문자발송

•유료회원

- 가입일로부터 1년간 정회원으로 우대관리
- 회원증 발급
- 시 주최 공연·전시 3개월 단위 프로그램 브로셔 및 각종 홍보물 우송
- 포항시 주최 유료공연 20~30% 할인혜택
- 각종 대관 유료공연 시, 주최측과 협의하여 초대권 및 할인혜택 부여
- 회원 1,000명 이상 기업체 단체 가입 시, 사은음악회 또는 특별공연 개최

•회원가입

구 분		기 준	연회비(원)	비 고
무료		만5세 이상 휴대폰 소지자	없음	공연, 전시 정보 문자발송
유료	으뜸	성인1인	10,000	(기업 또는 단체) 10명 이상 20% 할인 30명 이상 30% 할인 50명 이상 40% 할인
	버금	학생1인	5,000	10명 이상 20% 할인 30명 이상 30% 할인 50명 이상 40% 할인
	사랑(가족)	성인2인, 학생2인	25,000	성인 1인 추가 10,000원 학생 1인 추가 5,000원

② 회원현황

(2008. 12. 31 현재)

구 분	2004~2007년	2008년~현재
회 원 수(명)	27	650
회 비(천원)	595	6,700

(7) 공연장 대관 운영

각종 문화예술 공연과 축제, 공공행사 등으로 문화예술회관이 이용되고 있으며, 전문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장으로 기틀을 마련해 가고 있다.

공연장 운영 실적

(2008. 12. 31현재)

구 분		2007년	2008년
합 계	건수(건)	243	260
	인원(명)	161,664	206,681
대 공연장	건수(건)	67	61
	인원(명)	72,885	100,652
소 공연장	건수(건)	62	64
	인원(명)	6,019	6,829
전시장	건수(건)	39	51
	인원(명)	35,180	43,060
야외공연장	건수(건)		2
	인원(명)		4,070
기타행사	건수(건)	75	82
	인원(명)	47,580	52,070

3) 시민회관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함께 상대적으로 역할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시민회관은 지역 시민들을 위한 소중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었다.

시민회관은 1961년 4월 18일 포항시 북구 덕산동 113-11번지에 연면적 1400㎡ 2층 규모로 건립된 시민회관은 당초 ‘시공관’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여 1960~70년대에는 각종 공연과 문화예술 행사장으로 1995년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기 전까지는 포항시의 유일한 문화공간으로서 음악회나 연극 공연 등 지역의 거의 모든 문화행사를 소화해 왔다. 시민회관은 포항시청 공무원 2명이 관리를 맡아 각종 연극이나 음악회 등 예술공연과 함께 각종 세미나나 시민강좌, 민방위교육 등 연간 260여 차례의 다양한 행사를 치러냈던 시민들에게는 가장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다가 2001년 한국무대기술연구원의 정밀안전진단에서 목재무대의 합판이 손상돼 내려앉을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명돼 더 이상 사용이 어렵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3월부터 시민회관의 용도를 폐지, 대관을 금지하고 4월 21일 재난위험시설(E등급)로 지정했으며 시민회관의 용도를 폐지하고 시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철거하기에 이른다.

2009년 현재 포항시는 사업비 49억 원을 투입해 문화예술 활동 시설을 위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593㎡의 건축물을 2009년 12월 완공 목표로 현상공모를 통한 설계자를 선정, 공사 착공에 들어갔다.

(구)포항시민회관은 곧 ‘중앙아트홀’ 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더 많은 문화예술의 혜택을 가지고 지역민들과 함께하게 될 예정이다.

2. 교육기관

1) 포항예술고등학교

포항은 물론 경북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숙원이던 포항예술고는 1997년 5월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산 68번지 일대 8천여 평의 부지에 건축 연면적 7,500평의 현대식 3층 건물로 준공됐다. 학교법인 대동학원이 설립한 포항예술고 초대 교장에는 1960년 동국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40여 년간 포항지역 교육발전에 이바지해온 대동고 김현호 교장이 취임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기대 속에 설립된 포항예술고는 같은 해 10월 후학기 특수 목적고 모집 일정에 따라 중학교 교과성적 40%와 실기성적 60%로 음악과 미술 두 개 과에 각 50명씩 백 명의 제1회 신입생을 선발했다. 이들 첫 신입생은 1998년 3월 입학식과 함께 국내 정상급의 교수진과 시설 속에서 예술적 재능을 키워나갔다.

포항예술고는 이들 학생들을 모두 명문 예술대에 진학시켜 음악과 미술분야의 대가로 양성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인 예술가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포항지역에는 각 학교별로 10여 명에서 20명 정도의 예술계 지망생이 매년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예술계 특기생을 위한 교육시설은 김천예고와 대구에 있는 경북예술고뿐이었던 데다 김천예고는 음악과 하나밖에 없어 상당수 예술고 지망생들이 외지로 유학을 떠나면서 외지생활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물론 교육비 부담까지 떠안아야 했다. 그러나 포항예술고 설립으로 경북 동해안 지역의 예술 특기생들이 고향에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돼 열악한 문화환경의 포항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장기적인 초석이 마련된 것이다.

포항예술고는 전문예술인 육성이라는 교육이념 실현을 위해 음악과 25명, 미술과 11명의 강사진을 분야별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로 선발했다. 또 매일 7시간 이상의 전공실기 실습과 대학진학에 필수적인 학력증진을 위해 소그룹 개별화 지도를 실시하는 등 과학적이고 현대적인 예능교육으로 학생들의 타고난 재능을 계발 신장시키

는데 치중하고 있다.

한편 포항예술고는 1998년 개교와 함께 박창근을 지휘자로 하는 합창단도 창단해 12월 문화예술회관에서 제1회 정기연주회를 연 것을 시작으로 포항합창단 정기연주회에 특별 출연했고 2009년 현재까지 꾸준히 정기연주회 및 작품전을 개최하고 있다. 1999년 4월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바리톤 임운석 독창회에 우정 출연하는 등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1999년 12월에는 미술실기동을 준공, 2001년 5월에는 예송관 준공하고 같은 해 9월에는 각 학년 3학급(음악과1, 미술과2) 총 9학급이 안기되고 학급인원 또한 변경, 증원했다.

2002년 11월 6일에는 타 지역에서 포항예술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들을 위해 기숙사를 준공하고 2003년 1월 20일 제1회 동문 음악회를 개최하기에 이르고, 자율학교로 지정됐다.

2004년에는 각 학년 4학급(음악과 2, 미술과 2) 총 12학급이 인가되고 2005년 10월에는 미술관 준공, 2007년 12월에는 조소관을 준공하는 등 전국 어느 예술고등학교보다 뛰어난 교육환경을 자랑하고 있다.

참고문헌

각 협회, 지부 및 단체 연혁 및 자료
각 문화기관 및 예술단체 자료
포항예술고등학교 연혁 및 자료